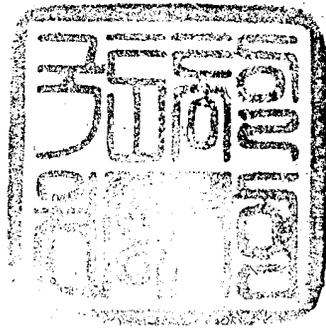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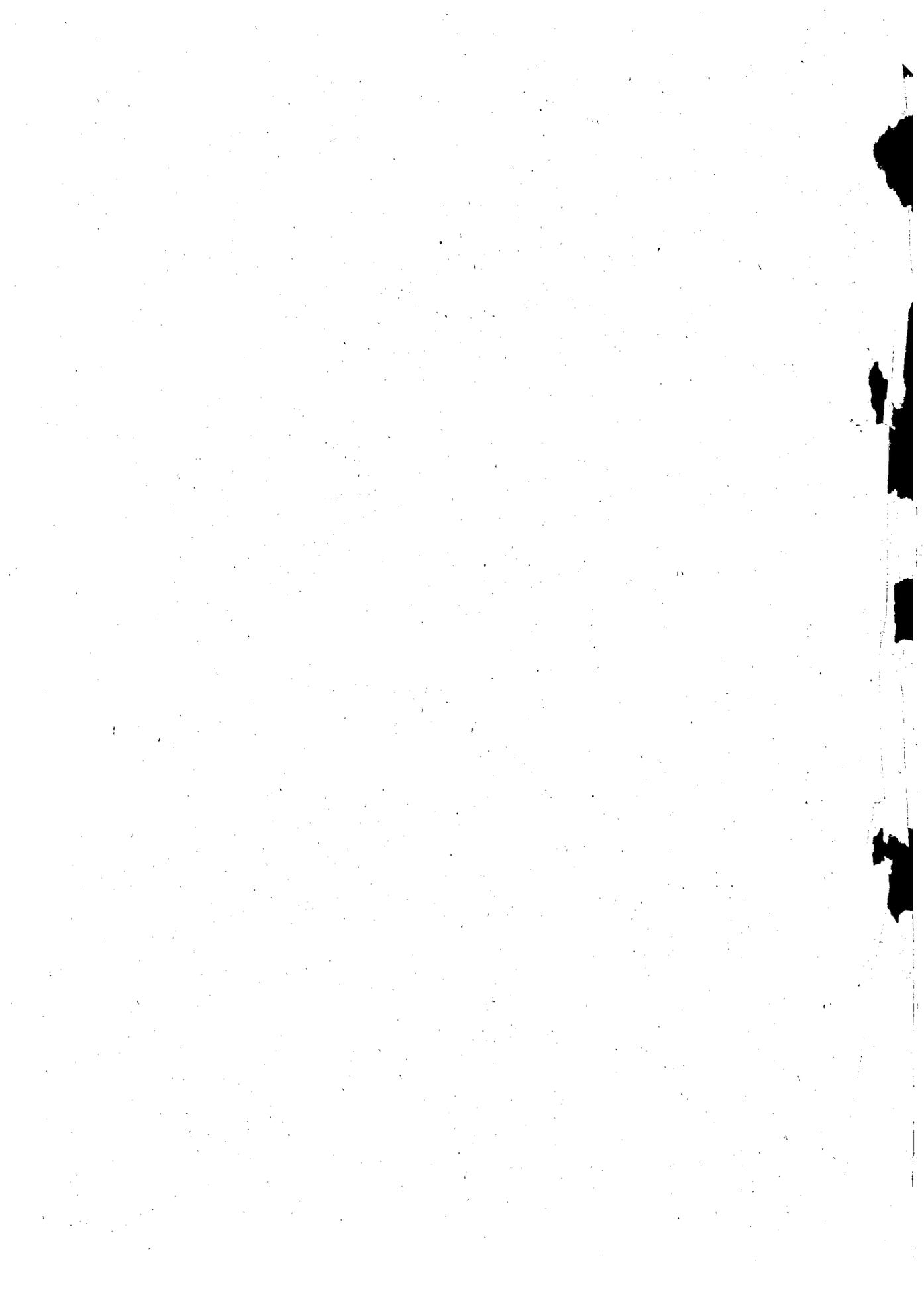
共產主義論

1983



636

國土統一院
統一研修所



◎ 本教材는 새로운 次元의 反共教育을 實施함에 있어 對象別 共產主義 批判 教材를 開發하라는 大統領 閣下의 指示 (80. 11. 20)에 의거, 1981年 3月에 「國民精神教育專門要員」用으로 發刊한 것을 修正補完한 것임.

◎ 執筆陣

第1章 共產主義 革命이데올로기와 實際

第2章 共產主義體制에서의 黨의 絶對성과 役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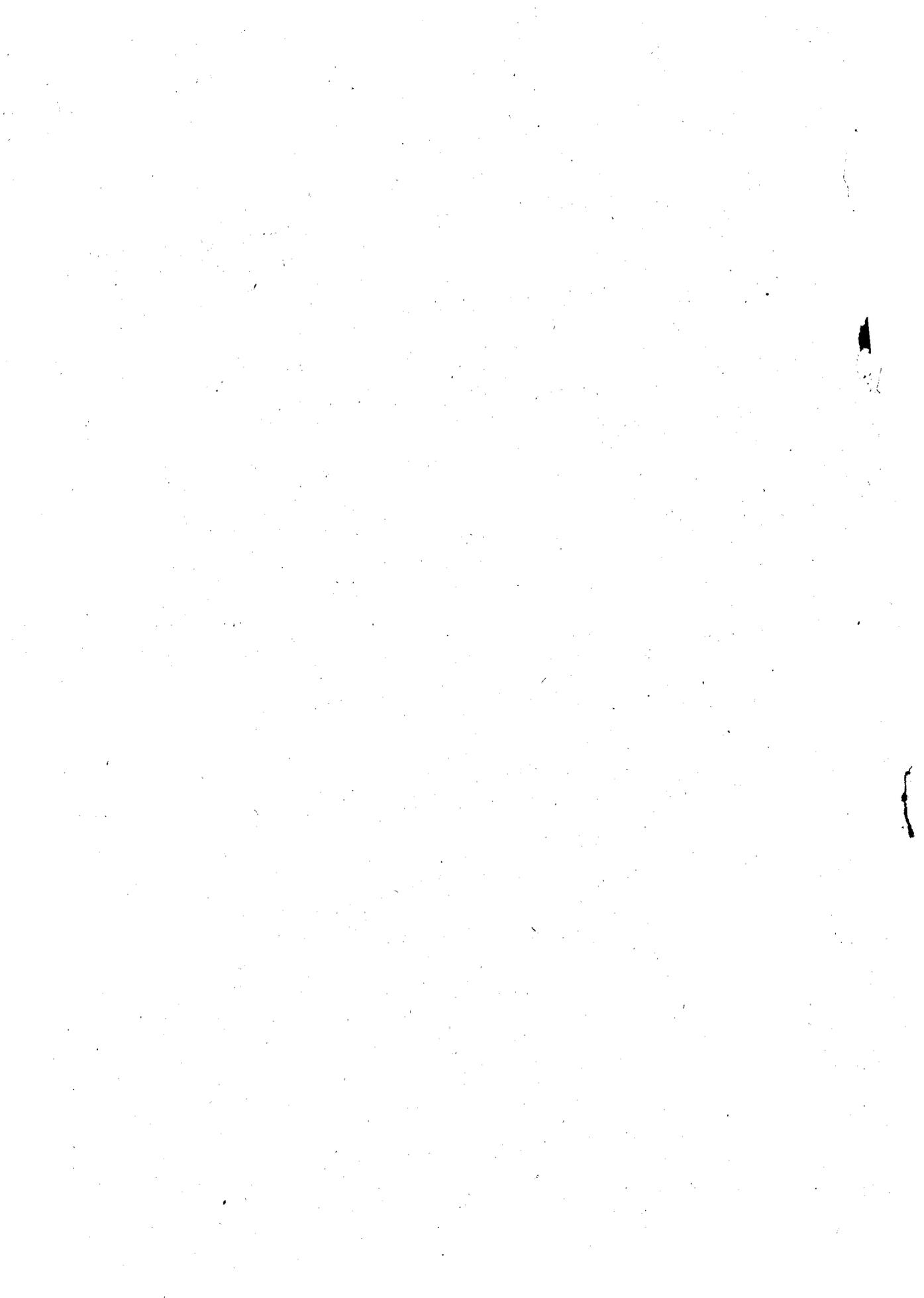
第3章 蘇聯共產主義와 그 變化過程

第4章 中國共產主義와 그 變化過程

梁 好 民 (朝鮮日報 論說委員) 金 甲 喆 (清州師範大學 教授)
金 永 俊 (江原大學校 教授) 李 汪 宰 (忠北大學校 教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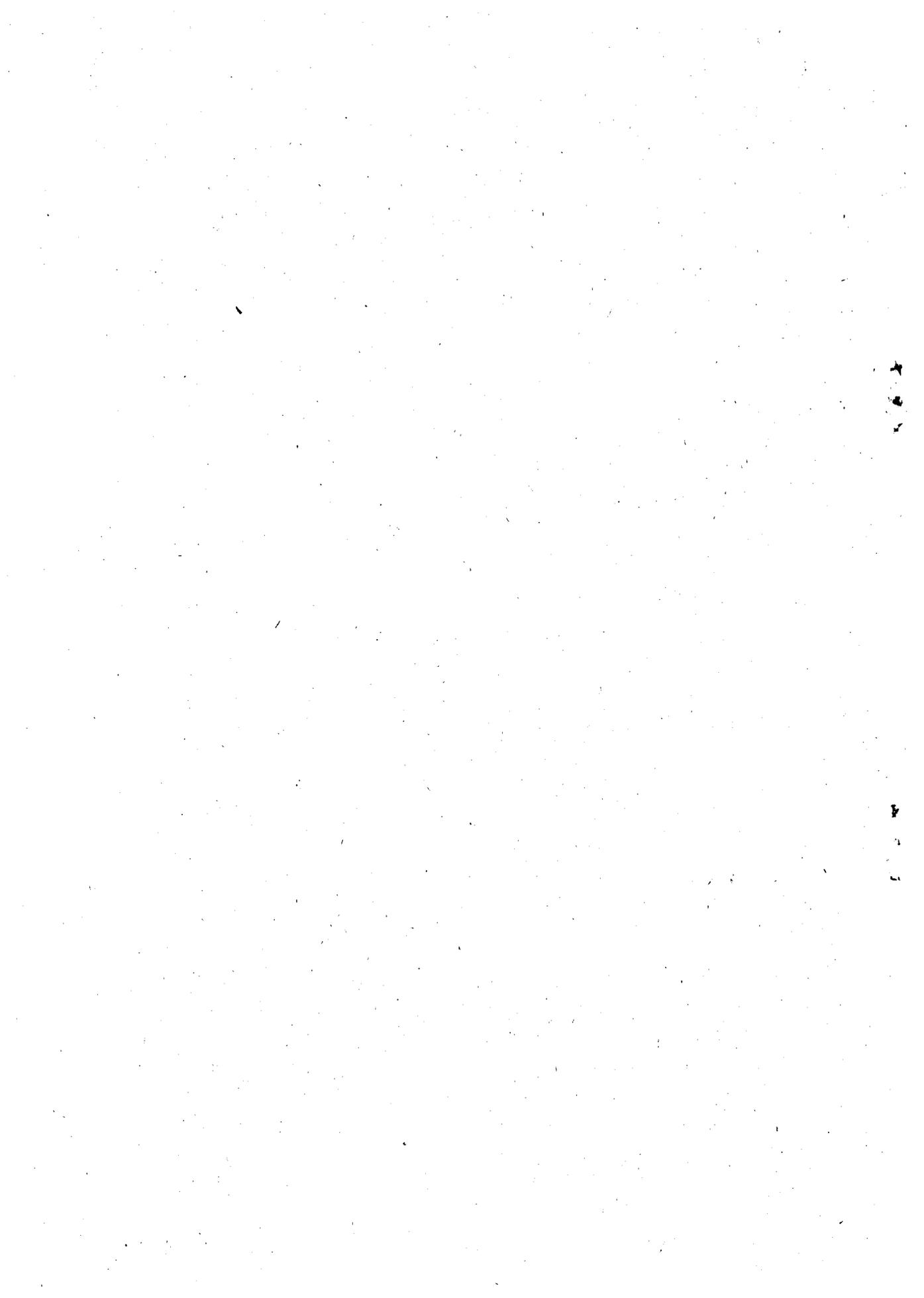
第5章 東歐共產主義의 體制變動..... 安 秉 永
(延世大學校 教授)

第6章 西歐共產主義運動의 實態..... 李 聖 根
(明知大學 教授)



目 次

序 論.....	5
第 1 章 共產主義 革命이데올로기와 實際.....	15
第 2 章 共產主義體制에서의 黨의 絶对성과 役割.....	37
第 3 章 蘇聯共產主義와 그 变化過程.....	53
第 4 章 中國共產主義와 그 变化過程.....	87
第 5 章 東欧共產主義의 體制變動.....	111
第 6 章 西欧共產主義運動의 實態.....	135
結 論.....	157



序 論

I

現代共產主義는 매우 複合的인 構造로 이루어져 있다. 本質的으로 그것은 理論, 組織 및 實際運動으로 形成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共產主義를 考察할 때 이 세가지 構成要素와 이들 相互關係를 동시에 具體的으로 分析하지 않으면, 그것은 斷片的인 見解라는 制約을 면치 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共產主義의 本質을 綜合的으로 이해하고 이를 體系的으로 考察하기 위해서는 政治이데올로기로서의 共產主義 理論, 組織으로서의 共產黨, 實際運動으로서의 戰略 戰術의 3重構造를 歷史的으로, 實證的으로 分析해야 할 것이다.

이제 共產主義의 複合的 構造를 보다 具體的으로 파헤쳐 보기로 하자.

첫째, 共產主義 理論은 ① 階級없는 共產主義 社會라는 理想鄉의 未來社會에 대한 豫言 ② 世界와 人間社會의 發展을 支配하는 諸法則을 說明하는 소위 共產主義 哲學 (辨證法的 唯物論과 史的 唯物論) ③ 共產主義社會 實現에 先行하여 成就되어야 할 中間目標 提示, 즉 社會主義建設理論 ④ 共產黨의 政權 奪取와 獨裁 政權의 維持를 위한 實踐的 方法論 等 複合的인 構造를 가지고 있다.

둘째, 共產主義의 組織은 ① 革命과 建設의 指導的 中核인 共產黨 ② 共產黨國家로 構成된 共產國家群 ③ 共產黨의 統制·調整下에 있는 社會의 各種 團體 等を 包括하고 있다.

셋째, 共產黨의 實際運動은 그 數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方法과 節次로 形成된 複合構造를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共產黨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주장한 것은 시간과 장소가 바뀌게 되면 正반대의 立場을 취하기도 한다. 歷史的 記錄은 이러한 共產黨의 戰略戰術의 多樣하고도 相互矛盾된 事例들을 豊富하게 提示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例로서는 共產黨의 宗教에 대한 相互矛盾된 態度, 1939年 스탈린과 히틀러와의 同盟, 各國에 있어서의 民族主義에 대한 호소 또는 非難 등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共產黨의 變化無雙한 戰術은 共產主義者들의 人間과 物質에 대한 重

點의 變化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마르크스는 經濟的·歷史的 決定論에 입각하여 物質(社會的 生産力)이 世界와 人間社會의 發展에 있어서 決定的 要因이라고 主張한 反面, 레닌 스탈린 毛澤東, 그리고 金日成은 <社會主義 革命과 建設>에 있어서 人間의 革命的 意志를 일차적으로 강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共產主義의 行動(政策路線 및 戰略 戰術)의 多樣性은 共產主義의 本質을 이해하는 데 적지않은 混亂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矛盾은 共產主義 革命 理論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모든 歷史的 事件들은 運命論的으로 豫定되어 있다고 하는 命題와, 共產主義 社會의 成就를 위해서는 人間이 英勇적으로 鬪爭하여야 한다고 하는 命題 사이의 矛盾을 들 수 있다.

共產主義의 本質을 綜合的, 體系的으로 分析함으로써 共產主義의 實際運動을 共產主義의 基本理論과 比較해 볼 때 양자간의 현저한 相互矛盾을 發見하고 당황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共產主義者들이 마르크스主義의 本質과 유리된 이데올로기나 宣傳口號를 조작, 동원하고 있음을 看破해야 한다.

한편 理論·組織·運動等 複合的으로 構成되어 있는 共產主義體系는 철저한 劃一主義와 全體主義의 特性을 그 屬性으로 하고 있다. 劃一主義란 오직 하나의 目的, 하나의 敎義, 하나의 權威, 그리고 하나의 方法에만 依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全體主義란 바로 그 하나의 目的에다 모든 것을 종속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共產主義의 理論과 實踐上的 矛盾, 全體主義的·劃一主義的 屬性은 어떻게 해서 出現하는가?

첫째는 共產主義란 眞空狀態에서 生成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歷史的 現象으로서 環境과 時間의 影響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둘째는 共產主義란 共產黨이 核心이 되어 展開하는 包括的인 運動이라는 點을 들 수 있다. 따라서 共產主義 運動의 中核인 共產黨의 構造와 役割을 이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II

共産主義의 複合的 構造를 이해함이 없이 그 숨겨진 部分을 看過한 채, <疎外論>, <搾取論>, <階級解放論>等 共産主義의 宣傳論理에 현혹되는 경우 흔히 共産主義를 盲信하게 되는 것이다. 逆으로 말하면, 共産主義 革命思想, 共産主義 體制維持를 위한 이데올로기, 共産黨의 地位와 役割, 그리고 共産主義의 戰略 戰術을 綜合적으로 이해한 사람 가운데서는 共産主義者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따라서, 새로운 차원의 共産主義 批判教育은 共産主義에 대한 협소한 視野와 誤解에서 과감히 脫皮하여 그 本質을 正確히 인식하는 것이 方法論의 出發點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觀點에서 共産主義運動의 實際記錄을 통하여 共産主義 革命思想, 共産黨의 特性, 그 實踐的 活動을 綜合的 體系의 分析, 把握, 批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과 같은 觀點에서 本教材는 共産主義의 複合的 構造를 綜合적으로 把握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編成하였다.

序 論

第 1章 共産主義 革命이데올로기와 實際

第 2章 共産主義體制에서의 黨의 絶對성과 役割

第 3章 蘇聯共産主義와 그 變化過程

第 4章 中国共産主義와 그 變化過程

第 5章 東歐共産主義의 體制變動

第 6章 西歐共産主義運動의 實態

結 論

第 1章과 第 2章은 共産主義 革命思想, 共産黨의 獨特한 性格, 一黨獨裁體制 維持를 위한 實踐的 戰略 戰術 等 세 가지 要素의 相關關係에 입각한 共産體制間의 比較 分析 (Cross National Analysis) 으로서 總論에 該當된다. 第 3 · 4 · 5 · 6章은 蘇聯과 中国, 그리고 東歐와 西歐의 共産主義의 特性和 그 變化過程을 調査 分析한 各論에 해당된다.

共産主義에 있어서 이데올로기 · 黨 · 實踐이 별개로 遊離해서 存在하는 것이 아니

라, 이들 세가지 要素가 相互 密接한 聯關性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다. 이것이 本教材의 主要 構圖이다.

Ⅲ

共產主義의 批判에는 두가지 側面이 있다. 하나는 積極的인 側面이며 또 하나는 消極的인 側面이다. 前者는 南北統一을 大韓民國 主導下에 이룩하며 統一, 獨立, 民主, 福祉國家를 樹立하기 위한 精神的 기초를 마련한다는 側面이고, 後者는 共產主義의 宣傳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르게 共產主義를 인식하고 批判할 수 있는 主體的 民主市民을 育成한다는 側面이다.

共產主義 虛偽宣傳의 현혹 要因 가운데 注目할 만한 內容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共產主義는 平等志向의이며 急速한 産業化를 達成하는 捷徑이라는 宣傳에 현혹되는 境遇

② 資本主義 經濟體制內에 대한 歪曲 宣傳, 즉 搾取·買辦·貧益貧 富益富·필연적 崩壞의 宣傳口號를 그대로 믿는 境遇

③ 開發途上國의 反帝·反植民主義 路線과 民族主義 感情에 편승한 共產主義 虛偽宣傳에 현혹되는 境遇

④ 어느 社會에나 있을 수 있는 少數 疎外階層의 막연한 현상타파 欲求에 편승한 共產主義 宣傳에 현혹되는 境遇 등이 그 代表的인 例이다. 이러한 것들은 共產主義 社會의 안과 밖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經驗하고, 또 疑問을 提起한 問題들이기 때문에 潛在的 呼訴力이 있다고 보여진다.

人間疎外의 克服, 搾取로부터의 解放, 새로운 生活에의 기대와 急進的이고도 철저한 變革에의 갈망등은 人類歷史가 시작된 이래 解決하기를 원했던 과제들이다. 이러한 現象은 현재, 生産手段의 私的 所有를 廢止한 所謂 <社會主義 社會>에서 오히려 더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한편, 共產主義는 人間不平等의 根源을 經濟的 要因이라는 單一原因으로 說明하고 있으나, 사실상 不平等의 問題는 經濟的 原因 以外の 여러 複合的 原因에 의해서

만 그 說明이 可能하다.

人間의 不平等問題는 共產主義體制나 非共產主義體制 할 것 없이 共通的으로 안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解決이 要請되는 人類共同의 問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共產主義의 革命이데올로기는 人間疎外, 搾取, 不平等 現象이 마치 資本主義社會만이 가지는 屬性인 것처럼 歪曲하고, 資本主義制度를 打倒할 때에 비로소 소멸될 수 있다고 煽動한다.

이러한 意味에서 共產主義의 革命이데올로기는 非共產主義世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既存秩序를 破壞하도록 煽動하는, 말하자면 共產黨의 政權掌握을 合理化하는 黨派的 主張이지 결코 科學的 理論도, 客觀的 理論도 아니다. 共產主義의 革命이데올로기는 하나의 숨은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偽裝이며 虛偽意識으로 되고 있다.

지금까지 간단히 言及한 內容들이 序論의 骨格을 이루는 것들이다.

이러한 視角에서 第1章은 共產主義의 革命이데올로기의 本質과 共產主義 奪權過程, 共產革命의 發生要因을 經驗的 分析에 입각하여 說明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이 革命이데올로기와 共產黨의 實際的 奪權方法間的 乖離 및 矛盾을 導出함으로써, 그 것들이 우리에게 現實적으로 示唆하는 意味를 究明코자 하였다.

이제 虛偽意識으로서의 共產主義 革命이데올로기를 보다 뚜렷이 부각시키기 위하여 마르크스의 革命이데올로기가 레닌 및 그 後繼者들의 革命이데올로기로 變形되는 過程에 관하여 간략히 考察키로 한다.

우선 마르크스는 한 나라에서의 <社會革命>은 언제 어디에서나 發生하는 것이 아니라 몇가지 前提條件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前提條件이란, ① 資本主義가 高度로 發展하여 生産力과 生産關係 사이의 矛盾이 尖銳化되어 더 이상 存續할 수 없게 될 때 ② 資本主義가 高度로 發展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트> 즉 <産業賃金勞動者階級>이 그 나라의 全人口의 多數를 占有할 때를 뜻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높은 水準의 經濟的 技術的 發展을 단순히 <社會革命>을 위한 必要條件으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革命後의 階級없는 社會의 實現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간주했다. 그들이 生産의 高度發展을 實際的 前提로서 絶대로 필요한 것이라고 단정한 이유는 生産力의 高度發展 없이 共産党이 執權하게 되면 그 體制는 <社會主義 社會>가 되지 못하고, 오직 貧困만이 一般化되는 社會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豫見했기 때문이다.

經濟的 前提條件(生産力의 高度한 發達)과 社會的 前提條件(勞動階級이 全體人口의 多數를 차지)을 고려함이 없이 革命을 조급하게 實踐하려는 기도는 새로운 形態의 獨裁政治를 誕生시키게 될 수 밖에 없다고 英겔스는 생각하였다.

따라서 革命을 <少數革命家集團의 奇襲>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단정하였다. 이러한 기습적 革命에 있어서는 「革命의 成功은 틀림없이 全體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가 아니라 暴力을 主動하여 革命을 成功시킨 少數者의 獨裁, 또는 一人獨裁體制를 自動的으로 수반하게 된다」고 豫見하였다.

마르크스와 英겔스가 豫見한 <社會革命>의 모델은 프롤레타리아트의 成長과 資本主義가 發達하는 가운데 수반되는 矛盾과 病弊로서 不可避하게 생겨나는 革命이었다. 다시 말하면, 資本主義 그 自體가 <社會主義 革命>의 씨를 품고 있기 때문에 資本主義의 發達없이 는 <社會主義 革命>도 成功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歷史는 마르크스의 <社會革命>論과는 정반대로 高度資本主義國家에서가 아니라 後進國에서 共產主義革命이 試圖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르크스의 豫言과는 달리, 歷史的으로 資本主義가 高度로 發展하면 프롤레타리아革命에 의하여 <社會主義 社會>가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民主福祉社會에로의 發展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資本主義的 發展을 제대로 거친 社會에서는 앞으로도 共產主義革命의 可能性은 없다는 것을 말한다.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革命>을 豫見함에 있어서 誤謬를 犯한 이유는 資本主義가 發展하면 發展할수록 그 內在的 矛盾이 격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된다는 사실, 그리고 社會的 不安은 오히려 資本主義가 미숙한 단계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世紀初까지만 해도 레닌과 그의 극소수 추종자들로 구성되었던 革命左派(볼셰비키)들은 러시아에서 <社會主義 革命>이 達成되려면 資本主義가 發展할 때까지

지 수십년을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論理때문에 갈등과 초조감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결국 레닌은 共產主義者들의 奪權을 위한 理論的 武器로서 <革命情勢>理論을 만들어 내었다. 마르크스主義가 마르크스·레닌主義로 變改되면서 마르크스의 革命理論은 <社會主義> 成就를 위해서는 資本主義의 發展과는 關係없이 既存 國家體制를 意圖的으로 打倒해야 한다는 政治權力的 顛覆理論으로 대치되었다.

요컨대, 共產主義의 革命理論은 <先革命·後社會主義建設>이라는 圖式으로 定立되었다. 결국, 마르크스의 <社會革命>論은 共產黨의 奪權戰略으로 變質하게 되고 만 것이다. 資本主義의 崩壞→社會主義 社會의 출현→共產主義 社會의 到來라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歷史發展“法則”은 現實的 妥當性を 상실하고 만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共產主義者들의 <人間解放>, <階級없는 社會>, <勞働者의 樂園> 등의 口號와 이것을 說明하는 革命이데올로기는 非共產主義世界에 사는 사람들을 煽動하기 위한 한낱 虛偽意識이며, 결코 實體가 아님을 確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共產主義의 革命이데올로기는 國際적으로나 國內적으로 힘의 均衡을 共產主義者들에게 有利하게 變化시키려는, 즉 <革命情勢> (北韓의 境遇에는 決定的 時機)를 조성키 위한 政治的·心理的 道具라는 것을 確認케 된다.

지금까지 서술한 第1章의 目的이 共產黨이 革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宣傳하는 革命이데올로기의 本質과 機能 및 共產黨의 役割을 分析하는 데 있었다면, 第2章은 共產主義體制에서의 共產黨의 實體를 究明하는 데 焦點을 맞추고 執權以後 一黨體制 確立과 維持에 있어서 黨의 絶對的 地位와 實際的 役割, 그리고 一黨體制를 合理化하는 黨의 統治이데올로기를 比較 分析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마르크스의 <大衆的> 黨 理論이 레닌의 <前衛黨> 理論으로 轉換하게 되는 이유와 論理에 대해서 규명하고 社會와 國家에 대한 黨의 指導的 役割을 理論·實際의 兩面에서 다루고자 했다. 共產黨의 政權掌握 이후 理論上의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가 결국 一黨獨裁→寡頭獨裁→一人獨裁로 轉落하고, 그 必然的 歸結로서 이것이 社會의 人的·物的 資源에 대한 全體主義的 統制를 자행하고 恐怖政治에로 轉換하는 原因을 實證的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勞農政權>, 搾取와 抑壓이 없는 <社會主義社會의 建設>이라고 하는 名分에서 실시되는 一黨獨裁體制的 變遷過程, 즉 政治的으로는 人民大衆의 自發的인 支持의 缺如에서 유래하는 正統性的 危機, 經濟的으로는 勞力動員의 強行과 만성적 인 生活苦, 社會的으로는 <새로운 支配階級>의 誕生 等 寡頭獨裁 政治의 증상을 보일 수 밖에 없는 社會로 轉落하는 過程과 그 實體를 分析하는데 重點을 두었다.

IV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各論 部分에 해당되는 第3·4章은 蘇聯共產主義와 中國 共產主義를, 第5,6章은 東歐共產主義의 體制變動과 西歐共產主義運動의 實態를 다룸으로써 第1·2章의 總論의 分析 틀이 具體的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考察하였다.

여기에서도 各論 部分의 分析的 構圖는 革命이데올로기·共産黨·實際運動等 세 가지 構成要素間의 相關關係를 규명함으로써 各國의 體制的 特徵을 導出하려 시도 하였다.

蘇聯의 黨理論, <一國社會主義>論, 社會主義建設方式, 政治的 統制手段等은 第2次大戰後 社會主義의 기준으로서 東歐 및 아시아 共產主義國家들의 政策路線에 直接的이며 絶對的인 影響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의 死亡前부터 毛澤東思想, 티토主義, 혹은 金日成<主體思想>等으로 表現되는 共產主義의 各樣한 展開過程이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新生共産黨國家들은 마르크스主義의 러시아化的 產物인 마르크스·레닌主義를 統治이데올로기로 採擇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50年代 後半期 이후에는 各國이 特有的 類型의 共產主義를 展開시켰다는 점이다.

同一한 共產主義이데올로기를 採擇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共產主義 體制的 多樣性이 노정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다음 네가지를 主要 要因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 ① 經濟的 發展水準의 差異
- ② 歷史的·文化的 傳統의 差異 (특히 政治文化的 差異)
- ③ 共産黨의 奪權方式의 差異 (自力的 共產主義 革命, 아니면 外部로부터 輸入한 共

産主義革命)

④ 地理的·環境的 差異等を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考慮하면서 蘇聯과 中國共產主義 政權과 그 變化過程을 比較함으로써 각 體制가 지니고 있는 特徵을 導出하려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分析對象으로 하는 共產主義體制 사이에는 적지않은 共通點도 存在한다는 事實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테면, ① 全産業의 国有化 ② 農業의 集團化 ③ 中央計劃經濟 ④ 社會의 人的·物的 資源의 總動員 ⑤ 人民大衆의 忠誠을 獲得하기 위한 철저한 政治教育 ⑥ 重工業과 軍需工業에 대한 集中的 投資와 共產主義 勢力의 膨脹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點은 共產國家間의 差異點과 類似點의 밑 바탕에는 반드시 個別國家의 利己主義가 깔려있다는 점으로서 共產主義의 多樣化와 分裂過程은 바로 이러한 觀點에서 理解되어야 할 것이다.

第3章 蘇聯共產主義에 있어서는, ① 레닌의 黨 및 革命理論, 世界革命基地로서의 蘇聯의 조속한 工業化 路線 ② 스탈린의 <一國社會主義論>, 全體主義的 恐怖政治의 成長過程 ③ 흐루시초프와 그 以後의 政策上의 變化 ④ 蘇聯內 反體制 運動과 東歐의 修正主義(脫蘇 自主 및 民主化運動)를 重點的으로 分析하고, 끝으로 오늘날 蘇聯社會가 안고있는 問題點, 即 人民大衆의 消費生活問題와 政治的 正統性 問題를 다루었다.

第4章 中國共產主義에 있어서는, ① 中國共產化의 過程과 特徵 ② 毛澤東主義의 特性, 即 精神刺戟에 의한 社會主義 建設 추진 ③ 中國內의 權力鬭爭과 그 의미 ④ 毛澤東 死後의 現代化路線 및 그 고민을 中心으로 分析하였다.

第5章 東歐共產主義에 있어서는, ① 東歐諸國의 改革主義形成背景과 展開過程 ② 東歐體制變化의 諸斷面과 關聯하여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變化와 知性文化의 분출, 對蘇自主路線의 追求等を, 그리고

第6章 西歐共產主義 運動의 實態에서는, ① 유럽共產主義 運動의 現況과 그 特徵 ② 西歐諸國의 共產黨과 그 戰略 ③ 유럽地域의 共產黨들과 蘇聯과의 關係등을 다

루었다.

요컨대, 共產主義는 理論, 組織, 實際와 戰略 戰術等 複合的인 構造를 가지고 있으며, 劃一主義와 全體主義를 그 特性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構造와 特性은 결국 共產黨의 屬性이자 世界觀이다. 동시에 共產主義란 이러한 屬性과 特性을 지닌 共產黨이 核心이 되어 展開하는 總體的인 運動이라 할 수 있다.

共產主義者들은 그들의 革命이데올로기, 奪權 및 共產獨裁體制 維持, 勢力膨脹등에 기여하는 理論과 實踐은 곧 眞理요 正義이며, 共產主義와 共產黨의 路線에 利益이 되지 못하는 견해나 實踐은 虛偽·不義·偏向·機會主義등으로 배척한다는 점이다.

바로 여기에 共產主義의 挑戰的 性格과 威脅的 要因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第1章 共產主義 革命이데올로기와 實際

目 次

第1節 共產主義 革命이데올로기의 本質	17
1. 共產主義 革命이데올로기의 本質과 役割	
2. 마르크스의 經濟決定論과 革命	
3. 레닌의 政治意志決定論과 革命	
第2節 共產主義 革命類型과 奪權 過程	26
1. 러시아 볼셰비키 革命的 類型	
2. 東歐 共產化의 方法	
3. 中國共產主義 革命的 類型	
第3節 共產主義 革命的 要因	34
1. 對內的 要因	
2. 對外的 要因	



第 1 節 共産主義 革命이데올로기의 本質

1. 共産主義 革命이데올로기의 本質과 役割

全體主義는 共産主義와 파시즘으로 分類되는 것이 通例다. 共産主義와 파시즘은 本質적으로 性格上 判異하다. 共産主義는 基本的인 價値를 階級에 두고 있는데 비하여, 파시즘은 種族, 民族 또는 國家에다 基本的인 價値를 두고 있다. 共産主義는 < 프롤레타리아 革命 >에 의하여 国内·外的으로 資本主義 社會를 무너뜨리고 階級없는 社會를 實現할 것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國際主義나 普遍主義의 性格을 띠는 것처럼 理解된다. 反面, 파시즘은 特定한 民族에 의한 世界支配를 固執함으로써 排他的 民族至上主義 또는 自己 民族의 人種的 優越主義의 性格을 띠기 때문에 民族國家의 테두리를 벗어나 國際的 次元으로 들어 가면 그 呼訴力을 喪失하고 만다. 이것이 같은 全體主義的 性格을 띠면서도 共産主義에 대한 파시즘의 相對的인 脆弱點이다. 즉, 파시즘에 대한 共産主義의 相對的인 強點은 普遍主義에 呼訴함으로써 나타나게 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政治·法律·道德·藝術·宗教 등으로 構成되는 理念體系, 즉 이데올로기는 特定階級이 그 支配를 合理化하기 위한 意識 形態라고 主張하는 바, 이 意識形態는 物質的 生産關係, 즉 經濟構造에 의하여 規制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意識形態, 곧 上部構造는 生産關係로 이루어진 下部構造(土臺)에 의하여 規定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上部構造인 이데올로기는 當時의 經濟的 支配階級の 統治를 合理化하는 것이므로 결국 党派性을 띠기 마련인데, 共産主義 이데올로기는 人民의 大多數인 프롤레타리아트의 利益을 대변하므로 普遍性을 지닌다고 强辯한다.

그렇다면, 共産主義에 있어서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어떠한 役割을 하는가?

共産主義 革命이데올로기는 곧 共産主義者들의 世界觀이다. 그러므로 共産主義者들은 現實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党派的 이데올로기의 안경을 통하여 現實을 들여다 본다. 한편, 共産主義者들은 자기의 世界觀을 固守하되 實踐運動에 있어서는 現實에 대하여 伸縮性있게 對應하려고 試圖한다. 그래서 共産主義 이

데올로기는 狀況의 變化에 따라 隨時로 마키아벨리즘의인 政治戰術을 驅使함으로써 共產主義自體의 弱點을 補完하며 變化하는 現實에 맞추어 나가려고 한다. 따라서, 共產主義者들의 戰術的 行動의 變化를 基本的인 世界觀의 拋棄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共產主義 이데올로기는 그들의 權力과 政策에 너무나 密着되어 있으므로 權力鬭爭에서는 반드시 思想鬭爭이 隨伴되며, 思想鬭爭에서 敗者는 바로 잘못된 思想때문에 敗北할 수 밖에 없으며 反面, 勝者는 正確한 이데올로기를 固守했기 때문에 勝利한 것으로 主張한다. 共產黨國家에서 肅清은 이데올로기의 純潔을 守護하거나 또는 自派의 統治이데올로기를 正當化하기 위한-方法으로 使用된다.

이와 같이 共產黨 國家에 있어서는 思想論爭·權力鬭爭·政策論爭의 3大要素는 不可分離의 脈絡에서 一體化되어 왔다. 共產主義 이데올로기는 共產主義者들에게 지침과 世界觀을 賦與하고, 豫言의 根據를 提示하며, 또 오늘의 壓迫과 困難의 甘受가 未來에는 반드시 補償된다는 信念을 안겨준다. 同時에 共產主義 이데올로기는 追從者들로 하여금 現實을 있는 그대로 觀察하지 못하게 思考를 拘束하는 作用도 하는 것이다.

2. 마르크스의 經濟決定論과 革命

「하나의 幽靈이 구라파를 배회하고 있다. 共產主義라는 유령이! 지금까지의 모든 歷史는 階級鬭爭의 歷史이다. 프롤레타리아트가 鬭爭에서 잃을 것은 쇠사슬뿐이요, 얻을 것은 世界이다. 全世界의 勞動者들이여, 단결하라!」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共產黨宣言>이 1848년에 發表되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中心思想은 階級鬭爭論에 있다. 이들의 모든 著作은 階級鬭爭論을 合理化하기 위한 試圖에 不過하다. <獨逸의 이데올로기>, <資本論> 등의 主要著述도 이를 合理化시키는 內容들이다. 그의 <資本論> (1867) 역시 그 以前에 發表한 政治理論을 經濟理論으로 合理化하기 위한 意圖에서 쓴 것이었다.

마르크스의 革命思想의 뿌리는 <經濟·哲學手稿> (1844)에서 人間의 本質을 규명하는 가운데에서 發見된다.

마르크스의 生前時에 출판되지 못하고 제대로 다듬지 못한 채 내버려졌던 이 原稿에서는 勞動人間의 像이 그려져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把握한 人間은 勞動하는 人間이요, 다 같이 勞動함으로써 人間의 共同生活을 創造하는 社会的 存在가 되며, 이 勞動의 過程에서 자기를 發展·實現하고 人間으로서의 社会的 本質을 獲得한다고 한다. 따라서 勞動은 目的에 대한 手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自體가 하나의 目的이요, 人格의 表現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勞動은 本質的으로는 苦痛이 아니라 喜悅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私有財産制(資本主義社會)에서는, 「勞動者가 生産한 物件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손에 돌아오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된다」고 그는 指摘하고 있다. 이것을 마르크스는 <勞動生産의 疎外>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러한 社會에서는 人間은 商品을 生産할 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의 勞動力이 하나의 商品(賃金勞動)이 되며, 生産手段의 소유를 빼앗긴 人間은 겨우 자기의 勞動力을 팔아 肉體的 生命을 維持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勞動者는 그가 많은 富를 生産하면 할수록, 그의 生産의 量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더 가난해진다. 그가 보다 많은 商品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는 점점 값싼 商品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勞動生産의 疎外>라는 현상이 생기면, 勞動者는 生産을 自發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資本家の 命令下에 다만 賃金を 받기 위하여 하는 것이며, 여기에 勞動은 強制勞動이 되고, 創造的 기쁨이 아니라 <苦役>이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生産手段이 私有化된 社會에서는 본래 人間의 創造的·肉體的·精神的 에너지를 發展시켜야 할 勞動이 도리어 그의 肉體를 괴롭히고 精神을 황폐케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私有財産制度에서는 人間은 自己의 創造的 能力으로부터 疎外되고, 人間이 生産한 物件인 生産手段이 도리어 人間自身을 支配하는 현상을 마르크스는 <人間의 自己疎外>라고 불렀다.

이렇게 볼 때, 프롤레타리아트란 마르크스에 있어서는 資本主義制度下에서 자기 자신의 勞動生産物로부터 疎外되어, 人間性を 貧窮 속에서 剝奪당하고 해매는 人間群을 말하는 것이며, 「私有財産으로부터, 그리고 예속으로부터의 社會의 解放은 곧 勞動者의 解放이라는 政治的 形態로 表現된다」고 마르크스는 <革命的 哲學>을 제시한다. 말하자면, 私有財産의 撤廢가 마르크스에 있어서는 곧 <人間性的 革命>

이며, 共產主義는 바로 人間性的 實現이 되는 것이라고 主張한다. 여기서 그는 人間疎外의 概念에다 政治煽動的인 概念으로서 經濟的·階級的·共產主義的 內容을 意識적으로 부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마르크스의 觀點은 극히 <空想的인 휴머니즘>이요 誤謬라는 것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즉, 젊은 마르크스가 19世紀 資本主義의 병폐를 예리하게 찌른 點에서는 그의 눈이 빛나고 있지만, 그는 人間疎外의 原因이 오직 私有財産制度에만 있는 것이라고 편파적으로 보았고, 따라서 私有財産制만 철폐되면 人間은 즉각적으로 自由를 회복하고 歷史에서 惡은 모두 消滅되는 것 같은 유토피아적 幻想에 빠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思想은 我田引水格으로 私有財産이니 搾取니 하는 오직 하나의 협소한 經濟的 概念에만 사로 잡혀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마르크스의 이름으로 展開되고 있는, 私有財産이 철폐된 共産党國家에서 人間の 自由와 휴머니즘이 어떠한 運命에 놓여 있는가를 直視할 때 우리는 마르크스의 사색의 一面性과 그 맹점을 간파할 수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Engels와 함께 1846년에 <獨逸의 이데올로기>라는 眞 論文을 썼다. 勿論 이것은 그 後 많은 時間이 흐른 뒤인 1932년에야 全文이 出版되었다. 마르크스 思想의 分歧를 이루는 이 著述을 통하여 마르크스는 그의 관심을 人間에서 부터 歷史로 轉換, 歷史를 어떤 推進力에 의하여 일어나는 社會의 前進運動이라고 보았다. 이 前進運動은 歷史的 法則에 따라 進行함으로써 人間精神의 發展이 아닌, 하나의 所有權 및 生産形態가 다른 所有權 및 形態로 轉換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史的 唯物論의 核心이다. 同時에 그는 經濟發展만으로써는 한 形態의 社會로부터 다른 形態의 社會에로 轉換되는 變化를 가져올 수 없으며, 이러한 轉換을 위하여서는 革命이 必要한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이와 같이 經濟發展과 革命이라는 두개의 서로 異質的인 概念을 결합한 것이 마르크스의 階級鬭爭論이다. 그리하여 마르크스는 革命은 經濟的 技術의 發展에 따르는 歷史的 進化的 變化와 支配者와 被支配者 사이의 階級鬭爭이라는 두가지의 계기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는 進化和 革命이라는 本質적으로 調和될 수 없는 두개의 異質的인 概念을 結

합하는 矛盾을 범했다. 왜냐하면, 革命이란 進化的 逆概念이며, 反面, 進化는 自然發生에 관한 概念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共産党宣言>은 階級鬭爭의 世界觀을 가장 露骨의로 나타낸 文獻이다.

마르크스의 世界觀의 核心은 變革에의 信念, 즉 <프롤레타리아革命>에 대한 信念이며 이 革命은 歷史的 必然에 의하여 不可避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단결된 프롤레타리아트는 資本家階級과 利害關係上 正面으로 對立하여 經濟的 鬭爭을 전개하게 되고, 이것은 필경은 政治的 鬭爭으로 轉化되며 중국에는 暴力革命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資本主義社會는 마지막 私有財產階級の 社會이며, 프롤레타리아革命은 프롤레타리아트의 勝利에 의하여 歷史上 마지막 革命이 된다」고 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政權을 掌握하여 一定한 過渡期를 거치면 階級이 없어지며, 따라서 國家도, 政府도, 어떤 形態의 政權도 없는 <共產主義社會>가 도래할 것으로 展望했다.

階級鬭爭의 法則을 核心으로 하는 그의 唯物史觀은 社會가 지나는 統一性·平和性·共同體性의 側面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이 階級鬭爭의 概念으로만 說明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모든 人類의 歷史는 階級鬭爭의 歷史」라는 極端論은 18~19世紀의 歐羅巴 歷史의 한 단면을 偏見으로 보고 이를 人類의 全歷史에 適用하려고 한 誤謬의 所産일 따름이다.

그는 資本主義로부터 完全한 共產主義으로 移行하는 過渡期의 政權이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가 될 것이라고 豫言하였지만, 오늘날 現實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獨裁>의 過渡期의 性格은 一黨獨裁國家의 恒久化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蘇聯을 위시한 今日의 共産黨國家의 實情이 이를 應變적으로 立證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經濟學 批判>에서, 歷史의 發展法則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는 生産關係의 발달을 기준으로 하여 人類社會의 歷史發展을, ① 아시아의 社會 ② 古代奴隸社會 ③ 中世封建社會 ④ 近代資本主義社會의 4段階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資本主義社會로부터 共產主義社會에로의 轉換은 生産力과 生産關係의 矛盾에서 나타나는 <社會革命>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러한 連續的인 變革은 거의 일정한

歴史的 時間表와 같이 절대적으로 到來한다고 인식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마르크스는 共產主義社會 다음에 어떤 形態의 社會가 올 것이냐에 관하여서는 일체 言及이 없다. 다만 그는 共產主義社會의 出現과 더불어, 「人間社會의 前史는 종말을 告한다」고 말한 데 그쳤다.

<資本論>의 著述을 前後하여 나온 마르크스의 革命理論들, 예컨대, 1850 年の <프랑스의 階級鬪爭>, 1871 年の <프랑스 內亂>, 1875 年の <고타 綱領 批判>, 그리고 英겔스가 1878 年에 쓴 <反듀링論>의 內容들을 綜合해 보면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老熟하면서 마르크스는, ① 産業賃金 勞動者는 아직 少数이며 ② 人民의 大多數는 農民이요 ③ 都市民의 大多數는 革命的 行動을 支持하지만 곧 秩序維持를 希求할 것이라는 인식에 到達했다. 프롤레타리아트는 劣勢이므로 農民 및 小市民과 聯合勢力을 形成하여 그 勢力을 擴大·強化하고 組織化함으로써 大衆으로 하여금 革命的인 行動을 準備시켜야 한다고 主張하기에 이르렀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트의 貧困과 不滿이 人내할 수 없는 極限의인 狀態에 到達했을 때 革命은 결국 自然發生的으로 爆發한다는 初期의 革命臨迫論으로부터 後期에는 革命을 위하여서는 長期間동안의 忍耐와 賢明한 戰略的 準備가 必要하다는, 다시 말해서, 恒久的인 戰略鬪爭活動으로서의 革命待期論으로 事實상 變轉했던 것이다.

마르크스가 <資本論>에서 主張한 資本主義의 運動<法則>은 便宜上, ① 利潤減少의 法則 ② 資本集中의 法則 ③ 産業危機 增大法則 ④ 産業豫備軍의 增加法則 ⑤ 貧困增大의 法則으로 要約할 수 있다. 이들 法則때문에 企業家의 數가 줄어드는 반면, 産業勞動者의 數는 增加하는 데다 生活條件의 惡化로 必然적으로 革命을 일으키게 되며, 따라서 資本主義는 불가피하게 終末을 告하게 된다고 豫言했다.

그런데, 첫째로 <資本論>에서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트의 使命을 再確認한 以來로 百餘年이 지나도록 勞動者는 마르크스가 부여한 革命的 임무따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위에 프롤레타리아트의 極限의인 貧困化도 現實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 勞動者들은 그들의 指導者로 自處하는, 그리고 大衆으로부터 遊離된 마르크스主義知識層과는 달리 <제로>가 되기 위하여 革命에 參加하지 않았다.

勞働者의 權益鬭爭目標은 <제로>가 되는 데 있지 않다. 그보다는 오히려 많은 것을 얻는 데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工業化以前 또는 初期 工業化의 段階에 있는 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革命을 口實로 共產主義者들의 奪權試圖는 있었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自身の 運動<法則>을 適用하려고 했던 先進資本主義工業國에서는 그런 革命이 일어나기는 커녕, 勞働者는 平和的 改革의 길을 걸어 民主體制內의 勢力으로 吸收 調和되고 있다. 마르크스가 分析한 당시의 資本主義社會는 崩壞하기는 커녕 發展해 왔다. 이들 國家에서는 蒸氣에 代身하여 電氣가 登場하는 등 여러차례의 技術革命을 거쳐 生動力있는 開放社會로 發展될지언정 生産力發展(예컨대 技術革新)에 눌리어 崩壞된 예는 이 地球上 그 어디에도 없다.

또한 마르크스가 豫想한 兩極的 階級 對立과 分裂은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中間階級은 프롤레타리아트化되어 消滅할 運命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豫言과는 달리 오히려 그 數는 擴大되어 왔고 勞働者들의 性格도 大幅的으로 變化하였다. 高度産業社會에서는 서비스業 從事者가 <産業勞働者>의 數를 上廻하고 <産業勞働者>의 數가 相對的으로 縮小되었다.

國家 本質論에 대한 마르크스의 分析도 妥當치 않았다. 資本主義國家는 少數資本家階級의 業務를 擔當하는 <執行委員會> 以上の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르크스의 見解와는 달리, 國家의 超階級的 機能은 擴大되고 있으며 民主化되고 있는 것이 先進工業國家의 傾向이다.

以上으로서 우리는 마르크스와 英겔스의 프롤레타리아革命論의 概念을 概觀했다.

그는 革命의 自然發生論과 人爲的 革命論의 兩論사이를 왔다갔다 하였지만 마르크스의 革命論은 <資本論>에서 보듯이 自然發生論이 支配的이라 할 것이다. 마르크스는 歷史에 있어서의 暴力의 役割을 認定하였으나, 理論上 그는 낡은 社會를 終熄시키는 것은 暴力 그 自體라기보다는 그 社會안에 內在하고 있는 矛盾이 核心이라고 보았다.

이로써 그에 있어서는 暴力의 歷史的 役割은 副次的인 것이었다.

理論上 革命의 歷史的 必然性を 前提로 하여 暴力自體의 役割을 副次的인 것으로

로 본 마르크스의 立場은 레닌을 비롯한 볼셰비키派에 의하여 實踐的인 觀點에서 修正되었다. 革命에 대한 마르크스의 基本思想이 經濟決定論을 土臺로 하는 革命의 自然發生論이라고 한다면, 레닌의 革命論은 後述하는 바와 같이 人間의 政治意志 決定論을 土臺로 하는 人爲的 革命論이라고 할 수 있다.

3. 레닌의 政治意志決定論과 革命

레닌主義는 마르크스主義의 實踐理論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마르크스의 革命的 世界觀은 레닌의 現實的인 實踐的 革命戰略과 結合되어 있다. 바로 이런 意味에서 오늘날 現代 共產主義를 마르크스·레닌主義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다만 마르크스는 經濟決定論으로서 「下部構造가 上部構造를 규정, 歷史發展의 必然的 歸結로 共產主義 社會가 到來한다」고 봤지만, 共產黨이 <人爲的>으로 革命情勢를 造成 할 수 있다는 레닌의 政治意志 決定論은 人間意志를 중시했던 것이다.

理論家의 立場이 앞섰던 마르크스는 모든 政治現象을 經濟的 側面에 歸屬시킴으로써 마르크스主義는 實踐的인 政治理論, 즉 組織과 制度의 概念을 缺如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過渡期的인 프롤레타리아트獨裁를 短期的으로 豫測한데 비해 레닌은 現實政治的인 觀點에서 長期的인 프롤레타리아트獨裁國家의 概念으로 把握했다. 그리고 레닌은 一般的인 마르크스主義의 教義를 實踐的인 立場, 다시말해서 後進國 러시아의 社會主義 革命을 위한 戰略 戰術的인 要求와 러시아 <나로드니키>(民衆主義者)의 革命的 傳統과를 結合시켰다. 이것은 <마르크스主義의 러시아化> 또는 <東方化>를 意味한다.

레닌主義는 마르크스主義를 陰謀와 革命의 手段으로서 再構成, 展開한 것이다. 그것은 具體的으로는, ① 職業革命家論 ② 人爲的 革命論 ③ 帝國主義論 ④ 戰略 戰術論으로 構成된다.

마르크스의 革命論의 中心은 <프롤레타리아革命>인 바, 經濟的 矛盾에 의한 革命의 自然發生的 歸結을 前提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레닌은 이것을 後進國 러시아에 適用할 수 없었기 때문에 帝國主義論으로 補強하였다. 레닌에 依하면, 革命은

오히려 資本主義 國家들의 <帝國主義化>에 따른 植民地爭奪戰의 不可避性이라는 政治的 矛盾에 더 期待를 걸어야 하며, 프롤레타리아트를 指導하는 前衛黨組織이 없으면 결코 革命은 저절로 發生하는 것이 아니라는 點에 着眼했다. 革命의 成功은 資本主義 內部 矛盾에 의한 自然崩壞를 기다리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革命鬪爭의 政治的 意志와 陰謀, 軍隊組織을 통하여 戰鬪的인 攻擊을 가하는데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레닌의 帝國主義論, 黨理論等 主要理論은 다음에서 자세히 說明된다.)

한편 마르크스와 레닌은 資本主義 體制가 沒落하는 根據로 ① 生産의 無政府性 ② 資本集中(獨占)과 利潤低下의 傾向 ③ 浪費 ④ 失業者의 增加 ⑤ 貧困의 極限 ⑥ 週期的 恐慌(마르크스) 그리고 ⑦ 資本主義의 不均衡 發展 法則과 <帝國主義 戰爭>(레닌) 등을 提示하였으나 마르크스·레닌의 主張과는 달리 資本主義는 자기 修正能力을 發揮하여 繼續 發展하고 있으며, 生産에 있어서 融通性있는 計劃性을 導入하고, 經營의 合理化에 의하여 浪費를 줄이고, 雇傭增大政策을 통하여 失業者를 구제하며, 社會福祉政策의 次元에서 大衆貧困의 減少를 圖謀하였다. 恐慌을 슬기로운 政策으로 克服하고 生産을 繼續 擴大하여 나감으로써 大衆生活의 수준을 더욱 높이고 있다. 오늘날 一部 共產主義者들이 레닌의 <帝國主義論>을 <從屬理論>으로 再解釋하지만 植民地體制가 崩壞一路에 있는 同時에 國際(舊植民地와 植民國間)間的 協調·交流가 活潑해져 가고 있다. 오늘날에 있어 <帝國主義>는 資本主義國家間的 現象이 아니라 오히려 中·蘇紛爭에서 露出된 바와 같이 <社會帝國主義>가 등장하면서 共產圈內에서 問題視되고 있다. 더욱기 레닌이 <帝國主義論>에서 金融資本이 資本主義國家의 모든 政治를 支配한다는 主張은 政治의 複雜한 實態를 너무나 單純化하는 愚를 범하는 것이다. 더욱기 黨官僚를 주축으로 하는 共產主義國家들의 寡頭獨裁의 傾向은 마르크스와 레닌의 <프롤레타리아트獨裁論>의 思想과는 너무나 먼 距離에 있는 것이다.

第 2 節 共産主義 革命類型과 奪權 過程

共産主義의 革命類型이나 奪權過程에 對하여서는 그 基準에 따라 여러가지로 分類된다. 그러나 共産化革命에 있어서 武力의 사용은 그것이 直接的이든 間接적이든 共通的인 手段으로 되고 있는 것이 重要な 特徵이다. 또한 奪權을 위한 革命의 過程에서도 土着的이라고 할 수 있는 게릴라 形態를 取하는 境遇와 外國軍(蘇聯軍)의 進駐 및 介入의 形態 등 두가지의 境遇로 區分하고 있다. 그러나 蘇聯의 조종과 指令下에, 또는 蘇聯의 支援을 받는 勢力이 政權을 掌握한 點에 共通的인 特徵이 있는 것이다. 구대여 類型을 區分한다면, 러시아의 革命類型을 필두로 몇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

共産主義革命의 類型은 ① 러시아의 볼셰비키革命 ② 유고, 알바니아, 中共, 越盟, 쿠바와 같이 게릴라活動에 의한 共産黨의 執權 ③ 蘇聯軍의 進駐를 背景으로 하여 完全히 밖으로부터 強要된 共産主義化의 過程을 겪은 헝가리, 불가리아, 東獨, 체코, 北韓, 外蒙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러시아 볼셰비키革命의 類型

1917年 <러시아革命>에 成功한 볼셰비키의 執權은 世界의 餘他地域에 있어서 共産主義者들이 既存政權을 打倒하고 政權을 掌握케 하는 出發信號가 되었다. 따라서, 그들의 共産主義 革命過程도 本質的으로는 蘇聯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해도 過言은 아니다.

볼셰비키들이 政權掌握에서 使用했던 手段은 두말할 것도 없이 暴力, 武力의 使用을 비롯한 宣傳, 煽動, 테러 및 恐怖政治, 陰謀 및 偽裝等이었다.

가. 暴力(軍事力)

볼셰비키黨의 指導者였던 레닌이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의 <戰爭論>에 크게 影響을 받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條件成熟에 따르는 自然發生的인 革命을 생각한 마르크스의 信念보다는 組織的인 暴力과 武力에 依하여 뒷받침

되는 主意主義的 革命을 더 強調하였다.

레닌에 있어서는 革命이란 組織的인 軍事力에 의하여 政權을 奪取하는 일종의 軍事作戰이었다. 동시에 革命을 위한 武裝蜂起에서 主要關心은 軍의 支持를 어떻게 얻느냐에 있었다.

1917年 10月の 불셰비키革命은 自然發生的인 蜂起가 아니라 페트로그라드에 屯하고 있던 陸·海軍으로 하여금 케렌스키보다는 레닌을 더 支持케 하는 데 그 要諦가 있었다.

이에 先行한 1917年 2月 革命은 自然發生的인 것이었으나, 10月 革命은 페트로그라드에 있는 大衆組織까지도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 10月 革命은 결코 自然發生的인 革命일 수 없었다.

10月 革命은 케렌스키政權을 打倒하기 위한 共產主義者들(불셰비키)의 革命이었다. 당시 케렌스키政權의 當面課題는 ① 効率的이며 安定된 政府의 樹立 ② 1次大戰의 遂行에 관한 問題 ③ 1次大戰의 產物이기도 한 政治的, 社會的 混亂과 더불어 土地, 勞動, 少數民族의 問題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있었다. 그러나 케렌스키政權은 이들 問題의 解決에 無能했으며 따라서 國民들로부터 無能하고 無氣力한 政權이라는 烙印이 찍히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警察과 軍隊마저 腐敗함으로써 治安維持 手段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레닌은 黨勢를 擴張하고 政權奪取을 위하여 党内에서 反對派를 除去하는 한편, 蜂起를 위한 時間表를 作成하였다.

暴動計劃은 착착 進行되어가고 있었으며 暴動遂行에 所要된 時間은 不過 一週日을 超過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中心的인 役割을 한 것은 바로 軍事力이었다. 불셰비키는 少數였으나 잘 組織되어 있었고 規律이 嚴格한 武裝部隊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公共施設을 奇襲함으로써 革命은 始作되었고 순식간에 武力으로 케렌스키 政府를 무너뜨리고 政權을 奪取하고 말았다. 따라서 불셰비키 革命은 일종의 쿠데타였다.

나. 宣傳·煽動

불셰비키黨이 둘째로 使用한 方法은 宣傳 煽動의 武器이다. 當面問題를 處理하

지 못하는 케렌스키政權의 無能이 점점 드러나 都市의 一部勞動者들이 볼셰비키에 關心을 돌리게 되었다. 이에 볼셰비키들은 그밖의 急進主義者들과 同盟을 形成하여 大衆의 共感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빵·平和·土地>를 口號로 내세워 煽動했다. 이러한 口號는 結局 口號로 끝나고 그대신 무서운 恐怖政治를 國民들에게 안겨다 주었음은 奪權後의 政治史가 잘 보여주었다.

레닌은 政權奪取에 있어서 大衆操作을 매우 重要視하였다. 그는 少數의 知識人을 對象으로 하는 宣傳과 多數의 一般大衆을 對象으로 하는 煽動을 概念上 區別하였다는 點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오늘날에도 蘇聯共產主義 體制를 비롯한 共產體制는 宣傳, 煽動과 強制(暴力)라는 兩大支柱를 統治의 基本的 技術로 삼고 있다. 마치 사자의 이빨과 여우의 간교한 꾀를 겸비한 권모술수의 象徴인 마키아벨리즘을 연상케 하고 있다.

다. 테러 및 恐怖政治

볼셰비키黨이 세째로 使用한 方法은 테러와 恐怖政治이다. 마르크스의 自然發生的 革命論과는 달리 人爲的 革命論을 信奉한 레닌은 革命의 目的을 위해 手段을 正當化했다. 소비에트體制의 維持를 위하여 反對派의 無慈悲한 肅清을 合理化했다. 이러한 手段은 레닌의 後繼者 스탈린에 의하여 더욱 制度的으로 強化되었다. 反對派에 대한 徹底한 抑壓은 共產主義體制의 또하나의 特徵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 黨 組織

네째로 使用했던 手段은 黨組織이라는 武器이다. 이미 詳述한 바와 같이 레닌은 職業革命家에 의하여 中央集權的으로 組織된 黨을 要求했다. 武装力을 物理的인 武器라고 한다면 黨은 組織上의 武器였다. 당시 러시아의 다른 社會主義勢力과 革命勢力에 비하여 革命戰術과 組織을 重要視하였다는 것이 그의 強點이었다. 黨은 奪權을 위한 武装暴動의 戰略司令部인 同時에 그 뒤에 올 共產黨獨裁의 維持를 위한 武器로 보았던 것이다.

마. 陰謀 計劃

볼셰비키黨이 革命에 利用한 위의 네번째 方法은 철저한 陰謀計劃이다. 黨이라는 組織概念과 陰謀의 計劃性的 概念은 不可分의 密接한 關係에 있다. 레닌은 革命遂

行을 위하여서는 階級意識의 覺醒이 未洽한 大衆組織은 利用할 수는 있어도 그것에 의지해서는 안되며, 따라서 少數의 엘리트에 의하여 革命이 計劃되고 指導되어야 한다고 했다. 勿論, 레닌의 計劃은 그것만으로서는 政權奪取에 充分치 않았다 하더라도 當時의 다른 國內的인 政治勢力에 比하면 철저한 陰謀의 計劃을 가졌다는 것이 奪權을 決定的으로 有利하게 만들어 주었다.

바. 偽 裝

國民 大多數가 共產主義를 願치 않는다는 단순한 理由에서도 볼셰비키들은 그의 眞意를 偽裝하여 奪權鬭爭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뿐만 아니라 過渡期的으로 農民과 提携해야 한다는 點에서도 理論 그 自體의 呼訴力보다는 農民을 비롯한 大衆에게 잘 共感이 갈 수 있는 口號로서 偽裝해야만 했다. 그래서 레닌은 農業의 集團化보다는 <土地는 農民에게>라는 口號를, 또 勞動者에게는 <모든 工場의 勞動者管理>를 口號로 외쳤다. 뿐만 아니라 社會革命黨 左派와의 一時的인 聯立政府의 構成도 不辭했다.

볼셰비키가 사용한 이들 여러 手段方法은 거의 모든 다른 나라의 共產主義者들이 奪權에서 使用한 共通的인 方法으로 援用되었다.

이러한 偽裝戰術은 2次大戰後에 共產主義者들에 의하여 더욱 巧妙하게 利用되었다. 共產主義의 全體主義的 獨裁라는 본래의 目的을 隱蔽하고 合法的이며 民主的 選舉를 實施했다는 政治的 正統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그들은 形式的인 選舉를 거쳤으며, 聯立內閣을 樹立하고 議會를 召集하여 憲法을 制定했다. 또 過去의 歷史的인 正統性을 承繼하는 것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舊體制의 國家元首를 過渡期的으로 새로운 體制의 名目上的 元首로 앉히기도 했다. 이러한 偽裝戰術은 革命過程에 그들의 힘의 弱點을 補完하기 위한 時間을 벌기 위한 作戰이다.

2. 東歐共產化의 方法

東歐라 하더라도 유고나 알바니아와 같이 게릴라活動에 의하여 共產黨이 執權한 경우와, 체코의 등이 初期에는 蘇聯軍에 의하여 占領되지 않았던 國家가 있는가 하면, 蘇聯軍의 의하여 傀儡政權이 樹立된 境遇가 있다. 그러나 東歐諸國은

어느 程度 共通性和 類似性을 發見할 수 있을 것이다.

1945~48年 사이의 共產黨의 奪權形態는 蘇聯軍의 占領下에서 하나의 作戰計劃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共通적으로 3段階를 거쳤다. 그 第1段階는 聯立政權의 形態였다. 理念이나 社會的 背景을 달리하는 여러 政黨이 過渡期的으로 共同目標을 향하여 提携 聯合하여 파쇼主義者의 肅清, 社會改革, 政治的 自由, 그리고 對外的 友好關係등의 共同 目標을 가지고 영성하게 聯合을 형성했다. 이 期間은 少數派인 共產黨이 힘의 補強을 위하여 時間을 벌자는 作戰이었다. 第2段階는 共產黨이 實權을 掌握하는 段階로서, 聯立政府는 다만 名目上的 것이 되고, 非共產主義政黨은 彈壓을 받았으나 警察은 이에 대하여 中立을 理由로 하여 共產黨의 暴力行使를 默認하는 狀態였다. 그리고 第3段階에서는 이미 非共產主義政黨은 強制的으로 共產黨(勞動黨)에 合黨되고 오로지 共產黨中心의 單一·中央集權的 體制로 轉變하여 共產黨一黨 支配下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過程에서 共產黨들이 驅使했던 戰術上的 手段은 蘇聯軍의 動員을 비롯하여 偽裝戰術, 組織的인 陰謀計劃等 불세비키들이 러시아革命에서 使用한 것을 모델로 하고 있었다. 이들 東歐共產黨 國家와 蘇聯과의 差異는 東歐가 統一戰線戰術을 驅使했다는 점이다.

統一戰線은 1921年 <코민테른> 第3次大會 때부터 驅使된 國際共產主義運動의 戰略을 위한 基本綱領이며, 그때 그때 명칭의 差가 있을 따름이다.

蘇聯이 東歐의 소비에트化를 위해 使用한 統一戰線戰術은 1930年代의 人民戰線의 變形이다. 第2次大戰中에도 共產主義者들은 歐羅巴에 있어서 漸次 反파쇼·레지스탕스運動의 主導權을 掌握함에 따라 이것을 파시스트國家에 의한 攻擊으로부터 蘇聯을 防禦하기 위한 手段으로 利用하여, 가능한 限 많은 反파시스트國家 團體 勢力을 이에 統合시켰다.

그러는 가운데 蘇聯의 勝利가 確實해지자 蘇聯防禦에 目的을 두었던 反파쇼戰線은 共產主義革命遂行의 目的으로 轉換하게 되었고, 또 이에 따라 鬪爭方法도 政治鬪爭에서 暴力鬪爭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리하여 樞軸國의 占領下에서 레지스탕스運動을 展開하던 反파쇼戰線의 이름으로 共產黨과 提携했던 政黨·社會團體는 共產

主義者들의 權力掌握을 위한 道具로 轉落케 되었다.

東歐의 소비에트化에서 蘇聯이 使用했던 手段으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가. 蘇聯軍의 占領

蘇聯軍의 占領은 소비에트化의 核心的 方法이었다. 당시 유고와 알바니아는 그 自體의 게릴라軍隊를 保有하고 있었고, 체코에 대해서는 占領은 하지 않았지만 共產黨의 支配的 地位의 確立을 위하여 蘇聯이 軍事的 威脅을 加하였다.

東歐諸國에 있어 蘇聯軍의 役割은 각기 달랐으나 共產黨의 執權을 위하여 蘇聯軍이 가장 決定的인 役割을 하였으며 특히 共產黨이 大衆的 基盤을 갖지 못한 國家일수록 蘇聯軍의 役割은 더 강했다. 또한 蘇聯軍의 進駐는 共產黨의 執權은 勿論 一黨獨裁體制의 維持에도 決定的인 役割을 했다.

나. 宣傳·煽動 口號와 偽裝 戰術

스탈린은 東歐圈을 소비에트化하기 위하여 첫째, 國民的 支持基盤이 없는 나라에서는 政權奪取를 合法的이고 民主的인양 偽裝을 해야 했다. 둘째, 對內的인 抵抗을 最小限度로 줄이고 蘇聯이 經驗한 바와 같은 內亂의 再版을 事전에 막아야 했다. 셋째, 西方世界가 共產主義 革命에 干涉할 要因을 除去해야 했다. 넷째, 國際輿論을 고려하여 蘇聯軍의 公同연한 行動을 隱蔽해야 했다.

여기에서 偽裝戰術은 여러가지 形態로 나타났다. 첫째로 共產主義革命을 遂行하면서도 이를 偽裝하기 위하여 여러 政黨, 社會團體와 提携하여 過渡期的으로 共存하는 聯立內閣을 樹立하고 새로 成立한 共產黨政權에다 政治的 正統性的 根據를 마련코자 하였다. 둘째로 宣傳 煽動을 통하여 國民大衆에게 共感을 주는 口號로서 呼訴하며 大衆操作을 자행했다. 農民에 대해서는 共產主義의 窮極的인 目標인 農業의 集團化에 관해서는 일체 言及을 회피하고 <土地는 農民에게>라는 口號로서 土地分配를 約束하고, 勞動者에게는 <工場과 鑛山은 勞動者에게>라는 宣傳 口號를 내세웠다. 셋째로 共產主義라는 말에 대한 國民의 嫌惡感을 촉발하지 않기 위하여 共產黨政權을 人民民主主義政權이라고 呼稱하였다. 넷째로 共產黨政權이 마치 民主的이며 合法的인 節次에 의하여 樹立된 것처럼 外形的인 節次를 提示하여

形式的인 選舉를 實施하고 憲法을 마련했다.

다. 統一戰線 戰術의 使用

많은 敵을 同時에 攻擊하는 데서 오는 自體力량의 不足을 政治的으로 計算하여, 反對勢力이 團合하여 그들의 計劃을 挫折시키지 못하겠음 各個격파 戰術을 驅使 함으로써 하나씩 하나씩 反對勢力을 除去해 나갔다. 요컨대, 統一戰線 戰術은 可能的 限 많은 사람들이 共產主義者들은 그들의 敵이 아니라 統一戰線에 屬하는 同志로서 믿겠음 하는데 그 目的이 있었다. 또 이러한 政治的 側面만이 아니라 經濟的으로도 農業의 集團化나 産業의 國有化를 서서히 進行함으로써 初期段階에서는 自由로운 經濟活動을 許容하여 共產黨勢力이 確固한 政治勢力으로 基盤을 굳힐 때 까지 進行되었다. 그러나 共產黨의 勢力이 強해진 때는 가차없이 初期의 모든 約束은 破棄해 버렸던 것이다.

라. 組織的 陰謀計劃

東歐의 소비에트化는 스탈린의 미리 짜놓은 組織的인 陰謀計劃에 따른 것이었다. 蘇聯軍의 進駐와 더불어 蘇聯에서 訓練받은 各國共產黨의 核心分子들이 미리 짜여진 脚本을 가지고 歸國하여 實踐에 옮겼다. 이들이 貨車를 타고 歸國했다는 點에서 前述한 바와 같이 이들 政權을 <貨車政權>이라고 부른다. 요컨대, 蘇聯軍의 占領에 의한 共產黨政權 樹立은 蘇聯軍의 作戰計劃의 基本目標였다.

3. 中國共產主義 革命의 類型

蔣介石이 南京에 國民政府를 樹立한 1927年부터 中共政權이 樹立되는 1949年에 이르는 22年間이 中國共產黨의 政權掌握에 所要된 期間이며 이 期間은 大體로 6個段階로 區分할 수 있다.

第1段階(1927~31年): 農民들의 抗拒를 利用하여 政治力量으로 組織化하면서 共產黨組織과 運動을 再建하는 한편 遊擊戰部隊의 充員에 의하여 그의 生存을 圖謀하는 期間이었다.

第2段階(1931~34年): 革命基地를 強化하며 蘇聯에서 歸國한 젊은 층으로 黨

指導部를 構成하고 毛澤東式 遊擊戰法으로부터 傳統的인 陣地戰術로 되돌아 가는 時期였다.

當時, 毛澤東은 党内에서 農民革命論者로밖에 評價되지 않았고 따라서 그의 影響力도 미약했던 時期였다.

第3段階(1934~'36年): 이른바 大長征의 時期이다. 이때는 陣地戰術로부터 다시 毛澤東式 遊擊戰法으로 復歸하였다. 中國人들에게 民族主義的 感情을 鼓吹시키고 매마침 中·日戰爭이 勃發하자, 國·共合作 戰術에 입자, 國民黨과 抗日民族統一戰線을 展開한 時期였다.

第4段階(1936~'41年): 抗日戰보다는 戰後에 닥쳐올 國民黨과의 對決을 위해 자체의 勢力擴大에 부심하고 効果的인 遊擊戰法을 開發한 時期였다.

第5段階(1941~'45年): 中國北部에서 中國共產黨의 政治的·軍事的 機構를 強化하면서 國民黨과의 戰後對決을 위한 最終的 準備를 完了한 時期였다.

第6段階(1945~'49年): 內戰을 통하여 政權을 奪取한 期間이었다.

毛澤東은 1927年頃부터는 黨이 指導하는 農民軍의 叛亂에 共產主義革命의 成功契機를 두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毛澤東이 農民中心의 <群衆路線>과 <政治優先主義>에 그의 戰略的 觀點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레닌을 비롯한 그 以前의 共產主義者들과 毛澤東의 見解差異를 지적한다면, 毛澤東이 農民을 프롤레타리아階級과의 關係에 있어서 <副次的인 勢力>으로서 評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農民, 특히 <貧農>을 가장 積極的인 革命勢力으로 評價했다는 點에 있다. 따라서, 毛澤東의 基本革命思想은 黨의 指導를 받는 貧農中心의 軍隊에 의한 武裝鬭爭에 있었다.

執權以前의 中國共產黨이 취한 政治戰略은 「오직 敵은 하나」라는 戰略上의 公式에 立脚하여, 첫째로 對國民政府關係에 있어서는 1933년까지 <主要 敵>은 南京政府로 규정했고, 1933~'36년에는 蔣介石, 1936年以後에는 日本, 그리고 1945年 日本이 降伏하자, 國民黨을 다시 <主要 敵>으로 규정했던 것이다. 둘째로 日本이 <主要 敵>으로 되는 時期에는 國民黨을 <副次的인 敵>으로 규정, 그들과 一時的인 統一戰線을 形成·合作하여 大衆의 支持를 받고자 民族感情에

呼訴하면서 社會·經濟的인 問題의 解決을 強調했다. 中國共產黨의 奪權過程은 東歐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으나, 蘇聯이 東歐의 共產主義化를 위하여 驅使하였던 手段方法, 즉 暴力, 宣傳, 煽動, 殘忍性, 黨組織, 陰謀計劃, 偽裝과 統一戰線戰術等 共通的인 類似性を 지닌다.

第 3 節 共產主義 革命의 要因

共產主義者들이 革命이데올로기의 宣傳과 組織的 陰謀工作을 통하여 奪權을 試圖하게 되는 要因은 時間과 狀況의 特殊性에 따라 多少間의 差異를 보여 왔다. 그러나 共產黨의 奪權過程은 대체로 對內·外的 狀況與件이 비슷한 共通點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評價된다.

1. 對內的 要因

하나의 국가, 특히 開發途上國의 境遇에 있어서, 政治, 經濟, 社會的으로 不安定하고 無秩序한 狀態가 나타날 때 共產主義革命 要因이 싹트게 된다.

政治的인 不安定이 繼續되는 가운데 與·野政黨間의 對立이 격화되고 또한 政府의 無能腐敗相이 드러남으로써 國民의 信賴를 喪失하게 될 때 이는 共產革命의 潛在的 要因으로 作用할 수 있다.

共產主義革命의 對內的 要因들을 좀 더 具體的으로 分析해 본다면, ① 政治的 權威가 極端的으로 弱화되고 政權의 無氣力 현상이 露呈될 때, ② 經濟的으로는 景氣沈滯의 加重, 所得의 不均衡, 貧富隔差의 심화로 經濟的 破局狀態로 빠지게 될 때, ③ 社會的으로는 道義가 무너지고 社會紀綱이 紊亂해지고 階層間 違和感和 갈등의 식이 팽배함으로써 不信社會·不滿社會로 沒入케 될 때, ④ 社會正義를 외치는 젊은 知識人들의 批判과 改革運動이 過激化되고 勞組의 活動이 罷業등의 實力行使를 하는 狀態로 갈 때, 이는 革命發生의 潛在的 要因으로 作用할 수 있다.

2. 對外的 要因

한편, 共產主義 革命의 對外的 要因은 대체로 다음 세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國際戰爭(世界 1·2次大戰, 中·日戰爭 등)의 餘波로 非共產政權의 政治的 權威이 極도로 弱화되었을 때, (例: 쿠바를 除外한 共產化된 모든 國家가 이에 該當된다)

둘째, 共產強大國과 隣接한 境遇 ① 直接侵攻이나 ② 間接的인 物資, 武器, 人員을 供給받을 때, (소련 및 中共과 隣接한 地域에서 共產主義奪權運動이 成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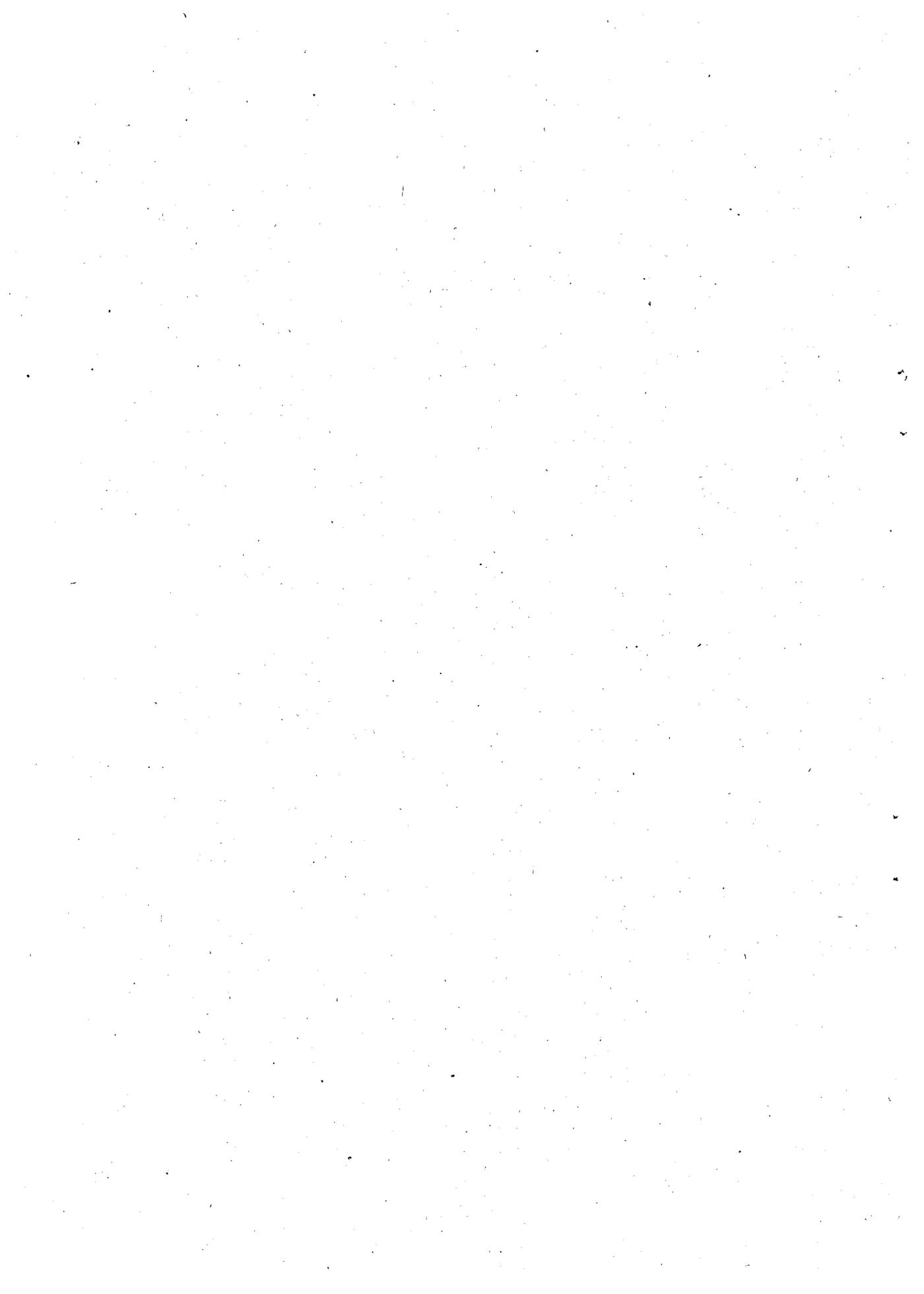
셋째, 國際的으로나 局地的으로 勢力均衡이 共產主義者에게 有利하게 轉換될 때, (2次大戰後 소련軍의 占領 내지 進駐地域, 美軍撤收後의 印支半島의 共產化가 이에 該當된다) 등이다.



第2章 共產主義體制에서의 黨의 絶對性和 役割

目 次

第1節 党 理論 批判	39
1. 마르크스의 党 理論과 레닌의 前衛党 理論	
2. 共產主義 獨裁體制에서의 党的 絶對性	
第2節 共産党的 全體主義的 統制	45
第3節 프롤레타리아트 獨裁論의 名分과 寡頭獨裁의 現實	49



第 1 節 黨 理 論 批 判

1. 마르크스의 黨 理論과 레닌의 前衛黨 理論

마르크스의 黨 理論은 西歐的이며 프롤레타리아트中心인데 반하여, 레닌의 黨 理論은 러시아的이며 職業革命家中心의 엘리트主義였다. 마르크스는 당시 西歐의 資本主義體制가 部分的으로 안고 있는 貧富의 隔差를 과장하여 프롤레타리아트中心의 革命理論과 共產黨의 組織原則을 主張하였다.

한편, 레닌은 프롤레타리아트가 成長하지 못한 러시아의 未熟한 資本主義 條件아래서 소수 職業革命家 中心의 黨 組織 理論을 體系化하였다.

마르크스는 <共產黨 宣言>을 통하여, 「共產主義者들은 다른 勞動者 政黨에 對立하는 特別한 黨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레닌은 共產主義者들이야말로 「모든 나라의 勞動者, 黨의 가장 高度로 組織化된 革命階級」이며, 共產主義의 組織은 革命을 主導해 나가는 勞動階級の 엘리트이며, 동시에 <革命勢力의 領導階級>임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마르크스는 19世紀初 歐羅巴의 <社會主義>政黨 가운데 理論이나 組織面에 있어서 방대하고 가장 優秀性を 보이고 있었던 獨逸黨(社會民主黨의 前身)에 기대를 걸었던 것으로 評價된다.

마르크스는 獨逸 勤勞者들의 知的 成熟과 政治的 組織化 및 行動에 기대를 걸었다. 말하자면, 獨逸의 프롤레타리아트를 國際프롤레타리아階級の 中樞勢力으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이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트>의 大衆的 組織으로서의 共產黨을 생각하였으며 自然發生的인 民衆蜂起를 決定論的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일종의 大衆政黨의 組織論者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레닌은 마르크스와 달리 共產黨을 大衆蜂起를 誘導하고 革命을 指導하는 主役이며 프롤레타리아트의 前衛隊로서, 共產革命의 司令塔으로서, 政權奪取後에는 프롤레타리아트獨裁의 主役으로서 간주하였다.

레닌은 共産革命과 共産政權에 있어서 党은 必須不可缺의 存在로 規定했던 것이다.

그는 1905年 러시아革命의 경우, 大衆들이 그 革命의 主軸을 이루어 自發的인 民衆蜂起는 이루어졌으나, 그 大衆革命을 組織的으로 指導하는 共産党的 役割이 缺如되었기 때문에 결국 失敗로 끝났고, 1917年의 10月 革命에서는 볼셰비키가 組織과 暴力으로 奪權함으로써 비로소 共産革命을 成功的으로 끝낼 수 있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觀點은 스탈린도 그대로 踏襲하였다.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다같이 共産党은 革命을 指導하고 組織과 統制를 專擔하며 <革命戰爭>의 主役으로서의 役割을 한다는 党 理論을 하나의 不變의 教理로서 公式化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레닌의 프롤레타리아트獨裁論은 결국 共産党 1党獨裁의 過程을 거쳐 1人獨裁로 轉落되고 말았다. 오늘날, 世界의 共産主義 나라중 1党獨裁와 寡頭·1人獨裁를 하지 않는 나라가 없는 것도 바로 여기에서 緣由된다.

그렇다면, 레닌이 展開한 前衛党 理論의 核心은 무엇이며 共産党的 本質과 特徵은 무엇인가?

스탈린의 <레닌主義의 基礎>라는 글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 레닌의 党 理論의 核心은 다음과 같이 要約될 수 있다.

첫째, 党은 프롤레타리아트의 前衛隊이다. 党은 프롤레타리아트를 領導해야 하며 先頭に 서야 한다. 그리고 党은 프롤레타리아트의 司令部와 같다.

둘째, 党은 勞動者階級の 組織된 部隊이다.

셋째, 党은 프롤레타리아트의 道具이다.

넷째, 党은 鋼鐵같은 紀律을 가진 意思의 統合體로서 分派를 인정치 않는다. 또한 共産党은 <프롤레타리아>組織의 最高形態이다.

다섯째, 党은 分派의 存在와 兩立하지 않는 意志의 統一體이다.

여섯째, 党은 스스로를 機會主義 分子들로부터 淸결히 함으로써 強固해진다.

레닌의 党 理論은 그 構成原則에 있어서 革命의 前衛隊로서의 <職業革命家>를 重視하였고 同時에 이 職業革命家は 訓練된 少數의 精銳分子이어야 하며, 組織은 徹

底하게 秘密組織으로 해야하고 必要時 언제나 使用할 수 있는 <武装部隊>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黨은 誤謬를 범할 수 없는 絕對的 存在로 보았다. 이는 決定的 時機가 到來할 때 短期間의 <都市暴動戰術>에 依據 既存政權을 打倒하기 위해서이다.

레닌의 前衛黨 概念은 本質적으로 大衆政黨과 區別되어 一般 大衆의 利害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프롤레타리아트의 利害와도 兩立되지 않았다. 또 이것은 少數 精銳分子 中心의 組織論이었기 때문에, 黨 組織을 掌握하고 있는 少數의 黨高位層의 獨裁를 意味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러한 黨 獨裁를 合理化하기 위한 組織의 運營 原則으로서 레닌과 共產主義者들은 所謂 <民主的 中央集權制>를 提示했다. 中央集權制를 組織運營의 原理라고 한다면, 民主制는 組織 原理의 선전적 명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共產主義者들의 黨 組織概念에 있어서 民主的 中央集權制는 組織形態와 그것의 運營을 위하여 提示된 原理이다. 그러나 實際로 共產黨 組織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民主主義는 없고 權力의 集中만이 있을 뿐이다.

레닌은 黨의 中核이 되는 것은 平黨員이 아니라 黨 指導部이며, 黨員을 統制하기 위해서는 下向的으로 組織되고 民主的 中央集權制에 의하여 統制되어야 한다고 했다. 共產黨의 組織概念은 本質上 하나의 排他的 精銳分子中心의 組織이므로 中央集權的 '性格이 철저한 反面, 일반 黨員은 黨中央에 대하여 그것이 내리는 命令에 服從해야 할 뿐이다. 따라서 民主主義原則이란 適用될 수 없는 하나의 僞裝이며 欺瞞에 不過하다. 이는 平黨員의 存在理由가 黨의 政策決定에 參與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黨 指導部の 決定에 無條件 服從하고 그 實行을 위하여 鬪爭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共產主義體制에 있어서는 黨과 黨사이에서는 勿論, 黨內에 있어서도 民主主義 原理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共產黨은 構造上 二重的인 組織原理에 立脚하고 있다. 첫째로 黨은 大衆과의 關係에 있어서 指導的 位置에 있으며, 둘째로 一般黨員은 中核指導分子로 構成된 黨 指導部に 철저히 服從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黨과 大衆과의 關係는 어떠한가?

革命的 成分의 所有者에게는 黨加入의 門戶를 開放하는 반면, 그밖의 成分의 所

有者에게는 철저히 制限하고 있다. 共產主義者들은 처음부터 黨을 프롤레타리아트의 前衛隊, 즉 엘리트 組織이라고 하여 排他的인 團體로 생각하였다.

다음으로 黨 指導부와 平黨員과의 關係는 어떠한가?

共産黨은 中央集權的인 組織原理에 基礎함으로써 黨員에 대한 無條件 服從을 强要하게 되고 黨 指導부와 平黨員과의 關係는 마치 軍에 있어서의 指揮官과 士兵과의 上下關係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共産主義體制는 政治的 權威를 사실상 少數의 黨 指導부에 賦與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党内民主主義를 假裝한다. 權威와 意思決定이 中央에 集中되어 黨과 黨 指導부를 同一視하게 되고, 특히 스탈린 時代를 起點으로 黨 官僚主義가 制度化되는 가운데 平黨員의 服從을 더욱 强要케 되었다. 만일 사소한 不服從이라도 할 경우, 그 행위는 곧 黨 指導部로부터 烙印적혀 機會主義, 修正主義, 追從主義, 브르조아 民族主義, 教條主義, 反黨集團 등으로 糾彈을 받게 된다. 이러한 黨 組織에서는 平黨員은 마치 政治的 消耗品과 같은 存在로 轉落케 되는 것이다.

레닌이 提示한 共産黨의 組織原則은 결코 民主的인 것이 아니었다. 다만 中央集權的 權力的 專制가 있을 뿐이었다. 레닌이 主張한 共産黨의 組織原則에 관하여 트로츠키는 혹독하게 批判한 적이 있다. 그는 레닌의 共産黨 組織은 結局 黨中央 委員會가 權力的 最高機關으로서 全權을 掌握하고 마침내는 獨裁者가 中央委員會를 틀어 쥐게 되며 黨은 1人獨裁의 道具로 轉落될 憂慮가 있다고 批判했다.

또한 獨逸社會民主黨의 左派理論家였던 로자 룩셈부르크 (Rosa Luxemburg)도 레닌의 黨 組織原則에 對하여 強力히 反對하였는데, 中央集權的이며 嚴格한 黨紀律은, 「짜리專制主義의 再版」이라고 非難하였다. 즉, 레닌의 黨 組織原則은 프롤레타리아트獨裁를 憑藉하여 1人獨裁體制로 轉落될 것을 豫見했던 것이다.

이들의 우려는 결코 기우로 끝나지 않았다. 레닌의 볼셰비키黨 原則은 레닌을 비롯하여 그후 繼續하여 1人共産獨裁者를 世界의 모든 共産主義 運動에서 만들어 냈던 것이다.

결국, 레닌의 前衛黨 理論은 특히 스탈린時代부터는 本格的으로 共産黨의 1黨獨裁→寡頭支配→1人獨裁를 위한 理論的 武器로 利用되어 왔다.

2. 共產主義 獨裁體制에서의 黨의 絕對性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政治制度에 관한 具體的인 理論을 體系的으로 展開치 못하였으며 이 點에 있어 그들의 敎義는 매우 모호한 것이었다. 레닌主義는 곧 마르크스主義의 政治的 實踐理論이며 그 焦點이 되는 것은 바로 黨의 概念이다. 따라서, 現代共產主義의 政治 概念의 中心은 黨 理論으로 歸結된다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레닌主義에 있어서 黨은 革命以前에 있어서는 革命遂行을 위한 前衛隊이며 革命後에는 獨裁體制를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 共產黨社會에 있어서 黨은 法律的으로나 形式的으로나 그리고 實質的으로 絕對權力을 完全 獨占한다. 따라서 執權과 더불어 共產黨은 첫째의 任務을 民衆의 統制와 政治教育에다 둔다. 이 點에 있어서 共產主義는 다른 現代的 獨裁政治와 類似하다. 共產主義를 비롯한 全體主義的 獨裁政治는 결국 超官僚制와 超政黨制로 轉化하였다. 共產主義는 모든 分野에서 다른 政治勢力의 活動自由를 철저히 排除한다. 이는 마치 舊約聖書에 나오는 怪物 "레비아탄" (Leviathan)과 같은 巨大한 共產黨 組織을 武器로 獨裁를 強行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共產體制에 있어서 黨·國家·社會는 一體化되기 마련이다.

共產黨이 支配하는 社會에 있어서 黨의 絕對性과 獨裁性은 黨의 權力構造와 機能面에서 본다면 더욱 明白해진다. 共產黨은 ① 平黨員, ② 갖가지 機能에 따라 位階秩序가 明確히 劃定된 黨 部署, 그리고 ③ 黨 指導部등 大體로 세가지로 構成되어 있다. 이 세가지의 構成要素는 그 機能에 있어 顯著的한 差異가 있다. 平黨員은 자기 주어진 任務에 따라 黨의 決定事項을 無條件 實踐해야 한다. 位階秩序로 組織된 黨 部署는 黨 指導部の 命令을 一般 黨員들에게 傳達하고 監督하는 機能과 아울러 人民에 대한 支配權을 행사한다. 피라밋型 組織의 頂上에는 最高司令部가 있다.

最高司令部는 少數의 核心分子로 構成된 常設機關인 政治局과 書記局이다. 政治局은 黨의 核心的인 政策決定機構이며, 書記局은 黨의 主要한 執行機構이다. 政治局이 權力의 核이라고 하는 것은 終局的으로 이 機構를 代表하는 書記長이 權力

序列에 있어서 第一人者이기 때문이다. 最高司令部는 書記長의 일사불란한 指揮 아래 움직인다. 그리고 黨의 政策을 遂行하는데 있어서 法節次가 必要할 境遇에는 形式上 最高代議機關의 議決을 거치나, 모든 경우에 있어서 代議機關이 反對하지 않는 것이 歷史的 常例로 되어 있다. 外觀上 民主主義인양 偽裝하기 위하여 憲法에서 代議機關을 國家權力의 最高機關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蘇聯에서는 소비에트 最高會議가 그것이고 中共에서는 全國人民代表大會가 그것이다. 그러나 權力은 그 常設機構(幹部會議 또는 常務委員會)가 행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共產黨의 寡頭獨裁의 政治的 性格을 確然히 理解할 수 있다.

黨에로의 機力集中과 寡頭獨裁의 性格 때문에 實質的으로는 黨 指導部에 대한 批判은 있을 수 없으며, 어느 黨員이 批判과 糾彈의 攻擊 對象이 된다면 그것은 平 黨員의 批判에 의한 것이 아니라 黨 指導部の 意圖的 教唆에 의한 것이다.

그러면 다음으로 共產黨의 機能은 어떠한가?

共產黨의 機能은 一般的으로 ① 奪權前 힘의 空白을 造成하는 段階 ② 奪權遂行을 위해 他勢力과 同盟하는 段階 ③ 同盟의 段階에서 統一戰線 形成에 協力치 않았던 反對勢力에 대해서 無慈悲하게 肅清하는 段階 ④ 非組織化된 人民大衆을 動員하는 段階, 그리고 ⑤ 決定的인 抵抗을 받지 않고 社會를 完全히 支配·管理하기 위한 마지막 段階等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하나 하나의 段階에 있어서 주어진 機能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重要하며 두드러진 機能은 既存의 社會와 國家와의 사이의 機能的 差異를 무너뜨리고, 黨 組織에 의하여 社會를 全面的으로 政治化하는 機能이다. 이러한 全社會의 政治化는 宣傳, 教育, 強制力을 그 手段으로 動員함으로써 이루어진다.

以上에서 마르크스·레닌主義에 있어서 共產政權의 維持方法으로서의 黨의 構造와 機能을 살펴 보았다.

요컨대, 權力構造의 中央集權의 獨裁性과 黨 機能의 全體主義的 性格은 共產黨獨裁에서의 黨의 絶對性을 意味한다. 그런데 黨이란 그 外皮를 털어버리고 나면 實質的으로는 그것을 支配하는 少數指導者 또는 1人獨裁로 되기 때문에 黨의 不可

誤謬性이란, 黨의 이름으로 支配하는 獨裁者의 不可誤謬性을 뜻하게 된다.

또한 黨의 <指導的 地位란 獨裁者의 指導的 地位>를 意味하며 黨을 眞理의 源泉으로 보는 것은 곧 獨裁者를 眞理의 源泉으로 보는 것을 意味하게 된다. 그리하여, 黨의 支配란 終局에는 스탈린, 毛澤東, 金日成體制에서 볼 수 있듯이 個人 偶像化와 一人獨裁로 歸結케 되는 것이다. 스탈린과 毛澤東 및 金日成은 共產黨의 絕對的 權威와 暴壓政治를 動員, 永久獨裁를 强行해왔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第2節 共產黨의 全體主義的 統制

全體主義는 일종의 恐怖政治이다. 동시에 共產主義는 全體主義的 獨裁의 典型이다. 나치즘과 파시즘을 全體主義의 右派라고 한다면, 共產主義는 全體主義의 左派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全體主義의 特徵은 다음과 같이 여섯가지로 要約될 수 있다. 즉 ① 官製 이데올로기 ② 唯一黨 ③ 테러리즘에 의한 統制體系 ④ 거의 完璧한 統制의 獨占 ⑤ 거의 完璧한 武裝力의 獨占, 그리고 ⑥ 中央集權的 統制經濟가 그것이다.

全體主義의 첫째의 特徵은 官製 이데올로기다. 이것은 既存社會의 根本的 變革과 새로운 社會秩序의 構築을 위한 官製 敎義體系로서 <思想敎養>이란 이름의 洗腦敎育을 통하여 社會의 모든 구석 구석에까지 浸透한다.

둘째의 特徵인 唯一黨은 革命思想에 獻身하는 獨裁者와 少數엘리트 中心으로 構成되며, 組織上 位階的이며 寡頭的이고 超官僚主義的이다.

세째의 特徵은 테러리즘에 의한 統制體系로서 獨裁者를 위하여 黨 그 自體를 監督함은 勿論, 反對勢力이나 國民中에서 反抗하는 者에 대하여 暴力을 行使한다. 여기에 秘密警察制度는 強力한 統制武器가 된다.

네째의 特徵은 黨과 黨의 核心幹部들이 마스크를 비롯한 거의 完璧한 社會統制手段을 獨占한다.

다섯째의 特徵은 현대과학과 기술로 裝備된 모든 武裝力을 거의 完璧하게 獨占

한다.

그리고 여섯째의 特徵은 官僚主義的인 調整에 의한 中央集權의 統制經濟이다.

全體主義의 左派라고 할 수 있는 共產主義는 나치즘이나 파시즘, 즉 全體主義의 右派와 比較할 때, 共通의인 特徵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상 많은 差異가 있다.

① 나치즘이나 파시즘의 思想이 그 性質上 排他的이라는 點에 있어서는 共產主義의 革命思想과 同一하지만 目的이나 意圖, 그리고 民族主義와의 關係에 있어서는 判異하다. 즉, 나치즘이나 파시즘이 特定한 民族 또는 種族에 의한 世界支配를 追求하는데 反하여, 共產主義는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世界支配를 追求한다. 따라서 前者는 排他的 民族主義와 直結되어 있는데 反하여, 後者는 다소 普遍性을 띠고 있다.

② 位階的이며 寡頭的 唯一黨이라는 共通點이 있으면서도 具體的으로는 差異가 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의 差異에서 오는 組織原理의 差異를 反映하는 것이다. 나치즘이나 파시즘이 既存 階級構造의 打破를 追求하지 않는데 反하여, 共產主義는 그 打破를 追求한다. 또 勞動者가 指導勢力內에서 차지하는 役割이 共產主義에 있어서는 보다 強하다. 또한 共產主義의 組織原理는 階級엘리트中心의 前衛黨 概念인데 反하여, 나치즘이나 파시즘의 組織概念은 民族엘리트中心의 黨이다.

③ 組織原理의 差異는 또다시 指導原理의 差異를 낳는다. 다시 말해서, 파시즘과 나치즘은 어느 程度 <協同의 原理>를 前提한데 反하여, 共產主義는 더욱 排他的이며 位階的이고, 專制的이며 閉鎖的이다.

④ 組織의 歷史的 背景에도 差異가 있다. 파시즘이 第1次大戰의 經驗에서 擡頭하여 共產黨의 威脅에 對處하기 위한 것인데 反하여, 蘇聯共產黨은 자리 專制政治에 對抗하여야 하는 與件下에서 秘密 精銳組織으로 形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레닌의 全體主義는 자리의 專制政治를 여러면에서 모방하게 되었다.

⑤ 組織의 運營面에서도 差異가 있다. 共產主義는 兩面的 次元, 즉 하나는 國際主義的이며 理想主義的인 次元, 다른 하나는 一國社會主義的이며 戰術的인 次元 등 二重의 活動構造를 갖는다. 共產主義는 이 두個 次元의 活動을 同時에 遂行하고 있다. 이에 反하여 파시즘이나 나치즘은 特定民族의 國粹主義와 本質的으로

聯關되어 있으므로 國家的인 테두리를 넘어설 때 그 呼訴力은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게 된다.

⑥ 黨과 大衆組織과의 關係에서도 兩者는 다르다. 나치즘은 雜多한 團體들과의 協同을 그 <指導者 原理>에서 어느 程度 前提로 하여, 幹部組織인 黨과 勞動組合, 職業的 利益團體를 區別하였다. 이에 反하여 레닌은 勞動組合을 비롯한 各種의 社會組織體를 黨과 一般 大衆을 連結시키는 <引傳帶>라고만 생각했다.

⑦ 政府와 黨의 相互關係에 있어서도 다르다. 指導者와 黨을 同一視한다는 點에 있어서는 모든 類型의 全體主義가 同一하다. 그러나 黨과 政府와의 關係를 보면 共產黨國家에 있어서는 黨이 政府보다는 優越한 地位에 있는데 대해, 나치즘과 파시즘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共產主義는 全體主義 思想의 典型으로서 全體的인 破壞와 建設을 主張하고 既存社會를 根本的으로 否定한다. 그리고 어떻게 暴力이나 強制力을 통하여 既存社會를 破壞하고 共產化할 것이냐를 이데올로기로 合理化하고 制度化한다. 그런데, 共產主義의 이데올로기는 典型적으로 排他的인 思想이므로 다른 思想이나 理念體系를 자기들에 대한 威脅으로 看做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集團收容所, 肅清, 示範處刑, 集團處罰 등과 같은 무서운 暴力과 테러를 恣行한다. 이때 共產主義 이데올로기는 이러한 暴力使用을 合理化하고 있다.

마르크스·레닌主義로 불리우는 共產主義는 思想의 排他性과 獨裁者에 의하여 支配되는 唯一黨, 大衆組織, 動員體制, 權力獨占等 現代 全體主義의 特徵을 完全無缺하게 갖춘 典型的인 獨裁政治이다. 이를 보다 더 具體的으로 論한다면, ① 思想의 排他性은 法律上的 形式主義를 拒否, 테러를 制度化한다. ② 少數 엘리트 主義는 權力構造의 位階制와 權力獨占 때문에 다른 政治勢力에 의한 權力剝奪을 憂慮하는 나머지 恐怖心理에 사로잡혀 強制的 方法에 依存하게 된다. 즉 테러를 永續化한다.

③ 黨은 國家보다 越等한 地位에 서게 됨으로써 權力의 中樞組織이 되고 이데올로기의 次元에서 國家와 社會의 限界를 解消시켜 社會全體를 政治化한다. 그리고

④ 黨의 權力獨占은 大衆操作·大衆動員·大衆의 組織化를 위한 手段 즉 매스컴, 大衆宣傳, 敎化, 테러등의 獨占을 可能케 한다. 이들 여러 手段을 連結시켜 驅使

함으로써 共產主義자들은 社會의 全體主義的 統制를 可能케하며 恐怖政治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共產黨國家를 莫論하고 體制維持를 위한 가장 重要한 強制裝置는 테러와 肅清이다. 레닌과 스탈린時代의 肅清이나 스탈린死後의 베리야의 肅清, 그리고 몰로토프, 말렌코프, 흐루시초프의 실각은 말할 必要도 없거니와 스탈린과 毛澤東의 死後 格下運動은 죽음으로 그 과오가 清算되는 것이 아니라 死後에까지 계속되는 肅清의 極限狀態라고 할 수 있다.

肅清이란 權力鬭爭의 過程에서 이데올로기나 政策路線을 둘러싼 論爭을 媒介로 하여 일어나는 것이므로 이것은 共產主義政治過程에 있어서는 恒久的이며 基本的인 현상이다. 共產主義者들에 있어 肅清은 黨 隊列에 끼어든 敵을 除去하고 <革命思想의 純潔性>을 守護하기 위한 自體淨化의 過程으로 合理化시키고 있다. 肅清은 黨으로부터의 追放을 비롯하여 逮捕나 投獄, 殺害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의 形態로 나타나며 敗北者는 스파이, 人民의 敵, 反革命, 反黨分子 等 여러가지 罪目으로 누명을 뒤집어 씌운다.

그리고 肅清은 여러 動機에서 戰術적으로 斷行된다. 이들 動機가운데서 가장 一般的인 것을 例舉하면, ① 黨路線에 대한 異議나 黨 指導부의 이데올로기解釋에 대한 不贊同 ② 問題가 되는 黨員과 緊密한 人間關係 ③ 黨政策遂行上에 있어서 <左傾的>, <冒險主義的> 또는 <右傾的> 過誤 ④ 黨路線의 失敗의 政治的 責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위하여 黨員을 祭物로서 提供하는 경우 ⑤ 黨組織의 膨脹에서 오는 黨員의 黨性에 대한 의심 ⑥ 黨 幹部內의 다른 分派의 挑戰에 의한 不安感 ⑦ 個人的인 權力鬭爭과 復讐心의 境遇등이 그것이다. 이들 動機가운데서도 實質的 動機는 權力慾이며 이것은 다른 動機에 의하여 隱蔽되고 合理化되는 境遇가 大部分이다.

第3節 프롤레타리아트 獨裁論의 名分과 寡頭獨裁의 現實

프롤레타리아트獨裁는 實際로는 허울좋은 구실로 轉落하고 말았다. 결코 共產主義政權은 勞働者·農民의 政權이나 <人民政權>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獨裁란 黨을 組織上의 武器로 하는 一人獨裁 또는 少數獨裁政權이다. 이는 蘇聯을 비롯한 共產黨國家들의 現實이 잘 證明하고 있다.

共產黨國家는 格증하는 機能의 遂行을 위하여 全體主義的 官僚化의 過程으로 退化하고 있다. 統制와 監督의 集中은 黨 官僚와 政府官僚사이에 葛藤을 일으켜, 初期의 党性이 점차로 業務處理를 위한 專門性으로 代置되었다. 여기서 이데올로기 思想과 專門性間에 葛藤이 發生하게 되고 <紅·專>對立과 같은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共產黨國家에 있어서 黨의 官僚化는 現代 全體主義에 있어서 가장 印象的이며 두드러진 特徵의 하나로 되어 있다. 黨의 官僚化에 따라 黨의 内部機關에 자리잡고 있는 組織幹部, 즉 <아파라츠키>라는 새로운 黨 官僚가 特權 階級으로 登場케 되었다. 말하자면, 階級없는 社會를 부르짖는 共產主義는 새로운 共產黨貴族階級을 만들어 낸 畸形的 政治形態로 변하고 말았다.

蘇聯의 例를들면, 스탈린이 黨 書記로 任命된 以來, 黨의 内部機關은 繼續 膨脹하여 超官僚主義를 象徵하는 中央委員會秘書局으로 發展했다. 스탈린이 그의 政敵을 除去하고 權力을 強化하는데 成功한 것은 中央委員會를 奇妙하게 調整한 結果였으며, 따라서 스탈린治下에서 黨 機構는 政治權力의 核心的인 道具로 되었다. 그의 後繼者인 말렌코프, 불가닌, 흐루시초프, 브레즈네프 등은 모두 黨 官僚인 <아파라츠키>의 出身이었다.

黨 官僚制는 國家官僚制와 並行하여 運營되며 또 前者는 後者에 浸透해 들어간다. 이러한 閉鎖的 官僚制의 迅速한 膨脹은 그 地位의 硬直性和 特權 등 官僚主義的 問題를 惹起하고 있다.

이들 問題中에서도 가장 重要한 것은 共產主義 이데올로기가 표방하고 있는 平等主義를 官僚組織이나 그 階層制原理의 要求와 어떻게 調和시키느냐의 問題이다. 命令體系와 位階秩序는 根本的으로 平等과 兩立할 수 없다. 官僚의 充員에 있어서

도 문제가提起된다. 業務의 能率을 위해서는 專門性이 重要視되지 않을 수 없지만, 革命이데올로기의 獻身을 위하여서는 党性이 重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党性과 專門性을 어떻게 調和시켜 充員의 基準으로 삼을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中共의 <文化大革命>過程에서 격돌한 紅(이데올로기)과 專(技術)의 對立問題가 바로 이것이다.

다른 한편 蘇聯의 官僚主義는 그 機能과 範圍에서 방대한 膨脹 현상이 나타났다는 點에 문제가 있다. 蘇聯官僚主義는 모든 組織, 制度, 集團農場, 그리고 個人에 이르기까지 連結되어 있다. 그 結果, 黨에서 下達되는 指示를 處理하기 위하여 새로운 機構를 만들어서 그날 그날 임기응변적으로 對處하려는 傾向이 國家機關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狀況이 官僚主義의 逆機能으로 作用하여 結局 地方에 있는 末端部署에서는 報告거리를 줄이기 위하여 計劃 그 自體를 縮小하는 現象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中央의 措處는 強力한 處罰制度 登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處罰은 官僚들의 能率과 士氣에까지 決定的인 影響을 미쳤다. 여기에서 黨中央이 當面하게 되는 問題는 國家官僚制에 있어서 能率과 政治的 忠誠을 어떻게 同時에 調和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의 圓滑한 解決은 결코 容易한 일이 아니다.

蘇聯에 있어 黨 官僚主義는 體制維持를 위하여 決定的인 役割을 한다. 스탈린 治下에서는 黨 官僚는 常勤黨員으로 構成되었고 繼續 그 規模가 膨脹하여 중대한 問題로 되었다. 스탈린 死亡 후에는 聯邦黨幹部會의 少數集團이 黨의 統制權을 掌握하고 獨裁權을 행사했으며, 黨 官僚는 더욱 重要的 役割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소비에트 體制의 理解를 위하여서는 獨裁者의 參謀인 中間指導者들의 役割을 把握하는 것이 必要하다. 中間指導者들의 役割은 共產主義體制의 獨特한 特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黨 官僚들은 歷史上 傳統的인 支配階級の 特權的인 存在와 本質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그리하여 새로운 支配階級이 誕生된 것이다.

獨裁者의 參謀인 <아파라즈키>의 特性으로서, ① 官僚主義的이며 ② 封建的이며 ③ 寡頭的이며 그리고 ④ 戰鬪的이라는 네가지 要素를 들 수 있다.

첫째로 官僚主義의 要素는 全體主義的인 共產黨獨裁의 顯著한 特徵이다. 특히, 共

産黨組織은 位階秩序로 構造化된 政治機構이며, 有能한 黨 官僚의 存在는 獨裁者의 不可缺한 政治的 參謀로 된다.

둘째로 封建的 特徵은 獨裁者에게 盲從하는 地方組織의 長에게 權限을 委任하는 制度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마치 封建家臣과 같이 全國적으로 擴散되어 있고, 黨 中央에서는 秘密警察과 같은 中樞組織을 통해서 統制한다. 이들 參謀는 價値配分에 參與하고 獨裁權의 繼續的인 維持를 위하여 모든 努力을 다한다.

셋째로 寡頭的이라는 特性을 들 수 있다. 政治參謀役割을 하는 共產主義 官僚들은 지나친 人氣나 追從勢力을 組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全體主義的 獨裁者는 그의 獨裁權에의 挑戰을 추호도 容納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機能은 獨裁者와 大衆과의 必要한 接觸을 매개하는 데 그쳐야 한다. 結局 党内 幹部間, 또는 幹部와 黨員間에 있어서 <民主主義>는 아예 適用될 餘地가 없으며 어디까지나 寡頭的 性格을 띤다.

네째로 이데올로기의 革命的 性格으로 보아 指導力이 戰鬪的이라는 데 特徵이 있다. 이들 中間指導者는 <共產主義社會>라든 最終目標를 達成키 위한 鬪爭에서 中心的인 役割을 해야 하며, 政權의 心理的 政治的 目標의 遂行을 위하여 모든 抵抗을 粉碎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地方에서건 中央에서건 간에 指導者로 昇進하는 것은 이와 같은 鬪爭의 公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黨과 政府에서 竝行되고 있는 官僚化는 다음과 같은 逆機能을 일으킨다. 즉
 ① 政府에의 權力集中은 黨 機能에 의하여 挑戰을 받게 된다. ② 各種의 政府官吏의 機能이 黨 官僚의 機能과 相衝되게 된다. ③ 政府에서의 充員과 昇進이 專門知識보다도 黨性에 依하여 左右된다. ④ 政府의 目標設定이 革命思想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⑤ 行政府의 機密이 黨에 누설되는 등 否定的인 影響이 나타날 때 이 影響을 除去하기 위하여서는 逆으로 肅清을 단행한다.

한편, 새로운 特權 黨 官僚 階級이 形成되어 不平等의 要因으로 되고 있다. 한 때 유고의 副統領이었던 질라스가 黨僚階級만이 아니라 蘇聯社會 全般에 나타난 特權的인 <새로운 階級>의 出現을 問題視한 것도 바로 이러한 理由에서였다.



第3章 蘇聯共產主義의 그 變化過程

目 次

第1節 動員政權으로서의 蘇聯共產主義	55
第2節 蘇聯共產主義 體制的 樹立	56
-레닌의 初期 動員政權-	
1. 레닌의 前衛黨 理論	
2. 레닌의 帝國主義論	
3. 新經濟政策 (NEP) 路線의 採擇	
4. 世界革命의 基地化	
第3節 全體主義的 動員體制的 確立	62
-스탈린의 動員政權-	
1. 스탈린의 一國社會主義論	
2. 恐怖政治	
3. 農業集團化와 工業化	
4. 소비에트帝國의 建設과 共產主義의 戰略 戰術	
5. 個人 偶像化	
第4節 後期 動員體制에로의 轉換	72
-호루시초프의 改革路線-	
1. 스탈린 格下運動	
2. 平和共存論	
3. 中·蘇 紛爭	
4. 全人民의 國家論	
第5節 오늘의 蘇聯	77
-브레즈네프 政權의 準動員體制-	
1. 對內的 問題	
2. 對外的 問題	



第 1 節 動員政權으로서의 蘇聯共產主義

共產主義革命史를 通觀해 보면, 共産黨이 政權을 奪取하거나, 政權奪取後에 體制를 維持하고자 할 때는 으레히 철저한 經濟·社會的 變革計劃을 提示하면서 終局的으로 階級없는 社會를 建設하겠다는 口號를 내건다. 共產主義者들은 그들이 口號로 標榜하는 階級없는 社會란 豊요하고, 搾取도 없으며, 強制도 없는 社會라고 主張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볼셰비키 革命을 위시하여 共產主義革命을 수행한 여러나라의 共産黨들은 階級構造, 經濟制度, 그리고 諸般 社會的 價値의 變革을 前提로 하여 새로운 全體主義 體制를 樹立했으며 強力한 權力의 集中制를 採擇하였다. 즉, 共產主義 政治體制는 모든 政府機關, 社會團體, 情報媒體를 共産黨政權이 完全 獨占하는 一黨體制를 確立하고 形式的인 合法節次를 거쳐 國家權力을 無制限 行使하는 一黨獨裁政治이다. 이러한 性格은 一黨體制的 強行을 繼續 하면서 大衆을 政治的으로 動員하는 이른바 <動員政權>으로 유도한다.

여기에서 動員政權이란 開發途上國들이 近代化를 指向하는 過程에서 ① 特定少數集團의 輿論이나 利益보다는 大衆의 輿論과 利益을 標榜하는 政權을 말하기도 하고 ② 한 國家가 外部의 侵略으로부터 自國을 防禦하기 위하여 必要에 따라 大衆을 動員하는 政權을 指稱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共產主義의 動員政權은 全體主義的 動員政權이다. 이것은 共產主義 革命이데올로기와 終末論的인 社會를 實現하겠다는 口實下에 政權維持라는 政治目的을 위하여 大衆을 動員하는 體制를 意味한다. 여기서 蘇聯共產主義體制가 動員體制라고 하는 것은 共産黨이 정한 目標를 達成하기 위함이며, 社會의 人的 物的 資源을 總動員하는 것을 말하며, 結果的으로 人民의 自發的 支持를 缺如하고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로웬탈(R. Loewenthal)이 指摘하는 開發獨裁, 그리고 터커(Robert C. Tucker)가 指摘하는 <革命的 大衆運動政權>과도 相通하는 것이다.

回顧컨대, 이러한 共產主義 動員政權의 효시는 러시아 볼셰비키革命後 土地改革과 工業化 政策에서부터 비롯된다. 스탈린政權에 이르러 動員의 方式은 恐怖政治

와 테러에 의존함으로써全體主義的 動員政權으로 變質되었다. 흐루시초프에 이르러서는 스탈린式的 全體主義的 方法을 緩和함으로써 소비에트政權은 점차로 後期 動員政權의 性格을 띠게 되었다. 그 후 브레즈네프時代에 들어와서 다시 스탈린主義的 方式에 復歸하려 하였으나 스탈린時代와는 다른 時代狀況的인 制約과 環境的인 影響때문에 스탈린과 흐루시초프政權의 中間的인 性格을 띤 <準動員政權>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歷史的인 視角에 焦點을 두고 蘇聯의 動員體制를 考察해 본다면, 어느 政權이든 實現不可能한 理想論的인 目標을 時代的 狀況에 알맞게 適應시키면서 政權의 安定·維持·強化를 目的으로 大衆을 政治的으로 動員한다는 共通點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으로 職業革命家로 構成된 前衛黨에 관한 理論 및 그 動機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동시에 레닌의 帝國主義, 新經濟政策, 그리고 世界赤化를 위한 革命基地로 蘇聯을 構築하려 했던 戰略 戰術에 관하여 分析해 보기로 하자.

第 2 節 蘇聯共產主義 體制的 樹立

- 레닌의 初期 動員政權 -

1. 레닌의 前衛黨 理論

레닌의 黨 理論은 舊러시아의 急進的 思想家들의 主張의 複寫版이라 해도 過言은 아니다. 19世紀 中葉부터 러시아에는 짜리의 專制政治에 不滿을 품고 暴力으로 짜리政權을 崩壞시키려는 과격한 革命運動이 일어났다.

이러한 革命運動의 精神的 指導者로서 게르첸, 바쿠닌, 체르누셴스키 등이 등장했다. 게르첸은 짜리 帝政의 破壞를 主張한 最初의 社會主義者의 한사람이었다. 체르누셴스키는 러시아 社會制度의 改革을 主張하면서 知識層의 使命은 農民大衆을 教育시키는 것이라고 強調했다. 이들의 思想은 知識層과 大學生들 사이에서 1860年代 末과 1870年代初에 과급된 나로드니키 (Narodniki) 運動, 일종의 農

村社會主義大衆運動에 커다란 影響을 주었다. 이 運動에 參與했던 사람들을 民衆主義者 (Populists) 라고 부른다. 이들은 後日 두派로 分裂되었는데 그 하나는 革命에 先行하여 農民들 사이에다 敎育과 宣傳活動을 펴야한다고 主張한 穩健派였고, 다른 하나는 直接行動과 당장의 革命을 호소한 過激派였다.

이에 따라 革命의 氣運이 점차 무르익어 갔고 革命戰略에 관한 具體的인 理論들이 나타났다. 그 代表的인 理論家로서 레닌에 특히 影響을 준 사람들은 프카체프 (P.N. Tkachev) 와 네차예프 (S.G. Nechaev) 였다. 프카체프는 1876年 <革命과 國家>라는 著書를 통하여 少數陰謀家들의 <위로부터의 革命>으로 權力을 掌握하고 <社會主義>를 實現할 것을 主張하였다. 네차예프 역시 小規模의 <變革的 細胞組織>으로 革命을 敢行해야 한다는 主張을 내세웠고, 「革命을 돕는 行爲는 道德的이요, 革命을 沮害하는 行爲는 不道德하다」라고 말함으로써 既存의 倫理觀을 철저히 부정하였다. 이들은 모두 러시아의 資本主義發展의 可能性을 否認하고, 傳統的인 <農村共同體> (Mir) 를 기초로 하여 社會主義에 도달할 수 있다고 主張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마르크스主義思想이 러시아에 流入되면서 나로드니키 主義와 충돌하게 되었다. 마르크스主義는 初期에 바쿠닌과 게르첸 같은 사람들에 의해 공격을 받았으나 점차 그 影響이 擴大되었고, 특히 <러시아 마르크스主義의 아버지>로 알려진 블레하노프 같은 사람들에 의해 理論이 보급되었다. 레닌主義는 바로 러시아 革命思想의 傳統과 마르크스主義의 接木으로서 러시아의 急進的인 인텔리겐차 사이에 뿌리를 내렸던 것이다.

레닌의 黨 理論은 1902年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記述되었다. 그에 의하면, 黨은 <강철같은 紀律을 가진 少數職業革命家>로 構成되어야 하고, 民主的 中央集權制를 指導原理로 하는 前衛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階級の 自生的 革命論을 主張한 것과는 對照적으로 레닌은 革命意識에 투철한 少數의 엘리트들이 勞動者大衆에게 革命意識을 불어 넣어야 <프롤레타리아革命>이 可能하다는 理論을 提示하고 있다.

레닌은 또 黨을 誤謬를 犯하지 않는 地位에까지 높였고 「革命遂行에 있어서 決

定的인 要素는 秘密의 嚴守」라고 強調하였다. 그는 그후 다시 黨 理論을 發展시키는 가운데 党性을 특히 強調했다. 그에 의하면, 「黨은 勞動階級の 利益을 가장 잘 代表하며, 프롤레타리아階級の 前衛요, 人類를 社會主義와 共產主義에 이끌고 갈 가장 進步的인 革命的 組織이다. 또한 黨은 마르크스主義理論으로 武装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主義를 守護하고 發展시키는 使命을 擔當하고 있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革命을 위해서는 黨에 끝까지 服從해야 하며, 黨의 指導를 떠난 革命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레닌의 黨 理論은 마르크스와 對立되는 立場에 서게 되었다. 즉,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 革命의 客觀的인 條件이 成熟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이른바 歷史決定論을 主張한 反面, 레닌은 黨이 客觀的인 革命的 條件이 成熟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少數의 職業革命家가 大衆에게 革命意識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위로부터의 革命을 主張하였다.

이와 같이 黨의 指導力을 強調한 레닌의 엘리트 理論은 1905年 第3次 러시아 社會民主勞動黨(볼셰비키) 大會에서 公式的으로 採擇되었다. 1917年에 出版한 <國家와 革命>에서 레닌이 프롤레타리아트 獨裁의 必要性을 論할 때 마르크스보다 더 暴力主義를 強調하였다. 레닌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트階級이 政權을 奪取함으로써 階級鬭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鬭爭이 強化되며, 資本家들의 反抗을 抑壓하고 私有財産을 撤廢하여 社會主義的 改造를 樹立할 때까지 黨은 階級鬭爭을 徹底히 指導해야 한다고 強調했다. 이와 같은 레닌의 理論은 後日 共產主義者들이 政權奪取後에도 黨은 繼續 權力을 維持해야 한다는 名分을 合理化시키는 論據로 利用되었다.

2. 레닌의 帝國主義論

레닌은 그의 著書 <帝國主義—資本主義의 最高段階>에서, 帝國主義時代의 社會主義革命論을 定式化하려고 시도했다. 그에 의하면, 「帝國主義란 資本主義의 最高段階요, 帝國主義는 資本主義의 모든 矛盾을 격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資本主義下에서의 生産의 社會的 性格과 生産物의 私的 所有 사이의 矛盾에 의거

하여 帝國主義의 矛盾을 分析했다. 레닌에 있어서 帝國主義는 곧 <最高段階의 資本主義>, 즉 <獨占資本主義>다. 獨占資本主義下에서는 獨占資本家들은 後進地域에 다 商品輸出以外에도 資本輸出을 통해 最大限의 利潤을 獲得하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帝國主義時期에는 商品市場과 原料供給地로서의 植民地獲得에 狂奔하며, 그 結果로 이미 分割된 世界의 再分割을 둘러싸고 各個의 帝國主義國家間 또는 國家群間에 對立이 尖銳化되며, 이것은 帝國主義戰爭의 發生原因으로 된다는 것이다. 한편, 植民地從屬國의 民族들은 抑壓과 收奪에 反抗하게 되므로 자연 帝國主義國家와 植民地 또는 半植民地國家와의 對立도 격화될 수 밖에 없다고 레닌은 分析하였다.

여기서부터 그는 社會主義革命은 동시에 모든 國家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帝國主義의 矛盾에 의하여 가장 弱화된 한 나라, 또는 몇나라에서 먼저 일어나 勝利할 수 있다는 結論을 끌어냈다. 이러한 主張에 基礎를 두고 後日 스탈린은 한 나라 만으로도 社會主義를 建設할 수 있다는 <一國社會主義>論을 展開하였고 흐루시초프도 레닌의 帝國主義論에 의거, 平和共存論을 展開했다.

레닌의 帝國主義論은 1919年 코민테른 創設과 더불어 소련을 世界革命의 基地로 構築하는데 그대로 適用되었다. 1919年 그는 이미 成功한 소비에트政權은 世界帝國主義와 더불어 共存할 수 없다고 言明하고, 다시 1920년에는, 「資本主義가 社會主義와 나란히 存在하는 限 우리는 오랫동안 平和속에서 살 수 없으며, 戰爭은 不可避하다」고 宣言했다.

3. 新經濟政策 (NEP) 路線의 採擇

존슨 (Chalmers Johnson)은 소련의 體制變化를 文化的인 側面에 照明하여 <轉移文化>라는 概念을 使用하면서 動員의 目標을 다음과 같이 提示하였다. 즉, 共産黨과 黨 指導者의 權力獨占, 軍事力增強을 위한 重工業建設, 農業集團化, 生産施設의 國有化, 消費者의 權利와 市場의 除去, 그리고 有能한 技術人力의 訓練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目標을 達成하는 過程에서 많은 人命의 犧牲을 招來하

게 된다고指摘한 바 있다. 레닌의 <新經濟政策>路線, 역시 그 例外는 아니었다. 10月革命直後 1917~'18年 期間中 地主들의 土地를 沒收, 國有化하여 獨立農家에 分割해 준 政策은 農民에 對한 一時的인 讓步였다. 그러나 內亂이 緊迫하고 있다는 조짐이 보이자 소비에트當局은 農民의 欲求를 無視한 채 마구 穀物을 徵發하는 이른바, <戰時共產主義> 政策을 斷行했다. 레닌이 構想해 낸 이 政策은 破綻한 러시아의 經濟속에서 必要한 食糧과 工產品을 搾取하는 臨時方便으로서 法制化되었다. 레닌의 이 무자비한 措置는 1917年의 約束과는 달리 勞動者의 自治的인 工場運營을 급격히 減少시켰고, 大部分의 工業經濟는 國有化되어 黨과 소비에트機構의 獨裁的인 方法에 의하여 統制되었다. 結局 計劃經濟로서의 戰時共產主義는 크게 失敗하고 말았다.

內亂과 과격한 社會主義政策에 따른 經濟破綻은, 工業生産의 懸隔한 減退라는 失策은 차치하고라도, 가장 심각한 食糧問題를 야기시켰다. 戰時共產主義 體制下에서 政府는 勞動者 食糧購買團과 食糧 徵發隊를 組織하여 全國에 派遣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方法으로 食糧의 徵收는 늘어났지만 農民들의 不滿과 疎外感은 점차 누적되어 급기야는 政權의 유지까지 威脅하는 農民蜂起와 暴動이 到處에서 일어났다. 이와 더불어 數百萬名이 饑餓로 인한 疾病으로 쓰러져 갔다. 예컨대 1921年 3月 발틱海上의 크론슈타트(Kronstadt)섬에서 水兵 1萬名과 住民들이 合勢하여 일으켰던 大規模의 반란인 이른바 <크론슈타트暴動>이 그 代表的인 것이다.

事情이 이처럼 급박해지는데 편승하여 멘셰비키와 <社會革命黨>이 1921年初부터 소비에트政權의 打倒를 내걸고 戰時共產主義에 항거하자, 레닌은 1921年 3月 제 10次 黨大會에서 新經濟政策을 採擇하였다.

新經濟政策은 既存의 食糧強制徵收政策을 廢止하고 그 대신 生産物의 一部를 稅金으로 政府에 公출하는 方式을 擇했고 또 市場販賣도 許容함으로써 農民의 生産意慾을 크게 昂揚시켰다. 그러나 重工業은 그대로 政府의 手中에 놓아 두었다. 重工業을 政府가 掌握한 理由는 重工業의 國家管理를 통하여 소련을 強力한 工業國家로 建設하려는 意圖와 또한 그에 따르는 戰時動員體制로서의 基盤을 構築하려는

現實的인 意圖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4. 世界革命의 基地化

소련이 世界革命의 基地 또는 司令部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일찍부터 레닌에 의해서 暗示되었고 또 重工業 優先主義 政策에서도 明白히 노출되고 있다.

레닌과 볼셰비키들은 1次大戰으로 인한 歐羅巴의 資本主義諸國의 混亂은 곧 그곳에서 프롤레타리아革命의 勝利를 몰고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이들 諸國으로 부터 支援을 받을 것이라는 希望에 사로잡혀 있었다. 레닌이 1918年 4月 러시아는 革命에 成功한 西方國家들이 支援해 줄 때까지 지탱하지 못하는 限, 滅亡할 것이라고 實吐한 事實에서도 이것은 잘 立證되고 있다.

한편, 戰爭後 西歐에서 共産黨이 組織되고 핀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에서는 한 때 소비에트政權이 首都에서 樹立되기도 하였고, 獨逸에서는 프롤레타리아革命이 試圖되기도 하였다. 이에 레닌과 볼셰비키指導者들은 國際勞動階級의 革命的 意慾을 刺戟하고 나아가서는 프롤레타리아革命을 誘導할 世界的 機構의 組織에 着手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1919年 3月 모스크바에서 創立된 제3인터내셔널 즉 코민테른 (Communist International = COMINTERN)이다.

그러나 國際共產主義運動의 母體로서의 코민테른은 점차 變質하여 世界革命의 名分을 잃고 實際적으로는 소련共産黨의 外廓組織으로서 소련의 影響力을 對外的으로 膨脹시키는 道具에 불과했다. 코민테른의 戰略 戰術은 곧 레닌의 世界赤化革命을 위한 戰略 戰術과 一致하는 것이었다.

원래 마르크스主義에서 말하는 戰略이란, 스탈린이 定義한 바에 따르면, 「각기의 革命段階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階級의 主要攻擊方向을 決定하며, 革命的 諸勢力을 最善의 計劃으로 配置하고, 각기의 革命段階의 全期間中에 完全히 遂行하려는 活動目標이다. 戰術이란 干滿의 差와 같이 革命段階의 每時期에 따라 戰略的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戰鬥方法과 行動指針을 말한다.」

레닌은 이러한, 戰術的 方式에 입각하여 歐美社會에서는 社會底邊의 勞働者階層에 浸透하여 階級的 對立과 矛盾을 利用하는 한편, 아시아地域을 中心으로 한 植民地·半植民地 地域에서는 民族的인 對立과 矛盾을 利用하여 共產化를 試圖하였다. 즉 各國의 民族主義勢力에 接近하여 그들을 包攝하고 그들로부터 西歐帝國主義에 打撃을 가하게 함으로써 西歐列強을 外部로부터 약화시키는 동시에 各國의 民族主義勢力 内部에 共產主義者들을 浸透시켜 이것을 段階的으로 共產主義 勢力으로 變質시켜 나가는 戰略을 驅使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統一戰線을 중심으로 한 戰略 戰術의 構想은 1922年 코민테른 第4次大會에서 定式化되었다.

그러나 東歐를 주요대상으로 하여 革命을 促進시키려던 統一戰線戰術이 挫折되자, 레닌과 코민테른은 西歐帝國主義의 東方經濟要塞를 粉碎하지 않고는 西歐帝國主義를 打倒할 수 없을 것이라는 判斷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 主攻擊의 方向을 동쪽으로 선회시켜 코민테른 極東支部를 創設하면서 東方迂迴戰略을 擇했다. 戰術的으로는 <反帝民族主義>를 代表하는 民族資本가와 共產黨과의 戰術的 提携를 통하여 <民族解放鬪爭>을 展開하고 그속에서 <프롤레타리아革命>에 必要한 與件을 造成하려 했다.

오늘날 共產主義革命의 모든 段階에서 反帝鬪爭을 표방하고, 民族資本가와 統一戰線 形成을 提唱하는 共產主義의 戰術은 바로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第3節 全體主義的 動員體制的 確立

- 스탈린의 動員政權 -

30年間に 걸친 前代未聞의 獨裁者 스탈린의 執權期는 한마디로 全體主義的 動員體制的 時期였다. 1人獨裁體制와 個人偶像의 극치에 달했던 스탈린의 全體主義體制는 農業集團化와 工業化를 위하여 테러의 恐怖政治로 무려 1千萬名 以上의 人命을 犧牲시킨 典型的인 動員政權이었다.

1. 스탈린의 一國社會主義論

社會主義 建設이 한나라만에서도 가능하다는 一國社會主義論은 레닌의 論理에서 끌어낸 發想이었다. 레닌은 그의 <帝國主義論>을 展開할 때 그 核心으로서 資本主義發展의 不均等의 法則을 提示했다. 그에 의하면, 「資本主義의 不均等發展은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帝國主義時代에는 더욱 急速히 進行하여 經濟적으로 뒤떨어졌던 資本主義 나라가 先進的인 資本主義國家를 따라 잡고 앞서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는 帝國主義時代는 科學技術이 미증유의 速度로서 高度로 發達한 時代인데, 그 成果를 導入함으로써, 뒤떨어졌던 企業이나 産業部門이 飛躍적으로 發展하게 된다. 그리하여 帝國主義列強의 發展도 均衡을 維持하면서 일단 정해진 順序대로 進行되는 것이 아니라 順序를 바꾸어 어떤 나라는 飛躍적으로 發展하고, 어떤 나라는 느린 速度로 發展하거나, 發展을 中止한다. 이때에 한 때 앞서갔던 帝國主義國家는 過去에 獲得한 地盤을 그대로 維持하려 하고, 急速히 發展하고 있는 新興帝國主義國家는 새로운 基盤을 차지하려는데서 결국 帝國主義國家間的 武力 衝突이 不可避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즉, 레닌은 資本主義의 不均等發展法則으로부터 帝國主義戰爭의 必然性을 導出했던 것이다. 또한 그는 帝國主義戰爭의 結果 어떤 帝國主義國家(敗戰國)는 弱화되어 革命의 절호의 機會가 도래한다고 예견했다. 왜냐하면, 戰爭에 의한 弱화나 敗戰은 革命運動을 彈壓할 힘을 喪失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資本主義의 發展도와는 關係없이 社會主義革命이 勝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레닌은 戰爭에 의하여 철저히 弱화된 나라를 世界帝國主義戰線의 가장 弱한 고리(帝政러시아 같은 나라)라고 불렀고, 이 <고리>에서 프롤레타리아革命이 勝利함으로써 世界帝國主義戰線은 격파된다고 豫見했던 것이다. 그러나 一國 또는 數個國에서의 社會主義革命의 勝利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 나라에서 勝利한 프롤레타리아階級은 資本家를 收奪하고 社會主義經濟를 組織한 뒤, 다른 나라 被壓迫階級과 合勢下에 그나라 資本家를 打倒하기 위한 반란을 일으키고, 必要하다면 武力으로서 資本主義世界를 相對로 싸워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資本主義의 不均等發展法則으로부터 理論化한 러시아 一國 社會主義建設

論의 骨子다.

레닌이 그의 <帝國主義論>을 展開할 때 資本主義의 不均衡發展法則을 發見하고, 資本主義의 不均衡 發展은 帝國主義 時代에는 더욱 急速히 進行되어 後進帝國主義 國家가 先進的 帝國主義 國家를 經濟적으로 따라 잡고 앞서게 됨으로써 帝國主義 戰爭이 일어난다는 根據를 把握했던 것이다. 그리고 敗戰의 結果로 弱화된 나라, 즉 「世界 帝國主義 戰線의 약한 고리에서 革命이 發生할 수 있다」는 結論을 내렸다.

스탈린은 바로 이러한 內容을 자기의 <一國社會主義論>에 適用했던 것이다. 즉, 「프롤레타리아階級은 特定한 나라에서 權力을 掌握할 수는 있어도 바로 그 나라에서 社會主義經濟를 創造할 수는 없다. 한 나라의 努力만으로 資本家階級을 충분히 殲滅할 수는 있지만 社會主義의 最終的인 勝利를 위해서는, 즉 社會主義的 生産을 組織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만의 특히 러시아와 같은 農業國의 努力만으로는 불충분하다. 社會主義가 最終적으로 勝利하기 위해서는 몇몇 先進國의 프롤레타리아階級の 努力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스탈린의 이 命題는 實際로 트로츠키가 마르크스에서 傳受받아 러시아 革命에 適用했던 <永久革命>論에 대하여 戰略的인 鬪爭目標으로써 제시한 代案이었다. <永久革命>論에 따르면, 「러시아革命은 資本家階級の 民主主義的 反封建革命으로부터 必然적으로 프롤레타리아階級の 社會主義 革命으로 轉化하지 않을 수 없다. 革命이 비록 마르크스見解와는 달리 後進國인 러시아에서 成功하여 프롤레타리아階級이 權力을 掌握하는 경우 러시아 한 나라만으로 革命을 守護할 수 없다.」

요컨대 트로츠키에 의하면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階級은 西歐 先進國의 프롤레타리아革命에 의해 支援을 받아야만이 社會主義革命은 勝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階級은 러시아革命이 <世界革命>의 序曲이 되도록 意識적으로 努力할 것을 呼訴했다. 이것이 트로츠키의 <永久革命>論 또는 <世界革命>論이다. 이러한 스탈린과 트로츠키의 主張사이에는, 初期에는 큰 差異를 發見할 수 없었다.

그런데 트로츠키가 主張하는 바와 같은 프롤레타리아革命이 西歐에서 일어나지 못하면 결국 러시아革命은 失敗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論理는 러시아 革命勢力들로 하여금 懷疑心을 품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스탈린은 傑出한 理論家들의 辨證法的인 말보다는 20~30代의 젊은 共產主義者들에게 呼訴力이 있는 現實的인 目標들을 제시해야 했다. 그리고 그는 一國社會主義論을 修正하여 社會主義 建設은 一國에서만도 가능하다는 것을 主張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스탈린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은 러시아의 農民들이 私有財産과 土地에 대한 강한 愛着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問題를 處理하는데 있어 가장 效果的인 方法은 國家의 干涉이었다. 즉 國家가 強權을 發動하여 社會主義를 實現하는데 障礙가 되는 農民들을 強制로 集團化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農業 集團化를 基礎로 하여 러시아의 工業化를 促進할 때 社會主義는 보다 빠르게 實現될 것이고 아울러 現在의 農民問題도 解決시킬 수 있다는 二重의 目的을 스탈린은 臆하고 있었다. 이러한 方法은 마르크스主義의 正統的 理論과 배치되는 것이었으나 러시아의 現實로서는 不可避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判斷이 스탈린으로 하여금 一國社會主義를 強行 시켰던 것이며, 이로써 스탈린의 最初의 理論이요 政策인 一國社會主義論은 바로 테러에 依存하는 強制動員의 信號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恐怖政治

秘密警察을 強化하고, 情報를 獨占하면서 소비에트政權과 스탈린 個人에 대한 忠誠을 強要하기 위하여 시작된 恐怖政治는 이미 널리 알려진 事實이다.

恐怖政治의 象徴인 警察機構는 內務省, 國家保安省(이 機構는 內務省內에 設置되는 경우도 있고 獨立的으로 運營되기도 함), 內務省內의 特別委員會 등으로 區別할 수 있다. 國家保安省은 政權安定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索出하여 調查하는 任務를 全擔하는 機關이다.

內務省의 特別委員會는 法律에 의해 設置된 機構로서 國家保安省이 被疑者自白調書を 보내면 이를 처리하는 任務를 띠고 있다. 이 機構의 審理過程은 非公開며, 法律上 權利로 規定되고 있는 辯護士 選任權利마저도 認定하지 않는다. 또한 刑事訴訟의 節次規程을 遵守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스탈린 治下의 秘密警察은 內務省과 必要에 따라서는 別個의 保安機構로서 組織되어 막강한 權力을 行使했다. 이것들은 內務省의 組織的인 統制를 받으면서 地域的으로 組織되었으며, 이들의 行政權限은 蘇聯邦檢察總長이 保障함으로써 地方黨幹部도 손을 댈 수 없는 特權的 地位를 누렸다.

이와 더불어 共產黨은 宣傳, 煽動手段을 完全히 獨占, 統制하면서 黨員들로 하여금 大衆을 - 思想的으로 劃一化시키는 教育을 실시하고 政府施策과 恐怖政治를 合理化시키는 作業을 展開했다. 특히, 黨員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偏向을 防止하기 위해 <自我批判>을 실시하여 이들을 가차없이 肅清했다. 스탈린은 <自我批判>이야말로 「볼셰비키 兵器倉庫에 없어서는 안될 武器로서 黨의 精神을 昂揚하고 소비에트 政權을 強化하는데 使用해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를 중요시했다.

이러한 恐怖政治의 結果로 나타난 것이 곧 테러와 肅清이었다.

스탈린 執權時의 大肅清은 스탈린의 政敵을 包含하여 數百萬의 關聯者들을 희생시켰다.

大肅清은 1935~'38년에 일어났는데 그 發端은 有能한 共產主義者며 레닌그라드 黨 書記인 키로프 (Kirov)의 暗殺에서 부터 시작된다. 1934年 12月 1일에 일어난 이 暗殺事件은 逮捕, 審問, 處刑의 連鎖的인 反應을 일으켰으며, 1937年과 1938년에는 일련의 肅清이 絶頂에 달했다.

당시의 공식적인 發表에 따르면, 키로프의 殺害는 海外에서 조종하는 한 秘密 組織의 指令에 따라 트로츠키派의 한 學生에 의해 저질러 졌다고 하였으며, 이 組織은 스탈린과 즈다노프 (Zhdanov)를 包含한 黨 核心要員의 暗殺도 計劃했다고 한다.

키로프 暗殺에 關聯된 嫌疑者들에 대한 特別裁判의 예를 보면, 카메네프와 지노

비에프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에 關聯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直接的인 關聯이 없음이 判明되자 지노비에프에게는 重勞動 10年刑이, 카메네프에게는 5年刑이 각각 言渡되었다. 레닌그라드에서는 수만명이 시베리아의 流刑길로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후 表面上으로는 平和가 회복된 것 같았으나 肅清은 繼續 비밀리에 進行되었으며 1936~'37년에는 이른바 裁判놀음이라고 불리는 기괴한 裁判이 大대의으로 열렸다. 특히 1936年 6月 24日의 첫 裁判놀음에서는 레닌의 革命동지 지노비에프와 카메네프를 포함한 被告들 全員이 死刑宣告를 받았고, 바로 이튿날 處刑되고 말았다.

大肅清期間中 逮捕된 容疑者들을 보면 과거 스탈린의 反對派였던 트로츠키, 지노비에프, 부하린의 追從者들, 그리고 前 멘셰비키 및 社會革命黨員들, 無政府主義者, 유대인 社會主義者, 海外勤務黨員들이 대부분이었다.

肅清中에 희생된 사람은 대체로 1千萬名을 헤아린다는 것이 世界的으로 공인되고 있는 一般的인 見解이다.

3. 農業集團화와 工業化

農業集團화와 방대한 重工業建設計劃의 草案이 1927年 12月 第15次 소련 共產黨大會에서 提出되었다. 1925~'27年の 農業政策은 부하린의 發想이었기 때문에 스탈린은 이를 自己式으로 바꾸려 했다. 당시의 狀況을 보면, 1928年은 都市民에게 供給해야 할 食糧이 200萬톤이나 부족한 實情이었고, 不足한 食糧을 外國에서 輸入코자 해도 購入할 外貨도 없는 形편이었다. 스탈린은 이러한 狀況에서 農業生産을 위한 集團化를 強行했다.

그 당시 소련에는 콜호즈(Kolkhoz)라고 부르는 集團農場이 있었다. 이 集團農場은 주로 大量的의 糧穀을 生産하며 家畜도 集團的으로 飼育했다. 또한 콜호즈보다는 集團化의 도가 높은 소브호즈(Sovkhoz)라 부르는 國營農場이 있었는데 여기에 속한 農民들은 일정한 俸給을 받고 있었다.

당시 대부분의 農民들은 糶호즈에 들어가기를 꺼리거나 拒否했다. 1929年の 경우, 불과 全體 農家口의 4.1%만이 이에 편입하였을 뿐이다. 이렇게 되자, 스탈린은 強權을 發動하여 糶호즈에 들어가기를 忌避하는 農民들을 無條件 強制로 追放하기 시작했다. 한편, 스탈린은 政府가 더 이상 트랙터와 콤바인을 生産할 수 없으며 또한 설령 더 生産한다 하더라도 많은 時間이 소요된다고 判斷하자, 「搾取 階級으로서의 富農을 말살한다」는 名分下에 일시에 그들의 土地와 財産을 沒收하고 反抗하는 자들은 處刑하거나 集團農場으로 強制로 移住시켰다. 이 過程에서 무려 百萬餘世帯가 被害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결과 상당수의 農家들이 強制로 集團農場에 들어 갔지만 農民의 離脱現象이 자주 일어나고, 政府의 지나친 強制穀物徵發에 反抗하여 穀物을 감추거나 훔치는 일이 茶飯事로 發生하게 되었다. 이에 스탈린은 1932年 以後 이들을 死刑으로 膺懲하는 對應措置를 취했다. 그리하여 1931年 集團화된 農家數는 全體의 52.7%에 달했으며 1936년에는 90%, 그리고 1940년에는 96.9%에 달했다. 이 集團化過程에서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무려 1千萬名에 이르는 人命이 處刑, 饑死, 過勞 등으로 희생되었던 것이다.

集團化에 必要한 農機械를 增産하는 問題는 重工業發展과 函數關係에 있었다. 第1次 5個年計劃의 一次的인 目標가 農業部門의 貯蓄을 動員하여 重工業을 育成하는데 있었다. 總投資額中 15%가 農業部門에, 41%가 重工業部門에 投資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重工業優先政策의 推進狀況을 잘 알 수 있다. 레닌과 마찬가지로 스탈린도 重工業의 育成을 통한 富國強兵策에 力點을 두었다. 이것은 그가 장차 世界를 赤化하겠다는 計劃과 直結되고 있었다. 第1次 5個年計劃의 成果는 미달된 部門이 많았다. 그러나 重工業生産은 2배 이상 增加시켰으며 특히 石炭, 石油, 電氣, 鐵鋼部門에서 적지 않은 成果를 올렸다.

計劃末期에는 技術者の 優待政策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效果가 없자, 다시 勞力搾取政策으로 轉換하였다. 그러던 중 하나의 奇蹟이 일어났다. 1935年 8月 스타하노프(Stakhanov)라는 한 鑛夫가, 日平均 6~7톤의 採炭量을 무려 17배나 되는 102톤으로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勞働者들의 生産性低下로 고

민하고 있던 스탈린은 이 奇蹟을 勞力動員의 促進劑로 利用하는 妙策을 마련했다. <스타하노프運動>이 바로 그것이다. 스탈린은 곧 1936年을 <스타하노프의 해>로 정하여 大大的인 慶祝式을 거행토록 했다.

이 運動은 生産增進을 위하여 實績賃金制度를 導入하였다. 일정한 기간은 기적이 기적을 낳는 連鎖反應의 效果를 얻음으로써 보리소프라는 사람은 무려 800톤이나 캐내는 新記錄을 세웠다고 宣傳했다. (당시 소련의 鑛夫 한사람이 하루 平均 6~7톤 정도 生産하고 있었고 獨逸의 루르炭鑛地方 鑛夫들 生産量은 16~17톤 정도였다.)

1次 5個年計劃에서 重工業優先政策에 대한 批判의 소리가 높아지자 第2次 5個年計劃(1933~'37)에서는 輕工業과 消費財工業을 약간 고려하여 推進했으나 實際로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다. 이는 두차례에 걸친 5個年 期間 동안의 工業生産 實績(表:參照)을 比較해 볼 때, 石炭과 銑鐵生産이 다같이 2倍의 實績을 보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重工業優先政策에는 變함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蘇聯의 工業生産 (1928-1937)

<表>

(單位: 1百萬噸)

區 分	1927~1928	1932(1次終了)	1937(2次終了)
石 炭	35.0	64.0	128.0
石 油	11.7	21.4	28.5
鐵 鋼	6.7	12.1	17.7
銑 鐵	3.2	6.2	14.5
電 氣	5.0 (單位: 10億kw)	-	36.2

<出處>: Robert J. Osborn, The Evolution of Soviet Politics(Homewood, Ill.: The Dorsey Press, 1974), P.63.

4. 소비에트帝國의 建設과 共產主義의 戰略 戰術

스탈린의 戰略 戰術 概念은 2次大戰을 分岐點으로 하여 약간 변하였다. 즉 大戰前까지만 해도 革命的 輸出보다는 一國社會主義建設을 서두르면서, 資本主義 國家들이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混亂에 直面할 때는 人民戰線과 같은 政治 戰略에 입각하여 共產黨의 勢力을 擴張해 나가는 이른바 非暴力的 方法을 勸獎 했었다.

그러나 2次大戰이 終了될 무렵부터 스탈린의 戰略 戰術은 새로운 樣相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소련은 戰後의 힘의 空白期를 利用하여 그의 막강한 軍事力을 背景으로 東歐 8個國(유고슬라비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폴란드, 東獨), 外蒙古, 北韓 등의 占領地域에서 民主勢力, 民族主義勢力을 제거하면서 政權을 奪取하고 이 地域을 소비에트化하는데 成功하였다. 스탈린의 이러한 革命方式 내지 共產化戰略은 軍事的인 힘에다 政治的인 方式을 混用한 強制的인 方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스탈린이 東歐의 共產化를 위하여 새로 創案한 것이라기보다는 外蒙古의 共產政權 樹立에서 이미 얻은 經驗을 어느 程度 適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外蒙古의 共產化를 除外한다면, 30年代末까지 共產化工作은 各國에서 모두 失敗로 돌아갔다.

그러나 1939年 2次大戰의 勃發을 契機로 1940年 8月 발틱 3國(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軍事的 壓力에 의해 蘇聯邦에 合併시킨 事件을 起點으로 하여 스탈린의 大소비에트帝國建設 野慾은 불타기 시작했다. 2次大戰中인 1944년에는 발틱諸國과 마찬가지로 타누 투바(Tanu Tuva) 共和國을 蘇聯邦의 自治共和國으로 合併시켜 버렸다.

이러한 餘勢를 몰아 蘇聯은 武力을 背景으로 東歐를 소비에트化하기 시작했다. 北韓의 共產化作業도 바로 이 때 이루어졌던 것이다.

우리는 東歐의 共產化 戰略을 3段階로 類型化하여 分析할 수 있다. 第1段階는 <브르조아 民主主義革命>, 第2段階는 <人民民主主義革命>, 第3段階는 <社會主義革命>의 段階이다.

第1段階에서는 劣勢인 共産黨이 民主政黨들과 聯合戰線을 形成하여 聯立政府를 표방했고, 第2段階에서는 民主政黨들을 無力化시키고 偽裝된 聯合政府를 形成했으며, 마지막 段階에서는 偽裝된 假面을 벗어버리고 露骨的으로 奪權鬭爭을 무자비하게 展開함으로써 共産黨 一黨獨裁를 確立하여 소비에트化를 이룩했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이 公式대로 共産化된 것은 아니다. 이들 國家는 共産化의 과정에서 各國의 國內的 狀況에 따라 조금씩 다른 樣相을 보였다.

첫째,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는 共産黨이 指導하는 <人民解放戰線>이 나치 軍에 항거했으며 1944年 가을 解放과 더불어 政權을 獲得하고 즉시 소련을 모방한 共産政權을 樹立할 수 있었다. 엄밀한 意味에서, 이 두 나라는 소련軍의 直接介入에 의해 共産化된 것은 아니다.

둘째,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의 5個國은 內戰을 거치지 않고 소련軍이 進駐한 條件下에서 그 軍事力을 背景으로 위에서 열거한 3段階의 과정을 밟아 政權을 奪取했다.

셋째, 北韓은 소련이 이미 東歐에서 試驗하여 얻은 完璧한 共産化戰略의 經驗에 따라 곧바로 偽裝된 3段階를 거쳐 共産主義者들이 政權을 掌握하였다.

5. 個人 偶像化

스탈린의 偶像化, 즉 個人 崇拜은 마르크스의 原典에도 그 뿌리가 없는 病的인 行態로서, 정도의 差異는 있지만, 大部分의 共産黨指導者들이 末期에 試圖하는 遺傳病과 같은 것이 되었다.

스탈린의 個人 偶像化는 初期의 살벌한 權力鬭爭에서 勝利하고, 그후 모든 反對勢力을 마구 肅清하고, 1930年代 中반 <소비에트 愛國主義>를 부르짖으면서 復古的인 文化活動을 展開했을 때부터 그 徵兆가 보이기 始作했다. 이 運動은 30年代의 이데올로기의 變化라고 부를 정도로 映画 文學 教育 家庭生活 등의 分野에서 變化를 가져왔다. 즉 <愛國主義>를 표방하는 映画를 製作했고, 짜리

王政을 묘사한 오페라 音樂이 나왔으며 作家 도스토예프스키, 푸쉬킨이 다시 추대를 받았다. 짜리王政式의 軍隊가 復活되고, 家庭保護法이 통과되는 등 마치 舊러시아가 다시 살아나는 것같은 느낌이였다.

이와 같은 大大的인 文化改造作業과 더불어 이데올로기면에서도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 學說을 모두 스탈린主義의 尺度에서 再解釋함으로써 歷史를 歪曲하기 시작하였다. 所謂, 스탈린이 썼다는 1938年 9月の <蘇聯共產黨(볼셰비키)小史>라는 冊子가 바로 그것이다.

그후 스탈린은 소련의 權威있는 唯一無二한 歷史家, 文學家, 全能한 學者로 尊稱되었다. 모든 作品들은 「偉大한 스탈린의 말에 따르면」 하는 式으로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모든 思想과 榮光은 스탈린으로부터 출발하여 스탈린으로 돌아갔다. 소련의 人民은 恐怖와 눈물로 얼룩진 環境속에서 그들의 領導者를 찬양해야만 했다. 스탈린의 이러한 個人 崇拜의 作風에서는 당시 소련의 環境的 狀況과 製靴工에서 크레믈린의 權座에 오르기까지의 그의 鬪爭經歷, 그리고 그의 獨特한 個性 등 複合的 要因이 作用하였다고 볼 수 있다.

機能的인 觀點에서 보면, 個人偶像化의 強行은 大衆의 動員體制를 強化하는 完備한 強制모델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第 4 節 後期 動員體制에로의 轉換

- 흐루시초프의 改革路線 -

社會主義에 이르는 多樣한 길을 主唱하면서, 資本主義와 社會主義間의 平和共存을 標榜한 흐루시초프는 스탈린 格下運動과 더불어 스탈린式 恐怖政治를 公公然하게 부정함으로써 共產主義歷史에서 一大 轉換點을 마련하였다. 흐루시초프의 政策路線의 轉換은 처음부터 철저히 計算된 計劃的인 것이었으나, 後日 中·蘇 紛爭을 비롯하여 共產主義의 多元化 現象을 誘發시킨 結果를 가져왔다.

1. 스탈린 格下運動

殘忍했던 獨裁者 스탈린이 1953년에 死亡하자, 蘇聯國民들은 일단 安堵의 한숨은 쉬었지만, 또다시 스탈린과 같은 獨裁者가 出現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56年 2月 모스크바에서 열린 第20次 蘇聯 共產黨大會에서는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을 格下하는 秘密演說을 행함으로써 全世界를 놀라게 만들었다.

이 演說에서 스탈린의 殘忍性, 非人道性, 만행등을 공박하는 가운데, 흐루시초프는, 「個人 崇拜란 마르크스·레닌主義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것」이라고 非難하고 黨 指導를 1人支配體制에서 다시 集團指導體制로 還元하겠다고 言明했다. 그러나 흐루시초프는 權力鬭爭과정에서 3頭體制가운데 처음 베리야를 肅清하고 다시 軍部와 結託하여 말렌코프·모로토프를 몰아낸 다음 1人體制를 構築했다. 참으로 歷史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흐루시초프는 이 秘密演說에서, 理念과 實踐이 부합되는 諸般政策을 樹立하여 履行할 것이라고 公言했다. 이러한 公約에 따라 1956年 3月부터 6월까지 一例로 產母의 休暇延長, 集團農場 農夫에 대한 月生産 目標의 減少, 무서운 內務省內的 特別法廷의 解體, 前職 秘密警察 要員의 裁判, 勤勞者의 離職 및 職業選擇의 自由, 養老年金의 引上 등 많은 革新的인 政策들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格下運動은 計算된 캠페인에 불과했다.

2. 平和共存論

흐루시초프의 平和共存 路線의 採擇은 새로운 것이 아님은 앞서 레닌의 帝國主義論에서 이미 言及한 바 있다.

平和共存 路線은 第20次 黨 大會에서 公式化되었다.

흐루시초프가 黨 大會에서 平和共存과 關聯하여 發言한 內容을 보면 레닌이 그의 帝國主義論에서 주장한 內容이 많이 發見된다.

첫째 革命的 歷史는 世界的인 規模로 資本主義가 社會主義로 移行되는 마지막 段階에 이르렀다는 것, 둘째 共產主義의 역량은 守勢에서 攻勢로 바뀌었다는 것, 세계 帝國主義와의 最後의 對決을 될 수 있는 한 앞으로 미루는 平和共存 政策이 必要하다는 것, 넷째 심각한 矛盾속에 있는 帝國主義勢力에 대해서는 弱小國이나 植民地域을 통하여 間接적으로 攻擊하는 方法을 利用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한마디로, 흐루시초프의 平和共存論은 平和共存을 社會主義와 資本主義間的 國際的 階級鬭爭의 한 形態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留意할 必要가 있다.

흐루시초프 政權은 平和共存의 原則을 다음 세가지로 정하고 이것들을 상호 연결시키고 있었다. 첫째는 서로 社會體制를 달리하는 國家들間的 戰爭없는 平和共存, 둘째는 資本主義와 社會主義間的 經濟競爭, 셋째는 資本主義와의 思想鬭爭의 持續이었다. 소련의 理論家들은 이것을 3段階 理論이라고 說明하고 있다.

소련의 觀點에서 볼 때, 이 세가지 相異한 段階는 서로 다른 局面에서 發展시킨다는 戰術이 숨어 있다. 이 세가지 原則을 具體적으로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國家와 國家들間的 政治的 關係에서 平和共存政策을 내세워 紛爭을 解決하는 手段으로서 戰爭을 拋棄할 수 있다고 主張했다. 그의 平和共存論은 領土保全과 主權不可侵, 主權의 完全한 平等과 相互互惠의 原則등에 基礎를 두고 있었다. 이것이 흐루시초프의 平和共存論의 核心이다.

다음, 資本主義陣營과 社會主義陣營間的 經濟的 競爭關係에서 平和共存은, 「어느 體制가 더 優越하고, 國民의 輿望에 副應하며 그리고 物質的 精神的 要求를 더욱 完全하게 充足시키느냐 하는 點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豪言壯談했다. 그는 經濟的인 競爭을 競馬에 比喻하면서, 「資本主義 나라, 즉 美國은 經濟的인 面에서 먼저 出發하여 앞서 달리고 있지만 그 速度는 鈍馬와 같고, 蘇聯은 飛馬처럼 빨리 달리기 때문에 距離上 별 차이가 없는 資本主義의 鈍馬를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1960年 봄 흐루시초프는, 「社會主義國家는 經濟競爭에서 勝利하고 生産性에서 가장 發展한 資本主義 나라를 凌駕할 것」이라고 말하고, 「소련의 勞動時間은 가장 짧고, 賃金은 가장 높고, 住宅條件은 가장

좋고, 그 위에 文化的 서비스는 보다 向上되어 있다」고 長廣舌을 늘어 놓으면서 大衆의 自信感을 북돋우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데올로기 鬭爭에 관해 흐루시초프는 누차 다음과 같은 內容을 強調했다. 「資本主義가 이 地球上에 存續하는 限 이데올로기상의 共存은 있을 수 없으며, 이데올로기의 鬭爭은 계속된다」라고 못박았다. 平和共存政策에 있어서 資本主義와 이데올로기 鬭爭에 관한 限 추호의 讓步도, 추호의 變化도 있을 수 없다고 소련은 斷定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데올로기의 共存>이란 마치 明暗이 一致할 수 없듯이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흐루시초프의 平和共存政策은 社會主義와 資本主義間의 外交關係에 局限해서만 적용되어 있을 뿐 國際的 階級鬭爭에는 결코 適用된 사실이 없음을 注目해야 할 것이다. 平和共存의 口號는 한낱 平和攻勢의 一環에 불과할 뿐이다.

3. 中·蘇 紛爭

中·蘇紛爭은 1958年 8月 金門島 近海에 대한 中共의 砲擊을 信號로 하여, 1959年 6月 蘇聯이 一方的으로 新國防技術協定, 核武器技術協定(1957年 調印)을 廢棄하고 또한 同年 8月과 9月 2次에 걸친 中·印國境紛爭에서 蘇聯이 印度를 支持한데서부터 不和의 序章이 펼쳐졌다.

60年代에 접어들면서 中·蘇間의 理念紛爭은 露骨적으로 表面化되었다. 그 紛爭의 內容은 소련의 平和共存論과 中共의 戰爭不可避論과의 對立, 흐루시초프의 毛澤東 教條主義 非難과 毛澤東의 흐루시초프 修正主義路線 非難 등을 둘러싼 相互間의 論爭으로 요약된다.

1960年 4月 16日字 中共黨 機關紙 · <紅旗>는 <레닌主義 萬歲> 라는 題下의 社說에서, 흐루시초프의 平和共存政策을 公公연히 非難하면서 戰爭不可避論을 固守, 暴力에 의해 帝國主義를 崩壞시켜야 한다는 레닌의 立場을 擁護했다. 이에 대하여 소련은 世界核戰爭의 '위협으로부터 人類를 구제하는 새로운 方法을 中共이 忘却하고 있다고 反駁했다. 그리고 「平和共存政策과 軍備縮小를

위한 鬭爭은 결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後退가 아니다」라고 반격했다. 그리고 흐루시초프는 帝國主義戰爭에 관한 레닌의 命題는 과거 核武器가 나타나기 以前의 理論이요, 現時代에는 문자 그대로 適用되지 않는다고 主張했다.

1960年 8月 소련이 中共에서 일하고 있던 1,390名의 技術者를 歸還시키는 한편, 324件의 對中共技術援助契約를 取消해 버렸다. 이로써 中共이 1958年부터 始作한 大躍進運動은 커다란 打擊을 받게 되고, 經濟政策全般에 決定的인 차질이 일어났다.

한편, 소련은 1948年 코민포름에서 파문했던 유고슬라비아와 1955年 다시 和解하여 經濟協力을 強化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62年 10月 中共은 <쿠바 危機事件>때 흐루시초프가 케네디에 屈服한데 대해 신랄하게 소련을 痛駁했다. 이렇게 中·蘇理念紛爭은 격화일로를 치닫게 되어 급기야는 個人的인 人身攻擊 事態까지 유발했고, 1963年初 駐蘇 中共大使館 職員들을 追放하는 등 兩國關係는 흐루시초프가 失脚한 1964年까지 계속 惡化되고 있었다.

4. 全人民의 國家論

흐루시초프의 全人民의 國家論은 1961年 10月 第22次 소련 共產黨大會에서 黨綱領으로 採擇되었다. 全人民의 國家에 관해 흐루시초프는, 「이 概念이야말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科學的 思考를 發展시킨 가장 중요한 里程碑」라고 主張하고, 소련은 <社會主義建設>을 끝내고 全面的인 共產主義 建設期에 突入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獨裁는 더 이상 소련에 存在치 않는다고 強調하였다

이 概念의 焦點은 다음과 같다. 즉 全人民의 國家는 社會主義 發展 段階의 階級國家와 다르고, 全人民의 國家가 되면 階級の 差가 사라지고 國家는 全人民을 代表하는 이른바 全人民의 意思 表現機構라는 것이다. 全人民의 國家가 되면, 첫째 社會主義 社會의 基盤擴充, 둘째 共產主義의 物質的·技術的 土臺創造 및 國家管理의 公共機構에로의 委任, 세계 民主的 統治方法의 실시등 要因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프롤레타리아트獨裁國家와 區別된다는 것이다.

당시 흐루시초프는 國家機構의 活動에 대한 人民大衆의 參與擴大要求에 便乘함으로써, 公共機構로서 地方 소비에트들을 늘려 國家機能을 점차 이에다 委任시키면서 그의 勢力基盤을 擴張했다.

그러나 많은 反對理論에 봉착하여 그 缺點을 指摘당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흐루시초프의 <全人民의 國家論>은 党 官僚들의 完강한 저항과 党 組織 原則에 비추어 처음부터 實現不可能한 것이었다.

第5節 오늘의 蘇聯

- 브레즈네프 政權의 準動員體制 -

레닌의 <初期動員體制>, 스탈린의 <全體主義의 動員體制>, 흐루시초프의 <後期動員體制>를 거친 오늘의 蘇聯共產主義 體制는 과연 어떠한 體制인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흐루시초프의 <平和共存路線>採擇은 對外的으로 共產主義 블러內的 龜裂現象을 초래했고, 또한 <農業重視政策>의 失敗로 또다시 糧 問題의 고민을 解決해야 하는 또 다른 國內問題를 야기시킴으로써 소련은 對內·外的으로 困境에 處하게 되었다. 大砲는 만들 수 있으나 糧은 만들지 못하는 體制의 苦悶, 多元化와 自由化라는 世界 歷史的 潮流에 따라 거세게 일기 시작한 <獨自路線>의 挑戰에 대한 苦悶이 바로 그것들이다. 여기서 브레즈네프集團이 擇해야 할 길은 다시 스탈린의 全體主義的 動員體制로 還元하는 길밖에 별 도리가 없었다. 그렇지만 브레즈네프集團은 이러한 路線의 還元을 公式的으로 表明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 스탈린의 亡靈을 되살림으로써 소련人民들에게 줄 精神的 衝擊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事實을 考慮하여 브레즈네프集團은 反스탈린의인 立場도, 그렇다고 親스탈린의 立場도 아닌 兩者折衷的인 立場을 擇했다. 이것이 이른바 脫흐루시초프化 政策路線인 것이다.

흐루시초프 失脚 以後 약 5年동안 最高權力은 몇 사람에게 配分되었다. 특히 党第1書記職과 首相職을 同一人이 兼職못하도록 하는 禁止決議案을 1964年10

月 党 中央委員會에서 通過시켰다. 이러한 意圖는 스탈린식의 1人支配體制를 배제한다는 사실을 과시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党 中央委常任委員會內에 브레즈네프, 코쉬긴, 포드고르니, 수슬로프 등 4名으로 構成되는 非公式 執行委員會를 만들었으며, 이 寡頭集團이 政治指導의 役割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年 以後 政治局 (1966年 幹部會를 改稱)이 브레즈네프支持勢力 위주로 改編됨으로써 사실상 브레즈네프 體制가 구축되었다. 결국 또다시 1人支配體制가 確立되었다.

動員體制라는 면에서 볼 때 브레즈네프政權은 스탈린體制도 아니고 흐루시초프體制도 아닌 中間的인 <準動員政權>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의 소련이 안고 있는 對內·外的인 問題들은 어떤 것이며 이에 대한 브레즈네프의 政權 對應策은 무엇인가?

1. 對內的 問題

가. 反體制運動과 이에 대한 彈壓

스탈린 死後 소련에서는 文學家, 科學者를 비롯한 知識層들의 反體制運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초기의 代表的인 人物이 에세닌·볼핀 (Alexander Esenin-Volpin)이다. 그는 마르크스의 哲學과 蘇聯政治指導層을 批判하는 <哲學論文>을 執筆하여 西方으로, 비밀리에 반출했다. 이 冊이 1961年 美國에서 出版되자 소련 黨국은 反體制學者들을 精神病棟에 가두기 시작했다.

에세닌·볼핀은 反政府 知識人들에게 많은 影響을 주었으며 또 그밖에 한 사람의 저명한 反政府知識人으로는 <소련은 1984年까지 存續할 것인가?>를 쓴 아말리크 (Andrei Amalik)가 있다. 그는 <民主運動>이라는 活動을 中産層을 對象으로 展開하고 있지만 소련의 中産層은 거의 全部가 政府에 雇傭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成功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疑問이었다.

70年代를 前後하여 外部에 알려진 소련內의 反體制運動의 代表的인 團體로는 1969年에 結成된 <民權守護行動 그룹>과 1970年 物理學者 사하로프 (Andrei

Sakharov)가 중심되어 結成한 <人權委員會>를 들 수 있지만, 이들 反體制知識集團은 그 性格上 크게 보아 두 가지로 大別할 수 있다.

하나는 小說家 솔제니친과 같은 사람이 展開하는 <슬라브民族主義派>로서 이들은 帝政러시아 時節의 슬라브主義 (Slavophilism) 者들처럼 傳統을 固守하고, 政府의 道德性을 要求하는 派다.

다른 하나는 사하로프 같은 學者가 主動이 된 西歐式 改良主義派 (帝政러시아의 西歐主義者와 類似함)로서 合理主義에 입각하여 政治參與의 목을 넓힘으로써 그 속에서 非民主적이고 獨裁的인 要素를 하나씩 점진적으로 除去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主張하는 派다.

이러한 反體制知識層을 中心으로 한 反政府活動이 현저하게 擴大되어 소련 國內뿐 아니라 西方에도 상당한 關心을 불러 일으키자 소련 當局은 秘密警察을 動員하여 強制勞動, 精神病棟에의 強制入院, 投獄, 海外追放 등의 方法으로 그들의 活動을 彈壓하고 있다.

나. 經濟의 不均衡 發展

共産党的 經濟政策은 市民生活과 直接的으로 連結되는 消費財工業을 輕視하고 重工業 優先政策에 力點을 둔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러한 經濟의 不均衡 發展은 반드시 市民生活을 窮乏하게 만들 수 밖에 없는 體制의 矛盾性을 露出한다.

소련이 傳統的으로 重工業優先政策에 力點을 두는 것은 軍需産業을 조속히 發展시켜 世界革命을 추진시키겠다는 <共産主義 이데올로기>의 要請때문이다. 그 結果 소련은 世界의 超強國으로 등장할 수 있었지만 住民生活은 항상 가난에 허덕여 왔으며 勞動生産性은 期待值을 언제나 下廻하였다.

특히 生産性의 向上을 위하여 흐루시초프 末期부터 工業成長率을 높이기 위한 여러 方案이 論議된 바 있다. 이 때 市場經濟的 利潤原理를 導入한 이른바, 리베르만理論 (Liberianism)이 그 代表的인 것이다.

經濟學者인 리베르만 (Evsei G. Liberman)은 “計劃, 利潤 및 賞與金”이란 論文을 發表하고 既存의 中央集權的 統制經濟의 要素를 市場經濟의 指標에 다 둔

經濟計劃을 樹立할 것을 主張하였다. 즉, 이 方式은 生産에 관한 決定權을 工場 經營者가 쥐고 生産品에 대한 需要의 優先에 따라 生産量을 決定해야 한다는 것이며 結論的으로, 資本家階級이 勞動者를 착취하는데서 發生한다고 하던 利潤을 生産活動의 主要한 決定要因으로 삼아야 한다는 持論이다. 그러나 소련의 經濟 政策自體가 重工業優先에서 生活必需品指向的인 生産方式으로 轉換하지 않는 한, 그 適用에는 限界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 理由는 大衆의 消費欲求를 充足시켜 주지 않으면 生産性이 向上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소련의 食生活을 中心으로 그들의 生産性을 美國과 實證的으로 比較해 보자.

다음의 圖表(美國 對 蘇聯의 生活指標)에서 볼 수 있듯이 食生活의 대종을 차지하고 있는 穀物과 肉類의 生産은 美國의 半程度 밖에 안되고, 農民의 1人當 生産量에 대한 受惠者數는 1960年의 1/5에서 1978년에는 1/7로 뒤떨어지고 있음을 볼 때 生産性의 低下現象을 쉽게 알 수 있다. 住宅建設은 1人當 平方미터로 計算할 때 점차 下落幅이 넓어져 1978년에는 2/5 밖에 안된다. 그리고 라디오의 보급은 1/8에 불과하다.

反面, 텔레비전使用은 1960年의 1/15에서 1976년에는 약 1/3정도로 增加했으며, 家庭用器機로서 冷蔵庫의 利用도 1960年의 1/28에서 1978년에는 1/2水準으로 되었다. 특히 텔레비전은 政府의 宣傳活動에 利用할 수 있는 최선의 手段이라는 點에서 급속히 補給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洗濯機와 冷蔵庫의 利用이 높아졌다는 사실은 소련當局이 國民生活改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一面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食生活과 關係되는 食糧의 問題요, 消費財의 生産性의 問題이다. 예를 들면, 洗濯機의 生産과 消費의 上昇面에서는 消費에 比하여 生産이 훨씬 뒤지고 있음은 그 좋은 例라고 하겠다.

美國 對 蘇聯의 生活標準 指標

區分	年度	1960	1965	1970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食 品										
穀物生産 ¹⁾ (kg/人)										
U.S.(美)		1,090	1,032	991	1,129	965	1,164	1,197	1,210	1,224
U.S.S.R.(蘇)		586	525	769	891	776	551	872	756	899
肉類生産 ²⁾ (kg/人)										
U.S.		71	74	110	105	112	108	117	116	113
U.S.S.R.		41	43	51	54	58	59	53	57	58
農夫 1人當 生産에 대한 受惠者數										
U.S.		26	35	45	48	48	49	49	52	56
U.S.S.R.		5	6	6	7	7	7	7	8	8
住 宅										
住宅建設 (m ² /人)										
U.S.		0.80	0.82	0.74	1.14	0.93	0.76	0.82	0.99	1.07
U.S.S.R.		0.51	0.42	0.44	0.44	0.44	0.43	0.41	0.42	0.42
通 信										
TV補給 (臺/100人)										
U.S.		31	36	45	56	57	59	62	N.A.	N.A.
U.S.S.R.		2	7	14	20	21	22	22	23	24
라디오補給 (臺/100人)										
U.S.		86	117	164	182	190	193	198	205	N.A.
U.S.S.R.		13	16	20	22	23	23	24	24	24
家電製品										
洗濯機生産 (臺/1,000人)										
U.S.		18	22	20	26	23	20	21	23	23
U.S.S.R.		4	15	22	12	12	13	14	14	14
洗濯機補給 (臺/1,000人)										
U.S.		158	170	194	224	229	238	248	243	263
U.S.S.R.		13	59	141	173	181	189	195	208	203
冷蔵庫生産 (臺/1,000人)										
U.S.		19	25	26	32	28	21	23	24	28
U.S.S.R.		2	7	17	22	22	22	23	22	23
冷蔵庫補給 (臺/1,000人)										
U.S.		281	295	336	330	334	308	423	486	553
U.S.S.R.		10	29	89	142	161	174	328	228	228

1) 輸出入穀物은 除外되었고, 통상 소련의 穀物生産을 他國과 比較할 때 平均 11%를 割引하여 適用하는 것이 通例이다.

2) 美國의 경우 家禽까지만 包含된 것이나, 소련의 경우 家禽을 包含하여 말고기, 토끼고기 및 其他 食用肉 一切를 包含한 것임.

出處: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U.S. CIA, National Foreign Assessment Center, 1979.

2. 對外的 問題

가. 中·蘇紛爭의 深化

호루시초프의 失脚後 中·蘇紛爭은 브레즈네프政權이 호루시초프를 格下시키면서 부터 1964年末까지 暫定的으로 누그러졌었다.

호루시초프가 毛澤東思想을 批判하고 1965年 모스크바에서 世界共產黨大會를 召集하여 中國共產黨을 破門하려 했던 사실과는 달리, 브레즈네프·코쉬긴集團은 反中共宣傳을 暫時 中止하고 關係改善에 부심하였다.

그러나 1966年初 越南戰이 擴大됨에 따라 美·蘇間의 異見差異는 벌어지게 되었고, 1967年 以後 中共의 文化大革命期에는 中·蘇對立이 더욱 激化되었으며, 특히 1968年 1月에는 雙方의 外交官을 追放하는 事態로까지 飛火하였다.

그러다가 1968年 1月 노브트니를 政權에서 밀어내고 登場한 체코의 두브체크는 民主化路線을 표방하면서 改革을 進行시키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브레즈네프는 同年 8月 바르샤바條約軍인 폴란드·헝가리·東獨 및 불가리아軍隊와 合勢하여 武力으로 체코를 侵攻했으며 11月에는 이른바 <制限主權論>을 내세워 체코侵攻을 正當化하려 들자, 中共은 蘇聯을 社會帝國主義로 斷定하면서 結局 自滅하고야 말 것이라는 등 非難을 서슴치 않았다.

中·蘇紛爭은 理念紛爭에서 시작되었으나 드디어 1969년에는 國境地帶인 우스리江沿邊에서 戰爭事態로까지 물고갈 수 있는 武力衝突로 擴大되었다.

中·蘇間의 메울수 없는 이데올로기의 간격과 勢力을 擴張하려는 소련의 外交戰爭은 中共으로 하여금 美國과의 和解修交를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나아가 中共은 國際舞臺에서 소련의 勢力膨脹을 沮止하기 위한 이른바 <對蘇逆包圍戰略>으로 對處해 나가게 되었다.

나. 制限主權論

1968年 8月 20日 深夜 소련軍이 바르샤바同盟軍과 合勢하여 民主化路線을 標榜한 체코의 두브체크政權을 武力으로 짓밟은 後, 브레즈네프는 이를 合理化시키는 한 演說을 통하여 세가지 獨트린을 發表하였다. 이 세가지 獨트린이란 <浸蝕型 反革命論>, <制限主權論>,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 國際獨裁論>을 말한다.

이 독트린의 目的은 체코侵攻의 合理化 以外에도, 장차 다른 共產主義國家의 主權을 制限하고 또한 소련指導層의 內政干涉權을 保有하려는 底意를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첫 措置로서 새로운 독트린인 浸蝕型 反革命論이란, 革命이 조용히 그리고 平和的인 方法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反革命을 단지 軍事行動 혹은 軍事的 攻擊의 形態로 看做하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 독트린에 따르면, <平和的인 反革命>의 方法은 社會主義의 <民主化宣言>도 包含하고, 社會主義秩序의 改善에 관한 討論까지 包含한다. 이 새로운 理論은 窮極적으로 체코와 같이 社會主義體制에서 民主化 改革의 움직임이 보일 때 이를 浸蝕型 反革命으로 規定하여 內政에 干涉할 것을 合理化하기 위한 事前措置였다.

다음 制限主權論에 의하면, 한 國家의 <社會主義體制>를 防衛하는 것은 그 나라만의 任務가 아니라 基本的으로 소련이 主導하는 「全世界社會主義體制的 任務이며 全世界社會主義體制的 防衛는 國際主義者의 義務」라고 宣言되었다. 소련 共產主義의 見解로는 추상적인 國家의 獨立은 認定할 수 없다는 것이며, 「社會主義國家의 獨立과 主權은 무엇보다 資本主義로부터의 獨立만을 意味한다」는 것을 強調한 것이다.

社會主義秩序의 危機問題를 包含하여 社會主義國家의 內部問題도 역시 當事國이 判斷하는 것이 아니라 社會主義의 世界體制가 判斷한다고 主張하면서 브레즈네프는 다음과 같이 宣言하였다. 「社會主義에 도전하는 內·外部의 勢力이 社會主義 國家의 發展過程에 있어서 資本主義를 復活시키려 하거나, 또는 그 國家에서 社會主義의 大義를, 심지어는 全 社會主義共同體를 威脅하는 事態가 發生할 때, 이 問題는 한 國家의 問題가 아니라 全 社會主義國家의 關心事이다.」

1968年 늦가을 브레즈네프는 프롤레타리아트獨裁를 國家水準에서 國際水準으로 轉換시키는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國際獨裁論을 發表하여 社會主義國家의 主權을 더욱 制限시켰다. 그가 프롤레타리아트 國際獨裁를 主張하게 된 動機는 各 國家의 防禦能力을 強化함에 있어서 社會主義共同體의 構成 國家들의 協調를 強調하고 나아가서 <世界社會主義體制>의 힘과 團結을 強化하는데 目的이 있다는 구실로 合理化하고

있다.

이 새로운 <制限主權論>에서 밝혀진 내용은, ① 소련의 同盟國은 오직 資本主義世界에 對하여 主權을 行使해야지, 소련이 主導하는 世界社會主義體制에 對해서 하는 主權行使는 容納하지 않는다. ② 모든 社會主義國家들은 世界社會主義體制의 利益에 반드시 從屬되어야 한다. ③ 社會主義國家間의 關係는 國際法의 規定, 主權의 抽象的인 觀念 혹은 形式的으로 保有하는 自決原則이 아닌, 相互合意하는 政治理念을 담은 文書에 반드시 準用되어야 한다. ④ 한 社會主義國家內에서의 世界社會主義體制에 對한 威脅은 當事國의 問題가 아니라 1次的으로 世界社會主義體制의 問題이다. ⑤ 社會主義國家들의 全幅的인 協調는 프롤레타리아트 國際獨裁(實際로는 언제나 소련의 支配를 말함)의 目的을 達成하도록 더욱 強化되어야 한다는 다섯가지였다.

그러나 制限主權論은 유고슬라비아와 루마니아를 비롯한 여러 共産黨에 의해 拒否되었으며, 특히 티토는 소련의 이러한 理論은 「다른 社會主義國家의 主權을 소련의 判斷에 따라 制限하여 武力介入을 合理化시키려는 속셈에 불과하다」고 非難하였다.

中共은 소련의 制限主權論과 프롤레타리아트 國際獨裁論이 國家主權의 普遍的인 原則을 蹂躪하려는 行爲라고 규탄하고, 「소련이 主張하는 制限主權論에 의한다면, 결국 소련 修正主義者의 主權도 制約을 받을 수 있다」는 論旨를 들어 소련을 꼬집었다.

다. 加速化되는 共產主義블럭의 龜裂

호루시초프의 平和共存 宣言 後 中·蘇의 分裂과 類似한 分裂이 東歐에서도 일기 시작하였다.

즉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民衆蜂起가 일어났고, 알바니아가 中共쪽으로 선회하였고, 루마니아가 自主路線을 取하는 등 일련의 脫蘇現象이 계속되고 있었다. 브레즈네프政權은 이러한 脫蘇現象에 塞기를 막기 위해 自由化路線을 추구하려던 체코를 武力으로 侵攻했고 武力侵攻을 合理化하기 위하여 制限主權論을 宣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東歐에서 自由化의 물결은 그치지 않고 계속 일고 있다. 그 위에 新마르크스主義者들이 蘇聯의 非人道主義的인 政策에 화살을 겨냥하자, 共產主義의 宗主國으로서의 소련의 國家的 體面은 크게 損傷당하고 있다.

특히 最近 폴란드에서는 <自由勞組>의 勞動者들이 反蘇·反體制運動을 展開하면서 勞動者의 罷業事態로 突入하자 黨第1書記가 바뀌고 首相이 辭任하는 등의 重大局面으로 치닫고 있는 實情이다. 이에 소련은 이 事態를 <反革命>으로 規定하고 1968年의 체코事態와 같이 武力行使를 敢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美國의 強硬策에 부딪쳐 주춤하고 事態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實情이다. 1968年의 체코侵攻이 <國際共產主義運動>에 찬물을 끼얹었듯이 폴란드 事態도 똑 같은 前轍을 밟는다면, 소련圈의 內部問題만이 아닌 더 큰 問題를 야기시킬 可能性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폴란드自由化運動을 그대로 放置한다면 다른 나라들에도 그 影響이 크게 파급될 것은 確實하다.

또한 <유로communism>의 代表格인 伊太利와 스페인 共產黨代表들이 소련의 아프카니스탄侵攻에 항의하여 1981年 2月 23日부터 열린 第26次 소련 共產黨大會에 不參하였다는 사실은 西歐共產主義運動에도 決定的인 影響을 주고 있으며 國際共產主義運動의 亀裂과 分裂現象을 立證하는 좋은 예라고 할 것이다.



第4章 中國共產主義와 그 變化過程

目 次

第1節 毛澤東主義와 그 形成 背景	89
1. 코민테른의 工作과 中國共産党的 創設	
2. 毛澤東主義의 背景	
第2節 毛澤東主義의 特徵	95
1. 마르크스·레닌主義의 中國化	
2. 繼續革命論과 政治優先主義	
3. 農民中心의 革命的 群衆路線	
第3節 中國共産党内의 權力鬭爭과 그 意味	100
第4節 毛死後의 現代化 路線과 그 苦悶	103
第5節 對外路線	106
1. 對外路線의 4大 支柱	
2. 中間地帶論과 反蘇修·反霸權·反社會帝國主義	



第 1 節 毛澤東主義와 그 形成 背景

1. 코민테른의 工作과 中國共產黨의 創設

毛澤東路線은 中國共產黨의 革命經驗을 통하여 얻어진 產物이다. 中國共產黨은 안으로는 1919年의 5·4運動, 그리고 밖으로는 1917年 러시아의 볼셰비키革命 등 對內外的인 衝擊要因의 混合의 產物이다.

中國의 近代 國內革命의 萌芽는 洪秀全을 指導者로 한 太平亂(1848~'64)이었다. 이것은 貧民의 社會經濟的 반란으로서 非儒敎의 思想의 旗幟를 들고 王權의 奪取를 기도했다. 그 후 날로 심해지는 國恥는 1900年에 義和團事件을 낳았다. 이는 國內改革보다는 外國人 排斥을 政治運動의 主要目標로 삼았다. 그러나 中國에 있어서 民族主義를 급격하게 대두케 한 것은 무엇보다도 第1次大戰後 베르사이유條約에 反對하여 北京을 中心으로 學生이 主動이 되어 일으킨 5·4運動이었다.

5·4運動은 中國의 權益을 日本에 팔아넘기려했던 列強에 대한 反撥인 동시에, 反日 民族感情의 爆發이었으며, 주로 青年知識層이 중심이된 民族主義的 反帝國主義 運動이었다. 이러한 狀況은 소련이 浸透하기에 좋은 風土였다. 이 때, 소련은 中國에 대한 權益要求拋棄를 宣言하고 反帝國主義를 標榜하면서, 당시 中國指導者들의 關心을 誘導하고자 했다. 1920년에는 코민테른의 極東部長 代理 보이친스키(Gregory Voitinsky)를 中國에 派遣, 北京에서 李大釗, 上海에서 陳獨秀를 각각 接線하고 마르크스主義團體를 組織케 하였다. 이 때 毛澤東도 湖南에서 유사한 團體를 組織했다. 또 海外에서는 파리에서 周恩來, 李立三, 李富春 등도 共產主義團體를 組織했다. 그리하여 1921年 7月, 黨員 57名을 代表한 12名의 代表가 上海의 한 女學校에서 中國共產黨의 創黨大會를 開催하였다. 여기에 毛澤東, 何叔衡, 董必武, 陳潭秋, 王盡美, 鄧恩名, 李達, 李漢俊, 劉仁靜 등이 參加하고 코민테른에서는 보이친스키와 마아링(H.S. Maring)이 參席하였다. 陳獨秀는 廣東에 있었기 때문에 參席치 못하였으나, 黨委員長으로 選出되어 毛澤東

에 의하여 축출되던 1927년까지 委員長으로 있었다.

당시 소련의 戰略은 우선 약한 共產黨보다는 강한 國民黨과 提携하는 가운데 時間을 벌어서 共產黨을 組織하는데 있었다. 즉 共產黨을 國民黨과 合作시켜 프롤레타리아革命의 前段階인 <브르조아의 民主革命>을 수행하려 하였다. 이에 中國 共產黨의 創黨과 더불어 마아링은 桂林으로 孫文을 訪問했다.

太平亂과 5·4運動의 中間인 1894년에 結成된 興中會의 後身으로 創設된 國民黨은 孫文을 指導者로 하여 1912년에 創設된 急進主義的 民族政黨이었다. 그 行動原則이 되는 것은 孫文이 1905년에 提唱한 民族·民主·民生의 三民主義 이었다. 이와같이 孫文의 正統的 繼承者인 國民黨은 1921년부터 소련의 工作에 의해 만들어진 中國共產黨과 中國大陸을 둘러싼 支配權 掌握을 위한 鬭爭에 들어가게 된다.

1923~27年間の 소련의 戰略은, 大衆의 基盤이 없는 共產黨에 대한 全幅的 支援보다는 國共合作에 의한 反帝國主義鬭爭으로 利用하는데 重點을 두었다. 따라서 소련은 共產黨으로 하여금 個人資格으로 國民黨에 入黨케 하여 共產黨의 目標達成을 위한 鬭爭을 暫定的으로 留保하고 國民黨에 從屬시키고자 했다. 第1次 國共合作을 통한 共產黨의 勢力擴張은 國民黨의 正統派를 刺戟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25年 孫文이 逝去하자 두 黨間의 對立은 露骨化되고 1927年 蔣介石은 北伐을 단행했다. 한편, 共產黨은 蘇聯의 壓力아래 1927年 8月 7日 漢口에서 緊急會議를 열고 陳獨秀를 <右翼 投降主義 路線>의 過誤를 범했다는 구실로 黨 責任者의 자리에서 除去하고 대신 瞿秋白(구추백)을 委員長에 앉혔다. 이 8·7會議에서 國民黨과의 妥協主義를 버리고 勞動階級의 武裝暴動으로 大都市를 掌握한다는 極左的 冒險主義路線을 採擇했다. 이는 코민테른의 指令에 따른 것이었다. 이 決定이 있기 며칠 前에 葉挺·賀龍이 指揮하는 部隊가 朱德部隊의 支援을 받으면서 南昌暴動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暴動은 곧 이어 일어난 秋收暴動과 함께 失敗하였다. 秋收暴動中 毛澤東이 組織한 湖南秋收暴動은 그 意味가 크다. 秋收暴動의 失敗로 毛澤東은 殘黨 1,000名을 이끌고 井崗山으로 逃走하여 朱德의 部隊와 合流하였으나 同年 11월에 黨政治局員의 職에서 解任되었다. 그러나 毛

澤東이 繼續 農民의 革命性을 輕視하지 않고, 井崗山을 根據地로 하여 農民中心으로 兵力을 充員하면서 農民中心의 革命路線을 굳히게 되었다.

中國共産黨이 1921年 出現한 이래 1924年부터 1927年 사이의 期間中 中國共産黨은 소위 <合作>이라는 口號아래 共産黨員을 國民黨内部에 組織적으로 浸透시켜 國民黨의 内部를 엿보고, 分裂을 助長하여 窮極적으로 國民黨을 瓦解시킬 수 있는 基盤을 造成하고 있었다. 당시까지는 아직 第1人者의 位置를 占하지 못했던 毛澤東 자신도 國民黨에 浸透, 黨 中央委 候補委員兼 中央宣傳部 書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第1次 國共合作이 끝난 1927年부터 1937年까지의 期間은 毛澤東이 党内 基盤을 本格的으로 構築했던 時期이다.

1937年에서 1945年에 이르는 第2次 國共合作 期間동안, 國民黨은 이미 合作이라는 中國 共産黨의 戰術에 말려들어 大陸에 대한 國民黨의 支配權을 송두리채 잃어가고 있었다.

1945年 9月 24日 中國共産黨은 다가올 大陸席卷을 위한 치열한 決定戰에 對備, 다시 聯合政府 樹立이라는 偽裝戰術을 再驅使하였다. 즉 抗日戰爭 終結의 段階에서 당시까지도 數적으로 壓倒적이었던 國民黨軍의 共産黨 掃蕩戰을 回避하는 한편, 國民黨의 内部分裂과 腐敗를 造成하자는 것이 그들의 意圖였다. 그리하여 1945年에서 1949年の 內戰을 통해 共産黨의 이와 같은 組織的인 陰謀와 國民黨의 腐敗로 國民黨은 그 支持基盤을 잃고, 급기야는 大陸에서 뼈아픈 敗退를 맛보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는 過程에서 毛澤東은 집요한 權力鬭爭의 結果를 자신의 勝利로 장식하고 中國本土에다 共産政權을 樹立하고 全權을 손아귀에 넣었다.

2. 毛澤東主義의 背景

毛澤東主義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中國化이며, 따라서 순수한 理論이라기 보다는 中國을 共産化하기 위한 戰略 戰術論이다.

中共에 대한 理解는 過去와 단절시켜서는 不可能하다. 1950年 以前の 半世紀 間に 걸친 中國의 歷史는 確固한 傳統의 存續과 強力한 革命運動의 出現이라는 特徵을 가지고 있다. 淸朝의 崩壞와 더불어 中國은 過去, 現在 및 未來를 現實的으로 結合시킬 수 있는 새로운 價値觀과 効果인 制度를 希求하였다. 中國의 民族主義는 傳統的인 排他的 氣質과 結合되어 이 시기의 主要한 推進力이 되었다. 民族主義는 國際的으로나 國內的으로 強力한 推進力으로 나타났다. 近代化를 위한 鬪爭은 都市는 勿論 農村에까지 커다란 影響을 미쳤다. 그리고 軍事力을 支配한다는 것은 傳統的으로 中國政治의 主要한 要素로 되어 왔다. 그리하여 能率的인 政府의 存在가 中國의 近代化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必要하다는 認識을 가지게 되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國民黨과 共產黨은 類似性을 지니고 있다.

毛澤東思想은, 첫째로 中國의 過去傳統과 混合되고 있다. 즉 毛澤東思想은 中華帝國의 傳統에 대한 文化的 優越感, 近代中國의 民族文化가 갖는 心理的 推進力 및 中國共產黨의 이데올로기의 革命性 등 3大要素의 混合物이다. 이 세 要素는 반드시 調和되는 것은 아니며 서로 背馳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要素는 中共의 政策樹立者들의 態도와 象徵等に 影響을 미쳐 왔다. 毛澤東은 세個의 相異한 要素 즉 中國의 傳統, 近代化 및 革命的 共產主義를 相異한 環境에 適用시키려 했다. 그러므로 中共의 強力한 冷戰外交는 그 性格이 多元的이며 그 對外關係의 樣相은 複雜하다. 例컨대, 中共은 아시아 및 東歐의 共產主義 國家들과는 統一과 團結을 위하여 獻身하는 反面, 아시아의 中立主義國家들에 대하여서는 그의 文化的 類似性을 強調하며, 또 西方과의 交涉에 있어서는 近代 民族國家로서의 地位를 維持하는데 最大의 關心을 集中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基本目標는 大國으로서의 國際的 地位를 獲得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舊中華帝國은 아시아에서의 文化的 中心으로서 位置를 차지하여 왔기 때문에, 今 日의 中共은 意識的으로나 또는 無意識的으로나 中華帝國의 傳統을 意識하고 있다. 이러한 認識을 土臺로 하여 毛澤東은 中共을 中國의 過去 歷史와 단절된 別個의 存在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이 歷史的, 傳統的 大國意識의 感覺은 文化的 自信과 일종의 使命感을 수반하여 北韓이나 越盟等 數世紀에 걸쳐 中華帝

國과 密接한 關係에 있었던 地域에 대한 中共의 態度에 影響을 미치고 있다.

毛澤東思想의 둘째의 主要要素는 近代中國의 民族主義에서 派生된 것이다. 中國民族主義는 그 以前의 時代와는 顯著히 다른 中國史의 一世紀(1850~1950)에 걸쳐 發展한 것이다. 이러한 中國民族主義는 지금까지도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오늘날 中國共產主義者들은 1912年 中華民國의 創設者인 孫文의 思想原則을 支持한다고 主張하며, 自由 平等 및 中國의 國家利益의 새로운 擁護者로서 自處하여 왔다. 理論적으로 보면, 그들은 西歐民主主義를 非難하고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를 標榜하면서 祖國, 人民, 言語, 文化 및 傳統에 대한 격렬한 煽動的 表現으로 自己式 愛國心을 主張하여 왔다. 그리고 그들은 單純히 他國의 特殊利益을 排除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近代世界에서의 確固한 地位를 獲得하고 保存할 수 있는 統一民族國家의 發展을 目標로 하고 있다.

세째의 主要要素는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이다. 中共은 “마르크스, 레닌, 毛澤東主義”의 觀點에서 世界를 보며, 자기들의 一次的인 國際的 義務는 社會主義陣營의 힘과 단결을 強化하는데 있다고 主張한다. 共產主義陣營에서 強國이 된. 中共의 特殊한 地位는 그 對外關係에 있어서도 과거의 中共歷史에 없었던 새로운 要素를 加味시키고 있다. 中共은 강인한 職業的 革命家들에 의하여 指導되어 왔으며 多年間의 鬭爭 經驗을 쌓은 이들 엘리트는, 中國共產主義의 影響력과 權威를 不斷히 擴大함으로써 그것을 國際的 水準에서까지 擴大하려 하고 있다.

모든 共產黨國家는 終局的으로 世界赤化라는 同一目標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中國共產黨을 領導해 온 毛澤東이 提示한 中共의 革命은 레닌이 確立하고 스탈린이 發展시킨 蘇聯의 類型과는 다르다.

毛澤東이 마르크스·레닌主義를 中國의 現實에 適用함에 있어서 1940년에 <新民主主義>를 發表했고, 毛澤東主義라는 實踐 이데올로기를 強調했다.

毛澤東思想이 어디까지 獨創性을 가지느냐에 대하여서는 論難의 여지가 多分히 있다고 하겠다. 毛澤東은, <新民主主義>에서 中國의 革命過程을 <브르조아 民主革命>과 <프롤레타리아 社會主義革命>의 두 段階로 나누어 前者를 新民主主義, 그리고 後者를 社會主義의 段階라고 指稱하였다. 第一段階인 新民主主義의 段階

를 1年 앞당겨 1955年까지 수행했다. 그의 新民主主義는 勞働者, 農民, 民族資本家 및 小市民이라는 4個階級の 聯合獨裁이다. 이 聯合獨裁에 있어서 盟主가 되는 것은 勞働者階級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中共이 이와 같이 諸党派와의 民族統一戰線 戰術을 採擇하지 않으면 안된 主要 動機는 前近代的인 産業構造를 가진 中國에 있어서는, 産業勞働者의 勢力이 脆弱한 反面에 農民이 壓倒的인 多數라는데에 있었다. 다만 勞働者 階級을 盟主로 하는 聯合獨裁는 中共의 國內政策의 核心이 되었다. 毛澤東이 革命思想의 敎化和 특히 新入黨員의 規律에 最優先順位를 둔 것은 共產黨의 支配를 繼續하기 위한 手段이었다. 共產黨의 基盤이 確立됨에 따라 新民主主義 段階 以後에는, 黨內的 反黨分子를 排除하기 위해 整風運動(肅清)을 急速히 展開하였다.

毛澤東의 基本目標는 <國家社會主義>의 建設에 있었고, 앞에서 論한 執權 當初의 目標는 이와같은 基本目標에 到達하기 위한 하나의 中間目標였다. 그러므로 當時와는 相異한 오늘날의 中共의 國家目標는, 첫째로 社會主義經濟體制의 確立에 있고, 둘째로 全體主義 獨裁體制의 維持에 있다. 全體主義獨裁體制의 維持를 위한 暴力의 役割이 극히 重要的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한편 統制裝置를 強化하기 위하여 黨의 完全한 統制를 強調하였으며, 毛澤東 偶像化를 바탕으로 文化 및 敎育의 目標를 <敎義遵奉·愛國心의 創造>라는 宣傳口號로 說明하고 있다.

毛澤東主義를 마르크스·레닌主義의 中國的 變形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革命思想을 명분으로 黨이라는 組織의 힘을 빌려 이루어지는 政治的 統制強化, 奪權戰略, 低開發地域에 대한 工業化推進, 아시아에서의 支配權 掌握을 위한 戰略, 國際關係에서의 地位向上을 위한 接近方法이다. 한편, 毛澤東主義는 中國共產黨이 코민테른의 工作産物이라는 點에서, 그의 獨自性은 戰略 戰術的인 意味밖에 지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第2節 毛澤東主義의 特徵

앞에서 說明한 毛澤東主義의 特徵은, ① 마르크스·레닌主義의 中國化 ② 繼續 革命論과 政治優先主義 ③ 農民中心의 革命的 群衆路線으로 要約할 수 있다.

1. 마르크스·레닌主義의 中國化

中國共産党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思想的 武器로 하여 中國社會를 共產主義 社會로 改造할 것을 窮極的 目標로 하는 革命政黨으로 發展해 왔다. 共産党이 國民黨과 더불어 抗日民族統一戰線을 展開하던 시기에, 毛澤東은 마르크스·레닌 主義를 中國의 歷史的 特殊性에 適用, 獨自의인 革命路線을 標榜하였다.

1939年 11月の <中國革命과 中國共産党>, 1940年 10月の <新民主主義>, 1947年의 <現情勢와 우리의 任務>, 그리고 1949年의 <人民民主獨裁論> 등 의 發表를 통해 毛澤東은 革命路線을 展開하였다.

毛澤東은 中國의 歷史的 特殊性을 植民地的, 半植民地的, 半封建的이라는 점에서 찾았다. 이 點에 있어 中共은 蘇聯과 差異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데올로기의 問題를 떠나서 본다면, 中國은 民族解放을 위하여 對外的으로는 反帝·反植民主 主義鬭爭을 展開하며, 對內的으로는 反封建主義鬭爭을 展開하여 社會經濟적으로 近 代化 革命을 수행해야 하는 後進諸國과 類似한 立場에 있었다. 阿片戰爭(1840 ~ 42年) 이래 外來資本主義의 浸透를 받아 封建社會로 부터 半封建, 半植民地的 社會로 變換 中國에서는 <民族解放革命>과 <社會革命>을 遂行해야 했다. 그 러나 그는 이 두가지 革命을 同時에 遂行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라고 보았 다. 그러므로, 毛澤東은 <新民主主義>에서 中國共產革命의 歷史的過程을 브르 조아 民主主義革命과 프롤레타리아 社會主義革命의 두 段階로 區分하였다. 第1段 階인 브르조아 民主主義革命은 프롤레타리아트가 主導하는 人民大衆의 反帝·反封 建革命이며 그 任務는 半植民地的·半封建的 中國을 <獨立된 民主國家>로 轉換 시키는데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獨立된 民主國家란 브르조아의 指 導下에 資本主義社會를 建設하는 것을 內容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그 內 容이 當장 社會主義를 建設하는 것도 아니다.

毛澤東은 中共의 브르조아民主主義를 新民主主義라고 규정하였다. <新民主主義>革命은 한편에서는 資本主義 發展의 길을 열어주고, 또 한편에서는 社會主義를 위한 前提를 만드는 特殊한 <브르조아 民主主義革命>이라고 했다. 換言하면, 毛澤東이 意味하는 民主國家란 그의 獨特한 新民主主義國家였다. 그는 新民主主義國家를 後日 勞動者, 農民, 民族資本家, 小市民의 4個階級이 勞動者階級の 主導下에 同盟을 形成하는 <人民民主獨裁國家>로 동일시했다. 人民民主主義란 經濟的으로는 資本主義的要素와 社會主義的 要素의 過渡的 共存인 混合經濟를 意味하여 蘇聯의 經濟政策과 類似했다. 그러나 政治的으로는 人民民主主義란 프롤레타리아트(共産黨獨裁)의 變形에 불과했다. 즉 毛澤東은 新民主主義革命 段階를 社會主義革命 段階로 履行하기 위한 過渡期的 段階라고 규정했던 것이다.

마르크스主義的 意味에서의 프롤레타리아革命을 위한 古典的 前提條件을 결여하고 政治的으로도 脆弱했던 中國大陸에 있어서 共産主義者들이 直面한 最重要한 問題는 社會主義革命의 目標과 民族解放革命의 目標間的 時差에 있었다. 中國의 共産化를 위하여서는 國內資本家の 打倒를 위한 社會主義革命도 必要했고 동시에 國際帝國主義의 打倒를 위한 民族解放革命도 必要했다. 그런데 民族解放이라는 目標遂行에 있어서는 프롤레타리아트와 브르조아階級の 이해가 일치하므로, 이른바 反帝·反植民鬪爭에서 이 두 階級間的 過渡的 聯合이 可能하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民族解放革命을 完遂하고 社會主義革命의 段階에 突入하면, 共産黨은 社會主義를 反對하는 브르조아階級の 支援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民族解放革命과 社會主義革命을 同時에 遂行할 수 없는 限, 中國共産黨은 民族解放革命을 위하여 브르조아階級の 支援을 要請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이렇게 본다면, 毛澤東의 段階의 革命圖式은 中國共産黨이 大衆的 基盤을 결여한데서 오는 그 自體의 力量과 組織上의 脆弱性を 補完하기 위한 것이었다.

2. 繼續革命論과 政治優先主義

毛澤東은 中國이 지니는 여건의 特殊性에서 革命段階를 新民主主義革命→社會主

義革命의 2段階革命으로 보았다. 第1段階인 新民主主義革命은 共產黨의 指導下에 聯合獨裁를 실시, 對內的으로는 反封建主義·反官僚主義를, 對外的으로는 反帝國主義·反植民主義鬭爭을 展開하는 段階다. 第2段階인 社會主義革命은 社會主義的改造와 社會主義的 工業化를 위한 段階다.

또한 <新民主主義>가 그 內容 및 範疇에 있어서 政治革命뿐만 아니라 經濟文化革命을 包括하고 있다는 점에서 立體革命論임을 알 수 있다.

繼續革命論은 革命과 建設을 별개의 차원으로 分離시키지 않는다. 革命에 의하여 舊秩序를 打破하여 建設의 段階에 들어가면, 革命이 必要치 않다는 觀念을 全的으로 배제한다. 革命과 建設은 不可分離의 關係에서 하나의 循環過程을 이루게 된다. 順序面에서 본 2段階 繼續革命論과 內容 및 範疇面에서 본 立體革命論이 毛澤東革命理論의 骨幹으로 되어 있다. 毛澤東이 말하는 新民主主義의 建設이란 舊文化와의 對決, 清算을 意味함으로 그것은 單純히 새로운 政治生活樣式의 建設만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政治를 비롯하여 經濟, 文化面에서의 鬭爭을 包含하는 包括的인 社會的 性格을 띠고 있다.

新民主主義 文化의 特色은 政治에 대한 文化의 從屬性, 民族의 性格, 科學性, 革命性, 大衆性에 있다고 分析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政治에 대한 文化의 從屬性 즉 政治優先主義이다. 政治優先主義는 理論上 下部構造의 變革에 따라 上部構造의 必然的인 變革을 가져온다는 正統的인 마르크스主義의 立場과는 相反되는 것이다. 毛澤東은 革命過程에서 政治的 必要性에 부합되도록 文化革命, 意識革命을 遂行하고 이것을 통해 下部構造를 加一層 變革시키는 立場을 堅持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社會의 發展을 促進하기 위하여 矛盾을 激發시키고 繼續的으로 革命을 遂行한다는 데 바로 繼續革命論의 戰略的 計算이 있다.

毛澤東이 社會發展의 動機를 矛盾의 激發에서 구하는 한, 그때 그때 必要條件을 인정하여 矛盾을 激發시켜야 했다. 이와 같이 流動的인 狀況에서 必要條件을 設定하여 矛盾을 激發시키고 對立鬭爭의 克服에 의하여 새로운 狀況을 造成하는 것을 革命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矛盾의 發見과 激發에 의하여 社會發展을 促進하고자 하기 때문에 文

化大革命에서 보는 바와 같이, 理念論爭·政治論爭·權力鬭爭이 서로 뒤엉켜 結果的으로는 整風運動→肅清→權力構造의 再編成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革命의 段階的 遂行을 위해서는 모든 革命의 發展段階에 따라 革命의 主體를 確立 強化하여 矛盾을 調整·克服하고 社會主義的 要素를 強化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革命主體의 強化란 共產黨의 支配權의 強化를 意味했으며, 矛盾을 調整·克服하는 運動은 學習運動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學習運動은 主體의 確立이라는 面에서 본다면 結果的으로 權力鬭爭의 樣相으로 나타나기 마련이었다.

요컨대 毛澤東의 繼續革命論이란 프롤레타리아獨裁가 樹立된 뒤에도 階級鬭爭은 繼續된다는 理論으로 歸着된다. 이때의 階級鬭爭이란 反브르조아階級鬭爭이라기보다는 党内反對派를 打倒하기 위한 權力鬭爭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現象은 바로 文化大革命에서 立證되었다. 이러한 繼續革命理論은 毛澤東 死亡以後 文化革命의 被害者들에 의해서 拒否되었다.

3. 農民中心의 革命的 群衆路線

中國共產黨은 實情에 안맞는 코민테른의 指令, 勞組派(蘇聯派), 農村계급의 指導者의 갈등等 内部的 要因 外에도 反復되는 革命의 失敗로 分裂을 거듭했다.

1921年 創黨에서 부터 毛澤東이 1935年 党内에서 黨의 헤게모니를 掌握 하기 까지 사실상 中國共產黨은 革命路線을 둘러싼 分派鬭爭으로 深刻한 分裂危機를 겪었다. 毛澤東은 蘇聯派의 <極左冒險主義路線>에 대하여 1931~'35年의 期間 동안에 辛辣한 批判을 가하였다.

毛澤東革命路線에서 가장 特徵的인 要素의 하나는 農民中心의 思想이다. 勞働者(都市)中心의 極左路線의 繼續的인 失敗는 毛澤東으로 하여금 國民黨과 共產黨의 相對的인 힘을 再評價케 하였다. 그는 國民黨이 軍事的으로 强하고, 政治的으로 脆弱한 反面, 共產黨은 軍事的으로 弱하고, 政治的으로 強點을 지닌다고 判斷하여 農民(農村)中心의 革命路線을 擇하였다. 都市는 有産者의 牙城으로서 強力한 軍事力을 背景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抵抗이 完강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國民의 壓倒的 多數를 차지하는 農民의 組織化와 革命化가 重要視되었다. 그의 戰略은 農民을 革命的 主體로 하고 農村을 根據地로 삼아 그 生存을 維持하면서 組織 勢力을 擴大하여 都市를 包圍하고 陷落시킨다는 包圍戰略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弱者의 戰法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包圍戰略을 展開하기 위해서는 그 先決條件인 國民黨에 대한 共產黨의 軍事力 強化에 충분한 時間이 必要하다는 點에서 그의 戰略은 時間의 面에서는 <持久戰略>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軍事作戰은 주로 게릴라에 依存한다는 點에서 作戰面에서 遊擊戰術로 나타났다.

이러한 게릴라戰 中心의 武裝鬪爭路線은 自然히 戰鬥性을 띠게 된다. 毛澤東에 있어서 革命的 先決條件은 抗日戰爭과 內戰이라는 二個의 戰爭을 통하여 民族解放과 社會革命이라는 二重의 課題를 解決하는 것이었다. 이 點에서 毛澤東은 革命과 戰爭의 關係에다 獨特한 政治的 概念을 賦與했다. 戰爭을 <革命的 產婆>라고 본 마르크스나 레닌의 持論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革命과 戰爭은 같은 場所에서, 같은 時間에 일어나며, 戰爭은 政權奪取을 위한 最高手段이지만 革命的 下位概念으로 革命에 從屬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政權은 銃口에서 나온다」, 또는 「鬪爭의 最高形態는 戰爭이며 組織의 最高形態는 軍隊」라고 하여 革命과 戰爭을 동전의 兩面으로 보았다. 여기에서 그의 革命戰爭의 概念이 나온다.

毛澤東은 이러한 農民中心과 戰鬥性의 概念을 群衆路線과 直結시켰다.

그는 國民黨에 대한 軍事的 劣勢를 政治的으로 만회하기 위하여 大衆의 支持的 必要性和 政治的 統一戰線, 그리고 武器보다 人間을 重要視하고 革命精神을 強調했다. 毛澤東은 또한 게릴라部隊를 물고기로, 大衆을 물고기가 사는 물에 比喻하였다. 革命은 黨의 獨走로서는 成功할 수 없으며, 따라서 共產黨은 大衆 蜂起의 手段 方法 順序를 重要視하고, 理論의 把握만이 아니라 大衆의 確信 決意 行動과 信賴性을 가지고 指導해야 된다고 強調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黨員은 行動과 同時에 行動에 대한 反省과 自己改造의 契機가 必要하다고 했다. 이러한 契機設定의 要請은 毛澤東으로 하여금 內部矛盾의 存在를 是認케 하고, 특히 黨과 大衆間의 矛盾의 除去를 위하여 官僚主義와 主觀主義를 排擊케 했다.

이러한 毛澤東思想의 戰略的 前提는 空間, 時間, 意志의 統一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는 根據地를 마련하여 生存을 위한 空間을 確保하는 것이 곧 軍事問題이며, 時間을 벌어서 革命組織을 強化하고 團結, 勝利, 犧牲精神을 고취시켜 時間과 意志를 統合하는 것이 곧 政治問題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의 戰略概念에 있어서는 西歐式 物量中心의 産業動員代身에 政治動員을 重要視하였다. 이것이 政治的으로는 統一戰線, 軍事的으로 人海戰術, 그리고 軍隊觀에서는 大衆軍의 概念으로 具體化되었다.

第 3 節 中國共產黨內의 權力鬭爭과 그 意味

1935年 毛澤東이 黨의 領導權을 掌握한 이래 毛澤東思想은 黨의 革命思想으로 美化되어 왔다. 1949年 政權樹立과 더불어 毛澤東思想은 革命思想임과 동시에 그의 支配體制를 維持하기 위한 體制의 統治이데올로기로서 二元的 機能을 수행해 왔다. 그리고, 毛澤東思想이 革命이데올로기와 統治이데올로기로서 絶대화되어 가는 과정은 權力鬭爭過程과 不可分離의 關係를 맺게 된다. 政治이데올로기로 등장한 毛澤東思想이 統治이데올로기로 絶대화되는 과정은 權力鬭爭과 結合된 것이다.

文化大革命的 와중에서 1966年 7月 1日字 <人民日報>를 통하여 中共當局은 政權樹立後 16年間 <反黨修正主義集團>과 3次에 걸친 鬭爭을 推進했다고 밝혔다. 그중 第1次鬭爭이 高崗, 饒漱石등의 (反黨同盟)과의 鬭爭(1953年~'55年)이요, 第2次鬭爭은 彭德懷, 黃克誠을 중심으로 하는 <右翼機會主義的>反黨集團과의 鬭爭이요, 그리고 第3次鬭爭은 文化大革命을 信號로 하는 <反黨·修正主義集團>과의 鬭爭이라고 發表한 바 있다.

또 中共問題 專門家인 金雄白이 그의 저서인 <中共의 10大問題>에서 整風運動과 權力鬭爭이 密接히 關連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음의 6個段階로 區分하여 分析하고 있다.

第1段階(1949~52年末)는 毛澤東이 자기의 支配權을 確保하기 위하여 國際派와 地方勢力을 배제하는 段階이다. 이 때에 徐向前과 李立三(國際派)이 除

去되었다.

第2段階(1953~55年)는 毛澤東이 그 地位를 強化하고 人民公社問題가 提起된 段階다. 이때 權力을 剝奪당한 者는 林彪·劉伯承·饒漱石·賀龍·高崗·葉劍英·彭德懷·鄧小平·李富春·黃克誠을 包含한 40여명의 軍指揮官이었다. 人民公社問題는 <先集團化·後機械化>에 대한 論爭으로 展開되었는데, 毛澤東은 前者를, 劉少奇는 後者를, 자기의 立場으로 삼고 있었다. 여기에서 가장 큰 事件은 <高崗·饒漱石>事件이었다.

第3段階(1956~57年)는 大鳴大放과 反右派鬭爭이 展開된 時期다. 中國共產黨史에서는 이미 1942년에는 <三風整頓運動>이, 그리고 1951~52년에는 <三反·五反運動>이 있었다. 여기에서 「風」이라고 함을 風紀·風潮·作風·氣風 등의 意味를 包含하는 말이며, 「整」이란 사물이 있어야 할 본연의 狀態에 있게 함을 말한다. 따라서 中共에서 <整風運動>이란 黨員의 氣風·態度·思考方式 등을 있어야 할 본연의 狀態에 있겠끔 整頓시키는 것, 즉 黨과 黨員을 思想·組織·活動面에서 共產主義적으로 바로 잡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政治的 各본으로 整風運動을 일으켜 온 것이 中國共產黨의 歷史的 傳統이었다.

<三風整頓運動>은 學風·黨風·文風의 整頓을 意味한다. 시기적으로 整風運動은 <抗日統一戰線>의 形成을 契機로 展開되었다. 당시 知識層이 多數 入黨하였다. 이들로 부터 個人主義, 自由主義, 機會主義, 主觀主義를 제거하는 한편, 아직 黨內에 뿌리박고 있던 陳獨秀의 <右翼機會主義>와 陳紹禹의 <左翼機會主義>를 다 같이 청산하려는 것이었다.

<三反·五反運動>은 對外的으로는 韓國戰爭의 수행, 對內的으로는 第1次5個年計劃으로 突入하는 무렵에 일어났다. 당시는 民族資本家가 아직 存續하던 社會主義에로의 移行하는 過渡期였다. 따라서, 對外的으로는 <抗美援朝運動>과 對內的으로는 곧 시작할 <社會主義改造>에 對備하여 黨內的. 브르조아思想을 배격하기 위해 이 運動이 必要하다고 간주되었다. 여기에서 「反」은 惡을 意味하여 三反은 官僚主義·浪費·汚職의 一掃를, 그리고 五反은 受賂·税金橫領·國家資材의 橫領·賃金着服·國家機密의 누설을 일소함을 意味하였다.

毛澤東은 1956年 藝術의 自由와 學術의 自由를 結合하여 百花齊放·百家爭鳴의 구호를 登場시켰다. 이것도 第1次 5個年計劃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意識構造를 社會主義의 改造하기 위한 것이었다. 蘇聯에서의 스탈린格下運動의 여파를 意識하면서 <大鳴大放>을 口號로 知的活動의 自由를 暫時 賦與하였다. 그러나 建設的인 意見보다는 黨에 대한 批判이 露骨化됨에 따라 1957年 毛澤東은 자기를 批判하는 者들을 右派라고 낙인을 찍고 放鳴運動을 <反右派鬭爭>으로 역전시켜 胡風, 羅降基, 章伯均을 비롯하여 많은 知識人들을 肅清했다. 요컨대, 中共에서의 整風運動이란 바로 다른 共產黨國家에서 進行되고 있는 肅清을 意味한다.

第4段階(1957~58年)는 經濟的 近代化의 加速化에 反對하는 者들에 대한 肅清의 시기였다. 이 때는 人民公社運動으로서 農業의 大規模 集團化를 本格的으로 推進하려는 段階였다. 이 때 劉少奇, 林彪, 彭眞, 康生 등은 하는 수 없이 毛澤東路線에 屈服했다.

第5段階(1959~60年)는 <右翼機會主義>에 반대하여 <人民公社·大躍進·總路線>을 內容으로 하는 <三面紅旗運動>을 關切하기 위한 단계였다. 이 때 陳雲, 鄧子恢, 張聞天 등이 낙인이 찍히고 彭德懷는 國防部長에서 밀려나서 農村으로 追放되어 그의 후임으로는 林彪가 앉았다. 總參謀長 黃克誠의 후임으로는 羅瑞卿이 任命되었다. 三面紅旗政策이 無理하고 非現實的인 政策인데다가, 中·蘇關係의 惡化로 蘇聯援助마저 中斷되고 蘇聯의 經濟專門家들이 本國으로 召喚됨에 따라 中共經濟는 破局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서 毛澤東은 國家主席의 자리를 劉少奇에게 넘겨주고 經濟的 難局의 收拾을 그에게 기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第5段階에서의 整風은 高·饒事件과 文化大革命에서의 劉少奇一派의 肅清과 더불어 中國共產黨史에 있어서 3大肅清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第6段階는 1961年 以後이다. 60年代는 中共史上 가장 複雜한 시기로서 人民公社運動의 無理한 강행에 뒤따른 經濟的破局을 收拾하던 시기다. 劉少奇를 중심으로 하는 現實主義者들이 登場, 1960~65年의 再調整期를 통해 調整政策을 實施함으로써 經濟는 일단 회복되었다. 그런데 1966년부터 유래된 文化大革命은

中國의 現代史에서 類例없는 混亂의 도가니를 演出하고 만다. 이 混亂한 시기는 紅(이데올로기)과 專(技術)의 對立鬭爭이 展開된 시기이다. 毛澤東은 「專」을 重要視하는 劉少奇中心의 反毛·實權派들을 反革命·修正의 總路線으로 낙인찍어 肅清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70年代 以後의 段階를 第7段階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林彪·陳伯達의 <反革命極左路線>, 鄧小平의 <資本主義追從路線>, 그리고 <林·江 反党 十惡>을 둘러싸고 일어난 權力鬭爭을 特徵으로 한다. 1980年 11月 4人幫을 包含한 <林·江 反党 十惡>에 대한 政治裁判이 全世界가 주시하는 가운데 進行되었다. 文化大革命期의 權力鬭爭을 일단 마무리한 셈이다. <林·江 反党 十惡>은 江青, 張春橋, 姚文元, 王洪文으로 구성되는 4人幫을 비롯하여 陳伯達, 黃永勝, 吳法憲, 李作鵬, 邱作會, 江騰蛟 등 10名을 가리킨다. 이들에 대한 裁判으로 毛澤東時代는 公式의으로 그 終末을 고한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中國共產黨史는 한마디로 權力鬭爭의 歷史였다. 이러한 權力鬭爭을 合理化하기 위한 道具로써 政策路線鬭爭과 整風運動이 그 명분으로 利用되어 온 것이다.

第4節 毛死後의 現代化 路線과 그 苦悶

毛澤東은 마르크스의 經濟決定論과 레닌의 政治意志決定論을 결합하여 農民을 中心으로 하는 武裝鬭爭으로 中國大陸을 赤化시키는데 成功했다. 그後 數次에 걸친 經濟計劃의 失敗는 中共의 落後를 가져왔다. 여기에 지난날의 후유증이 겹쳐 中共의 苦悶을 加重시키고 있다.

毛澤東이 1949年 北京政權을 樹立한 後 1976年 死亡할 때까지의 近 30年間의 執權期間에 추진했던 經濟計劃은 本質的으로 失敗하였다. 더우기 思想優先主義에서 강행한 大躍進·人民公社·總路線의 三面紅旗運動은 中共經濟를 破局에 몰아넣었다. 毛澤東의 後繼者들에게 맡겨진 이와같은 問題의 處理는 너무나 과중한 負擔이 되고 있다.

毛澤東은 執權과 더불어 6次에 걸친 經濟計劃을 推進하였다. 즉 第1段階(1949~52年)는 戰亂으로 인한 破壞로 부터의 再建을 위한 經濟復興期였다. 第2段階(1953~57年)는 第1次 5個年計劃 期間으로 社會主義的 改造를 위하여 過變期의 總路線을 標榜하여 生産의 飛躍的成長을 추구한 시기였다. 그러나 三面紅旗運動이 失敗함에 따라 劉少奇를 중심으로 하는 實用主義者들의 調整政策이 採擇되었다. 이것이 바로 第4段階(1961~65年)인 經濟調整期로서, 第2次 5個年計劃期間에 해당한다. 第5段階(1966~70年)는 文化大革命期에 實施한 第3次 5個年計劃期間이다. 그리고 第6段階(1971~75年)는 第4次 5個年計劃 期間으로서 앞으로 있을 長期計劃의 시발점이기도 했다.

第1次 5個年計劃이 시작된 1953年에서 금일에 이르는 28年間, 政治路線 自體가 여러번 左와 右의 兩極에서 동요했고, 또 그럴 때마다 經濟政策은 權力鬭爭의 渦中에서 混亂을 거듭해 왔다. 결국 61年에 시작된 調整政策을 除外하곤 다른 計劃을 成功치 못하였다. 經濟政策의 동요는 毛澤東死後의 金일에 있어서도 꼭 같이 되풀이 되고 있다.

70年代 中盤期를 前後하여 中共이 政治的으로나 經濟的으로 또 하나의 一大轉機를 맞이하게 되었다. 30여년 동안 累積된 經濟的 矛盾의 解決을 위하여 제시된 것이 바로 <4個現代化>路線이다. 4個現代化路線은 1975年 周恩來首相이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報告한 <長期經濟發展構想>을 繼承한 것이다. 그의 構想은 1966~80年까지의 15年間을 第1段階로 하고 1981~2000年까지의 20年間을 第2段階로 하고 있었다. 第1段階에서는 第3·4·5次의 세차례의 5個年計劃을 통하여 調整된 工業體系·國民經濟體系를 세웠다. 이어서 第2段階에서는 農業, 工業, 科學技術, 國防의 現代化를 全面的으로 實現한다는 構想이었다. 1976년부터 華國鋒이 4人幫을 추방한 후 農業, 工業, 科學技術, 國防을 現代化하는데 4個現代化路線을 大的으로 宣傳하였다. 4個現代化路線의 目標은 90年代末에 이르기 까지 美國, 日本, 西獨 등 先進工業國家의 經濟水準에 도달하며 一人當 國民所得을 1,000弗까지 올린다는데 있다. 그리하여 華國鋒이 78年의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周恩來가 내세웠던 長期經濟發展構想에 따라 野心的인 10個年計劃(1976~85年)

을 發表했다. 그러나 10 個年計劃의 實現可能性은 疑問視되고 있다. 예컨대, 過去 20 年間に 1 億屯밖에 增産되지 않았던 食糧生産을 不過 8 年間に 1 億 2 千萬屯으로 增産한다는 計劃은 中共의 現實을 감안한다면 無理한 目標였던 것이다. 그래서 10 個年計劃은 發表된지 일년도 채 못가서 79 年의 全國人民代表大會에서 鄧小平派인 總理 趙紫陽에 의하여 修正되었다. 이것을 <八字修正>이라고 한다.

이 修正計劃에서 <調整·改革·整理> 등의 用語를 使用하면서 國民經濟의 均衡을 도모하고 經濟制度의 改革을 試圖하며 不實企業은 整理한다는 것을 發表했다. 10 個年計劃을 拋棄하고 79 年부터 3 年間の 豫定으로 이루어질 調整政策은, ① 國家豫算收支의 均衡 ② 銀行信用貸付의 收支均衡 ③ 外貨의 收支均衡 등 3 大 均衡 및 이들간의 綜合的 均衡의 概念으로 表示되고 있다. 새로운 調整政策은 資本主義의 市場原理와 競爭原理를 導入하고 所有制度에 약간의 修正을 가한 것이다. 物質的인 인센티브를 주어 競爭을 刺戟하며 企業間的 聯合을 獎勵한다는 것이다. 過去의 管理制度에 대한 反省에서 業種·地域·所有制·從屬關係에 制約되지 않는 橫的 經濟交流를 主張하고 그밖에도 生産과 消費를 연결하여 商品流通을 원활하게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所有制에 修正을 가하여 國營企業의 利潤을 國家에 과거처럼 全部 納付하지 않고 納稅後의 利益을 그 企業에 歸屬시키며, 企業의 損失을 政府가 보상치 않는다. 生産方式도 市場의 需要에 맞추어 生産하는 方式을 導入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社會主義經濟制度에 일정한 修正을 가하자는 것이다.

毛澤東 死後 中共의 새指導部는 毛澤東에 대한 格下를 斷行하는 한편, 劉少奇에 대해서는 死後 復權을 公式化했다. 華國鋒의 總理職 退任으로 새 總理에 就任한 趙紫陽은 脫毛澤東 經濟路線을 추구하고 있다. 1961~65 年의 經濟調整期에 四川省에서 실시하여 成果를 거둔 劉少奇·鄧小平의 實用主義路線, 즉 <三自一包> (自留地·自由市場·自營企業·請負制) 政策을 中國全體에 擴大 實施하고 있다.

그러나 農業·工業·科學技術·國防의 4 個現代化를 위한 實用主義路線의 展望은 그리 樂觀的인 것이 되지 못한다.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 ① 黨員중 다수가 아직도 毛澤東路線의 추종자들이다. ② 社會經濟的으로, 人口의

壓倒的 다수가 農民인데다가 農業生産이 저조하여 財政은 繼續的으로 赤字에 허덕이고 있고, 技術人力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③ 党 幹部가 政策의 右傾化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意見差異로 數次에 걸쳐 計劃을 變更함으로써 政策에 일관성이 없다. ④ 一般國民이 頻繁한 政策變化 때문에 둔감할 뿐더러 政策變化 그 自體를 不安하게 느끼는 傾向마저 있다. ⑤ 資本, 技術, 施設의 不足을 克服키 위하여 美國, 日本 그리고 西方國家에 依存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内部的으로 革命思想에 동요를 일으키는 등 問題가 되고 있다.

요컨대, 새로운 指導路線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서는 어떻게 党内抵抗을 배제하고 大衆의 동요를 막아 實用主義者들의 指導體制를 確立하느냐에 달려 있다.

第 5 節 對外路線

1. 對外路線의 4大 支柱

中共의 對外政策은 中華帝國의 傳統에 대한 文化的 自負心, 近代中國의 民族主義의 心理的推進力, 그리고 共產主義이데올로기의 革命性이라는 세가지 要素의 混合物이라는 것은 이미 言及한 바와 같다. 中共의 對外路線을 構成하는 4大支柱는, ① 反美·反帝鬭爭 ② 反蘇修正主義鬭爭 ③ 亞·阿地域과의 友好 ④ 統一戰線의 形成이다. 反美·反蘇鬭爭은 國際政治에 있어 美·蘇의 두 大國主義에 대한 鬭爭을 말한다. 中共의 核武器開發은 核戰爭에 對備하기 위한 軍事戰略的 目的에 그 主要動機가 있는 것이 아니라, 美·蘇의 두 大國主義의 支配體制를 타파하기 위한 政治的 目的에 그 우선적 動機가 있었다. 따라서, 美·中共和解에 따라 中共은 反美·反帝鬭爭 보다도 反蘇修正主義·反大國主義鬭爭에 우선적인 意味를 부여함으로써, 蘇聯을 제일의 假想敵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中共의 對外路線이란 ① 緊張緩和는 支配權爭取를 위하여 強大國間에 일어나는 치열한 競爭을 隱蔽하기 위한 기만이며, ② 구라과는 美·蘇 強大國間의 競爭의 中心舞臺이며, ③ 따라서, 亞·阿地域을 中心으로 한 <第3勢力> 形成의 不可避 등으로 볼 수 있다.

美·蘇共存體제의 기틀이 동요되지 않는 한, 아시아에서의 緊張緩和는 美·中共和解와 그 共存體제의 確立에 달려 있다. 中共은 美·中共和解와 더불어 구라파에서 소련이 強大國으로서의 役割을 하고 있는 것처럼, 中共 그 자신은 아시아에서 強大國으로서 行勢하고자 한다. <反霸權主義>는 中共의 對外路線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되어 있다. 霸權主義에 대한 非難은 1972年 2월에 있는 美·中共의 上海共同聲明에 명시되고 있다. 中共은 어떠한 霸權主義도 權力政治도 反對하며 모든 抑壓民族의 自由와 解放을 積極的으로 支援하겠노라고, 나섰다. 여기에 있어서 초기의 反霸權主義는 反美보다는 특히 反蘇의 意味가 强하며 후반의 民族解放은 匪·阿地域에 대한 中共 자신의 霸權主義를 示唆하는 것이다.

2. 中間地帶論과 反蘇修·反霸權·反社會帝國主義

戰後 美·蘇冷戰體制에 있어서 中共은 1950年の 中·蘇同盟을 근간으로 하여 政權維持의 길을 擇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同盟을 기초로 하는 中·蘇間의 兄弟黨關係는 破壞되었다. 회고컨대, 中·蘇同盟關係의 破壞要因은 1956年 蘇聯共産黨 第20次大會에서 흐루시초프의 스탈린格下 秘密演說을 계기로 일어난 兩國間의 理念紛爭, 1957년에 締結된 中·蘇 新國防技術協定에 대한 蘇聯側의 一方的인 廢棄, 1962年の 쿠바事件, 1963年 美·蘇間의 部分核實驗禁止條約의 締結 등이었다. 그리고 1969年 珍寶島를 비롯한 國境地帶에서의 中·蘇武力衝突은 두 나라 사이에 領土紛爭을 招來했다. 이러한 中·蘇間의 國家的 對立의 惡化는 中共으로 하여금 反美·反蘇鬭爭에서 오는 이중적 包圍網을 突破하기 위하여서는 對美和解에 의한 反蘇鬭爭으로 기울게 하는 決定的要因이 되었다. 中共이 蘇聯의 領導權에 편승했던 戰後型外交의 시대는 벌써 지나갔다. 匪·阿地域을 중심무대로 霸權主義를 반대하기 위한 國際統一戰線의 形成에 열중하는 새로운 段階로 접어들게 된 것이 오늘의 中共의 對外政策이다.

이러한 中共外交의 기조가 되어 온 戰略的 概念이 中間地帶論이다. 中間地帶論은 農村을 根據地로 都市를 包圍한다는, 毛澤東의 國內革命過程에서 얻은 戰略概念을 國際關係에까지 擴大하여 援用한 것이다. 中共의 中間地帶論은 蘇聯의 傳統

的인 兩大陣營論의 亜·阿地域을 중심으로 한 第3世界에 根據를 둔 理論이다. 中間地帶論은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와의 矛盾이 가장 尖銳化되고 있는 亜·阿地域을 <第1中間地帶>로 본다. 또 불란서, 英國, 日本과 같이 美國과 連結되어 있지만 美國과의 이해가 對立되고 있는 資本主義國家들을 <第2中間地帶>로 보는 것이다. 이 중에서 中共의 目標은 亜·阿地域인 第1中間地帶에다 勢力을 뻗자는 데 있는 것이다. 1963年 당시 國防部長이었던 林彪는 <人民戰爭勝利萬歲>라는 論文을 통하여, 美國과 西歐를 <世界的 都市>로, 亜·阿地域은 <世界的 農村>으로 규정하고, 「世界的 農村에 의한 世界的 都市의 包圍가 革命戰略의 기본」이라고 強調하였다.

中共의 第3世界에 대한 外交는 1954年의 <周恩來·네루共同宣言>의 平和5原則, 즉 ①領土·主權尊重 ②不可侵 ③不干涉 ④互惠平等 ⑤平和共存의 原則下에서 推進되어 왔다. 이 平和5原則은 다음해인 1955年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開催된 第1次 亜·阿會議에서 平和 10原則으로 擴大하게 되었다. 中共은 대체로 1965년에 이르기 까지 第3世界에다 外交의 軸점을 두었고, 中間地帶의 動員에 의하여 反霸權·反美統一戰線을 형성 강화하려 했다. 그런데 1965年 後半부터는 中·蘇關係의 惡化로 反美鬭爭보다는 反蘇鬭爭에 軸점이 옮겨가고 이에 따라 蘇聯修正主義와 蘇聯의 <社會帝國主義>에 대한 非難이 加熱되었다. 모든 共產黨國家의 革命形態를 統一하려던 스탈린의 소비에트式 劃一主義에 대하여 各國 共產黨은 이제 領導權의 自主性を 要求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蘇聯 共產黨은 第20次黨大會 以後, 「社會主義에 이르는 多様な길」을 인정하고 統制를 緩和하였다.

그러나 蘇聯은 強壓統制를 緩和하는 대신 國際共產主義運動에 있어서의 行動統一과 모스크바의 우월한 指導權의 시인을 繼續 要求하였다. 이에 대하여 中共은 蘇聯을 社會帝國主義라고 非難하면서 그 權威에 도전하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中共의 態度는 1974年 4月 鄧小平이 유엔特別總會에서 행한 發言에서 가장 잘 나타났다. 그는 蘇聯의 社會帝國主義가 出現함으로써 社會主義陣營은 이미 存在하지 않게 되었으며, 또 資本主義의 不均等發展法則에 의하여 西方帝國主義 集團도

分裂되었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의 世界는 서로 連繫를 가지면서도 矛盾關係에 있는 世個의 圈, 世個의 世界로 갈라져 있다고 했다. 美·蘇의 超大國을 第1世界로, 亞·阿·中南美의 開發途上國들을 第3世界로, 그리고 이들 兩者의 中間에 있는 先進國들을 第2世界라고 규정하였다. 中·蘇對立에서 오는 反蘇意識에서 社會主義陣營은 이미 存在하지 않는다는 鄧小平의 發言은 注目할만한 것이었다.

中共에 있어 第3世界란 反美뿐만이 아니라 反蘇鬭爭의 中心舞臺였다. 1965年 후반부터는 점점 反美鬭爭보다는 反蘇鬭爭에 중심이 옮겨지고 있는 동안 1969年 4月에 <九全大會>가 開催되었다.

이 大會를 계기로 <文化大革命期>의 結算을 시도했고 아울러 文革期의 外交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亞·阿地域에 대한 外交的 進出에 拍車를 가하게 되었다. 이것은 中共의 對<中間地帶外交>의 새로운 段階로서 第3世界外交의 새로운 출범이었다.

요컨대, 오늘의 中共의 對外關係에서 設定하고 있는 目標의 밑바닥에는 舊中華帝國에 대한 강열한 嚮수가 남아있다. 中共은 옛날처럼 또 하나의 世界的 超強國이 되려는 欲望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主張하고 展開하는 對外路線의 名分과 實踐은 결국 이 目標를 향해 前進하며 狀況에 適應하고 反應하려는 하나의 戰略인 것이다.



第5章 東欧共產主義의 體制變動

目 次

第1節 東欧改革主義의 展開	114
1. 東欧改革主義의 形成背景	
2. 改革主義의 展開過程	
第2節 東欧體制變化의 諸斷面	125
1. 政治的 리더쉽의 構造的 行政的 變化	
2. 經濟體制的 構造的 改革方向	
3. 社會的 多元主義	
4. 知性文化의 噴出	
5. 對蘇 自主路線의 追求	



<東歐>라는 概念은 政治的 特性을 強調한 用語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왜냐하면 <東歐>라고는 하나 地理的으로나 人種的, 民族的, 그리고 歷史的 經驗이라는 面에서 類似性을 찾아 同一한 範疇로 一般化하기가 꽤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地理的으로 보더라도 東獨은 中歐에 속하고 있으며 유고같은 나라는 南歐에 가깝다. 人種的으로는 슬라브族이 主流이기는 하나, 루마니아같이 라틴系 民族이 있는가 하면 東獨처럼 純粹한 獨逸民族도 있다. 民族이 多樣한 만큼이나, 言語나 歷史的 傳統, 그리고 産業發展의 水準에서 깊은 異質性을 內包하고 있을 것임은 再論을 要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면, 東歐라는 terminology (Terminology) 는 하나의 政治的 概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正確할 것 같다.

이들 東歐諸國은 一般的으로 말해 共產化될 수 있는 客觀的 與件이 아니었음에도 不拘하고, 蘇聯의 直接的인 影響力 行使때문에 共產政權이 樹立될 수 있었다. 그런데다 地理的으로 西歐와 隣接하고 있어, 西歐의 多種多樣한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刺戟들을 손쉽게 受容, 內面化해 온 歷史的 傳統때문에 共產主義體制가 固着되는 過程에서의 어려움도 크다.

東歐를 理解하는데 있어서 빠서는 안되는 것이 宗教問題이다. 共產國家라는 特殊한 狀況과는 兩立되기 어려운 것이 宗教이지만, 이들 東歐諸國에서 宗教가 차지하는 比重은 常識的인 認識水準을 훨씬 웃돌고 있다. 폴란드 같은 나라는 國民의 90%以上이 天主教 信者이고 東獨에서도 基督敎의 影響力은 至大하다. 나머지 나라에서도 宗教的인 遺産, 그리고 그 遺産의 顯在化가 갖는 意味는 결코 過小評價되 어질 수 없을 程度이다. 이러한 宗教的 바탕 때문에 共產主義 ایده올로기가 東歐 國民들의 心象속에 定着되기 어려운 또 하나의 크나큰 要因이 露呈되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葛藤要因에도 不拘하고 東歐를 拋棄할 수 없는 것이 變함없는 蘇聯의 立場이다. 主要한 前進基地로서의 軍事的 價値外에도 政治, 經濟的 利害關係에서 보더라도 蘇聯으로서의 어떠한 犧牲을 감내하고서라도 守護하지 않으면 안되는 東歐인 것이다.

이러한 內外的인 葛藤要素 때문에 더욱 東歐의 體制變化는 深重한 意味를 띠

게 되고, 더 한층 格別한 學問的 關心의 對象이 되고 있다.

第 1 節 東歐改革主義의 展開

1. 東歐改革主義의 形成背景

東歐諸國中에서도 東獨과 체코슬로바키아는 이미 共產化되기 以前에 世界水準의 經濟發展을 이룩했던 나라들이다. 뿐만 아니라 두 나라는 世界1次大戰以後 히틀러가 政權을 專斷하기까지 생생한 議會民主主義의 經驗을 쌓아 왔음도 重視되어야 할 史實이다.

폴란드도 近代史를 통해 거듭되는 外勢의 侵略으로 分轄統治되는 民族的 受難을 甘受해야 하였지만, 오히려 이러한 逆境속에서 天主教라는 精神的 支柱를 中心으로 高度의 民族的 一體感을 키워왔고 나아가 그 文化的, 歷史的 傳統으로 보아 오히려 西歐指向的 屬性을 強하게 띠어 왔다. 西歐文化의 受容力이 높다는 點에서는 헝가리도 特記할만 하다. 오스트리아·헝가리帝國以來 西歐文化의 東進通路로서의 歷史的 經驗과 民族的 特殊性은, 슬라브民族 意識의 相對的 缺如와 複合的으로 作用함으로써 헝가리의 西歐指向的 文化特性을 深化시키는 重要な 要因이 된 것이다.

유고슬라비아의 境遇도 <슬로바니아>와 <크로아티아>를 主軸으로 하는 北部文化圈에서는 일찍부터 西歐文化와 廣範圍한 接觸을 累積시켜 나옴으로써 로마카톨릭에 歸化할 수 있었고, 이와 더불어 民主主義의 思潮와 分權的 政治秩序에 익숙할 수 있었다. 거기다가 工業化의 水準 또한 높았다.

以上の 特徵的 現象에서 보여지듯이 東歐諸國中 主要한 몇몇 나라는 近世史와 最近世史의 展開過程속에서 이미 「非東歐的」體質을 形成해 나왔음이 確然한데, 이것이 2次大戰以後 共產化를 겪은 뒤에도 連綿히 이어져 옴으로써 改革主義가 胎動될 수 있는 重要な 바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들 諸國에서 共産黨이 政權을 掌握하게 되는 過程 또한 東歐體制의 本質을 理解하는데 重要한 認識의 準據가 되고 있다. 東歐 共産政權의 樹立過程은 세가지로 類型化 될 수 있다.

첫째,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의 境遇로서, 共産黨 自體의 能力으로 政權을 爭取한 例이다.

둘째, 폴란드, 東獨 및 루마니아 같은 나라들은 外部 即 蘇聯의 武力介入에 힘입어 政權을 掌握한 境遇이다.

세째, 위 두가지 境遇가 混合된 例로서 불가리아, 헝가리 및 체코슬로바키아를 들 수 있다.

대체로 보아 共産黨 自體의 能力으로 政權을 掌握한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의 境遇, 比較的 蘇聯으로부터 自由로울 수 있었으며, 실제로 이들 나라들은 以後 脫소비에트의인 獨自의 社會主義路線을 걷는다. 其他 다른 國家들도 程度의 差異는 있으나 共産化過程에서 蘇聯의 物理的 힘의 作用하였고, 이는 이들 나라의 共産化에 決定的인 契機가 된다. 그러나 蘇聯은 東歐諸國의 共産化過程에서 이른바 民族戰線 戰術을 선보여 名目上으로는 多黨制度를 바탕으로 하는 聯邦政治를 꾀하는 등, 比較的 漸進的인 過程을 밟았다. 1945年에서 1948年까지 繼續된 이 過渡期間동안 共産黨을 除外한 나머지 政黨들은 時間과 더불어 점차 衛星政黨으로 轉落하게 되고 급기야 共産獨裁政權이 들어서게 된다. 비록 共産黨이 主導하는 形骸化된 多黨制이었을지언정 어떤 意味에서는 共産主義와 民族主義가 共存했던 이 時期의 經驗은 當時 混合經濟的인 <社會主義的 企業家精神>을 強調했던 經濟體制的 特性和 더불어 많은 改革主義者들의 腦裡속에 美化된 記憶으로 남아 있다. 아직도 東歐諸國의 여러 나라들은 이 戰後 過渡期의 政治的 遺制로서 衛星政黨體制를 維持하고 있으나 이들 <友黨>들이 政治過程속에서 實質的 機能을 喪失한지 이미 오래다.

2. 改革主義의 展開過程

가. 티토의 挑戰

世界 共產主義運動에 있어서 單極主義를 反對하고 共產國家 相互間的 同等한 파트너쉽 (Partnership) 과 나라마다의 固有한 狀況에 適合한 <社會主義로의 獨自路線>을 闡明한 <티토>의 決斷은, 움직일 수 없는 權威를 崇拜해오던 스탈린主義에 對한 무서운 挑戰이었다. 蘇聯과의 訣別以後 유고슬라비아에서는 經濟企業에 對한 權限委任이 廣範圍하게 이루어져 下部組織의 自律性이 尊重되기 始作했다. 即, 企業體內에 <自治管理委員會>가 誕生하는가 하면, 地方政府에 對한 意思決定 權限의 委讓이 繼續 增加하였다. 이때 이미, 以後의 <유고슬라비아 模型>의 根幹이 되는 「經濟企業에 있어서 生産者의 直接參與」思想의 萌芽가 뚜렷하게 드러나기 始作한 것이다.

유고슬라비아의 獨自路線 追求宣言이 물고온 衝擊波의 渦中에서 맞게 된 1953年 스탈린의 죽음은, 東歐改革主義에 새로운 活力素를 마련해 준 事件이었다. 곧 이어 東베를린에서 勞動者들의 暴動이 勃發했고,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에서도 비슷한 事件이 터졌다. 이들 事件의 衝擊으로 헝가리에서는 <나기>의 主導下에 <新路線>이라 불리워지는 穩健한 改革이 推進되었고, 蘇聯에서도 말렌코프下에 一聯의 經濟改革이 試圖되었다.

나. 脫스탈린化와 改革主義의 澎湃

1956年 第20次 蘇聯共產黨大會에서 흐루시초프는 脫스탈린化에 앞강을 設으로써 스탈린主義의 이데올로기와 統治樣式, 그리고 社會·經濟的 發展 模型에 決定的인 鐵槌를 加했다. 蘇聯의 單極的인 宗主權과 獨占的인 이데올로기 解釋權을 含蓄했던 스탈린體制의 神話가 무너짐에 따라 東歐諸國의 改革主義는 다시 그 波高를 높일 수 있었다.

헝가리의 境遇 改革主義가 보다 激烈한 面貌를 보이다가 끝내 蘇聯의 軍事的 介入을 惹起시키는 不幸을 낳은데 비해 폴란드에서는 한때 肅清당했던 「고물카」의 黨 第1書記에로의 復歸와 <10月革命>으로 불리우는 大規模의 改革이 成功的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東獨과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改革主義의 기운이 高潮되어 갔다.

比較의 觀點에서 볼 때 폴란드와 헝가리의 境遇와 東獨과 체코슬로바키아의 境遇는 좋은 對照를 보인다. 即, 前者의 例에서는 國民의 支持를 받는 政治指導者 (<고몰카>와 <나기>)가 改革運動의 主導的 役割을 擔當했음에 비해 東獨과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오히려 知識人들이 앞장을 섰다. 그 結果 前者의 境遇, 改革主義가 體制全般에 擴散될 수 있었음에 반해, 後者의 例에서는 그것이 黨 頂上의 政策決定 水準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勞働者들의 共感을 얻기에도 充分하지 못했다.

<브레진스키>는 著書 <소비에트 블럭>에서 흐루시초프에 의해 主導된 脫스탈린化運動에 東歐 各國이 各其 다른 反應을 보인 그 裏面에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 要因이 背景變數로 作用하였다고 敍述하고 있다. 即, ① 國內的 社會經濟的 危機의 크기 ② 勞働者階級과 인텔리階級이 共產政權으로부터 疎外된 程度 ③ 個別 共產政權이 反티토政策에 介入된 程度 ④ 리더쉽의 人氣

<브레진스키>는 이러한 4가지 變數를 中心으로 1956년에 있었던 헝가리와 폴란드의 劇的인 變化를 說明하고 아울러 여타 國家에서는 比較的 잠잠했던 까닭도 밝혔다.

여기서 1956年 當時 改革主義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던 헝가리, 폴란드, 東獨, 체코슬로바키아 등 네 나라에서 提示되었던 主要 改革프로그램의 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블럭 (Bloc)內的 平等關係, 即 蘇聯으로부터의 自主性 回復
- ② 党内 民主化 및 大衆統制의 緩和
- ③ 選舉過程의 改革, 政府權力的 地方政府로의 分散을 包含하는 政治體制의 改革
- ④ 經濟分野의 分權化
- ⑤ 法の 回復, 政治的 犧牲者의 復權
- ⑥ 文化 및 科學部門에서의 自由 擴大
- ⑦ 마르크시즘의 人間化
- ⑧ 平和共存

이들 여러 나라의 改革프로그램은 놀라울 程度의 類似性을 서로 보이고 있다.

우선 이들 몇몇 나라는 이러한 激動의 時期동안 비록 非組織的이나 相互間 어느 程度의 思想의 交流가 있었음을 否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폴란드에 있어서 이른바 「10月革命」의 決定的 契機를 만들었던 第8次 党全會會議의 消息이 곧이어 10月22日 헝가리에서 大規模의 反體制 示威運動을 불러 일으켰던 點이나, 체코슬로바키아의 知識人들에게 繼續 <修正主義的> 思考를 傳播시켰던 主要 요람이 다름아닌 駐프라하 폴란드文化센터이었던 點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들 諸國의 改革主義 프로그램은 改革에 의해 새로 樹立될 社會의 未來像이나, 이를 成就하기 위한 方法等에 있어서는 어떤 共通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대체로 이들 프로그램은 소비에트 블럭으로부터의 完全脫退, 共產黨의 指導的 役割 否認, 經濟的 資本主義 및 多黨制의 議會民主主義의 導入과 같은 極端的인 體制改革的 思考는 內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市場社會主義(Market Socialism) 類型的 包括的인 經濟改革을 要求하는 것에도 매우 주저했다. 여러 나라에서 유고슬라비아의 勞動者 自營管理體制에 對한 論議가 분분했으며 이의 實質的인 導入에 關하여서는 얼마간의 留保的 態度가 뒤따랐다. 興味있는 것은 當時 東獨의 <하리히> 프로그램은 收斂論(Convergence Theory)의 原初的 思考를 內包하고 있었다는 點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當時 東歐의 많은 改革主義者들의 마음속에는 收斂論的인 發想, 即 脫스탈린化된 東歐와 資本主義的 西歐가 각기 企劃과 民主主義를 交換함으로써, 兩體制가 共存할 수 있으리라는 期待가 자라고 있었으리라 하는 추정을 可能케 한다.

1956年을 풍미했던 改革主義 思想중 훗날에까지 가장 큰 影響을 끼친 프로그램은 폴란드의 <10月革命>에서 잠시 선보였던 經濟改革에 關한 아이디어였다. 既存 社會主義 經濟體制가 市場社會主義 經濟體制로 轉換하는 것을 窮極目標로 겨냥한 이 改革案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內容을 담고 있었다. 即, 「中央企劃制度는 基本的 틀로서 存續된다. 그러나 經濟的 企劃들은 그들간에, 또 그들과 相對하는 去來組織과 市場의 關係를 形成하게 된다. 企業의 利潤이 企業의 成敗를 가름하는 唯一의 指標가 되며, 投資額중 큰 部分이 企業의 自體水準에서 管理되어야 한다. 또한 大部分의 價格도 企業의 裁量權下에서 決定되어야 한다.

그리고 國際貿易에 對한 지금까지의 國家獨占은 크게 緩和되어야 하며, 大部分의 製造業體에게 獨自의인 交易權을 賦與하여야 한다.]

1956년에 있었던 東歐 自由化運動의 主體는 一般的으로 勞動者, 青年 및 學生을 包含한 知識人,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改革意志에 呼應한 一部 黨 幹部들이었다. 스탈린主義的 雰圍氣가 殘存했던 當時의 狀況에서 위의 세 集團間에 組織的인 橫的 意思疏通이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폴란드와 헝가리의 境遇, 勞動者들이 앞장을 섰고, 이들과 直接的인 交涉이 없었으나 知識人들도 같은 軌道를 쫓았다. 反面에 黨 幹部들로서는 既存利益에 對한 執着과 改革意志 사이에서 葛藤을 겪었기 때문에 相對的으로 消極性을 띠 수 밖에 없었다. 어느 나라에서도 위의 세 集團間에 一絲不亂한 共同步調가 取해지기 어려웠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다. 유고의 改革 프로그램

1958年 4월에 유고슬라비아 共產主義聯盟의 第7次 黨大會가 열렸다. 여기서 採擇된 새 綱領속에는 새로운 改革主義 意志의 結晶이 豐盛하게 收錄되어 있었다. 그 主要한 內容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르크시즘은 絶對的 價値를 지닌 敎條體系가 아니다. 이는 社會過程에 對한 하나의 理論이며 繼續的인 創造的 再解釋을 必要로 한다.

둘째, 프롤레타리아獨裁는 勞動者의 利益增進을 可能케 하는 諸關係의 總體的 合이다. 이는 直接民主主義(即, 自己管理體制)의 體系를 통하여 成就된다. 國家機構는 社會發展의 決定的 要素가 아니다.

셋째, 共產黨은 社會主義를 實現시키기 위한 排他的 權利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權力이나 眞理解釋權을 獨占해서는 안된다. 黨의 指導的 役割은 大衆的 主導를 代替하지 못한다.

넷째, 國有化는 自己管理를 위한 最初의 過渡的 段階이다. 企劃은 市場的 諸關係와 自由로운 經濟的 이니시아티브를 위한 巨視的 經濟의 틀을 形成해 준다.

다섯째, 科學과 文化는 短期的인 政治的 利益에 從屬되어서는 안된다. 科學과 文化의 發展은 自由의 領域이다.

여섯째, 個人의 自由와 幸福을 <보다 큰 考慮>를 理由로 犧牲할 수 없다.

일곱째, 國際共產主義 내지 勞動階級運動에서 單極主義는 拒否되어야 한다. 社會主義로의 多様な 길이 可能하며, 또한 多様な 形態의 社會主義도 可能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以後 東歐 改革主義에 있어 하나의 章典과도 같은 意味를 含蓄했다. 그러나 이 章典도 이른바 <政治的 多元主義>, 即 그들이 標榜하는 開明된 改革共產主義가 非共產主義的 政治集團의 利益과 兩立될 수 있다는 立場의 命題에 對하여는 默然不答이었다. 實際로 이 禁忌를 처음으로 깬 것은 1964年 폴란드의 두 젊은 歷史學者가 黨에 보내는 公開書翰에서 이 問題를 다룬 일이었다. 두 사람은 여기에서 階層的으로 構成된 勞動者評議會와 勞動者政 黨에 의한 多元主義를 結合시킬 수 있는 社會主義 模型을 提示했다. 新左翼의 屬性을 가진 이 움직임은 官僚制와 엘리트主義에 대해 늘 攻撃의 화살을 퍼부었다. 그러나 大部分의 東歐 改革主義者들은 그 處方에 對하여는 항상 留保的이었다.

라. 經濟改革의 方向

1960年代初에 이르러 蘇聯과 中共間의 軋轢이 深化됨에 따라, 이는 곧장 東歐 改革主義에 間接的인 影響을 끼치기 始作한다. 蘇聯型和 區別되는 <다른 種類의 社會主義>, 예컨대 中共式 模型의 出現可能性은 이들의 變革意志를 刺戟하기에 足했다. 루마니아가 外交舞臺에서 점차 獨自的 立場을 標榜하기 始作한 것도 이때의 일이었다.

中共과의 關係斷絶은 무엇보다 東歐의 몇몇 나라에게 經濟的 餘波를 남겼다. 1960~'62年동안 체코슬로바키아의 經濟가 急激히 惡化되는 裏面에는 이와 같은 理由가 크게 作用했다. 即, 이 나라의 第3次 5個年計劃속에 包含되었던 交易의 큰 部分이 이 때문에 蹉跌을 빚었기 때문이다.

1960年代 前半期에 이르자, 東歐諸國은 深刻한 經濟的 困境에 處하게 된다. 經濟成長이 급작히 下落되기 始作했고 이른바 <構造的 矛盾>이 머리를 들기 始作한 것이다. 命令爲主의 既存體制는 이에 대해 束手無策이었으며, 그 結果 이미 테크놀로지의 發達을 앞세운 西歐와 東歐間의 經濟的 隔差는 더욱 벌어지게 되

었다. 이와 같은 經濟現實에 直面하여 東歐 政治指導者들은 經濟領域에 있어서 改革의 必要性을 切感하고, 經濟理論家들에게 救濟策을 講究하도록 請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案出된 改革案은 대체로 두개의 範疇로 整理될 수 있다.

即, 그 하나는 <中央管理의 合理化> 모델이며, 다른 하나는 企劃과 國家介入의 틀속의 「市場社會主義」 모델이었다. 前者에 속하는 나라로는 폴란드, 東獨, 불가리아 및 루마니아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와 헝가리는 後者의 境遇로 列擧된다. 유고슬라비아는 이미 獨自의 企業家精神과 自主管理體制를 바탕으로 하는 市場社會主義型의 經濟改革을 制度化시킨 바 있다.

前者인 合理化 모델은 集權化의 程度를 낮출 것과 電算化의 必要性, 中央指標의 數的 減縮과 綜合的 企業指標(利潤性)의 採擇, 契約的 關係의 強化等을 새롭게 強調했고, 아울러 企業을 強制하기보다는 그에 影響을 加할 수 있는 貸付나 租稅等의 活用이 提示되었다. 반면 1950年代의 폴란드 經濟改革思想에서 淵源하는 市場模型은 市場構築까지의 過渡期동안 經濟規制의 手段으로서 다음과 같은 方案이 講究되었다. 價格策定은 分權化되어야 하며 企業所得의 極大化가 企業의 主된 成功指標가 되어야 한다. 國家는 經濟에 干涉할 수 있는 干涉權을 留保하고 있으나 可能한 限 直接介入은 避해야 하며, 巨視經濟的 構造(國家의 重要性을 띤 投資)와 非市場的 領域(環境等)의 管理는 역시 國家에 歸屬된다.

經濟領域에 있어서 非命令的 類型의 體制改革이 具體化되면서 東歐 改革主義의 面貌는 보다 뚜렷해졌다. 60年代 中盤에 이르기까지 經濟, 哲學, 政治, 文化 및 對外關係等 모든 領域에 있어서 改革主義의 思考가 具體化되고 그 一部는 實現段階에 이르렀으나 그 大部分이 領域에 따라서 分離되어 論議되었지, 包括的인 改革內容으로 體系化되지 못한 감이 없지 않았다. 무엇보다 改革主義者들의 關心을 끌었던 유고슬라비아의 模型이 當初의 뜻대로 機能하지 못하고 試行錯誤를 거듭했다. 실제로 유고에 있어서의 體制運營의 어려움은 이미 共產化 以前에 이 나라가 안고 있던 술한 難題, 即 政治的 民主主義의 缺如, 勞動構造의 後進性, 産業의 落後等과 聯關되며, 以外에도 複數民族 國家라는 構造的 어려움등이 함께 作用했다. 유고슬라비아에 있어서 自己管理體制가 진정한 政治的 民族主義로 發

展되지 못했다는 것이 이 體制의 限界性を 드러냈다.

마. 프라하의 봄

1968年 勃發했던 체코슬로바키아의 <프라하의 봄>은 이미 1960年代初 두 개의 知性集團에 의해 漸進的인 準備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한 그룹은 文人和 芸術家로 構成되는 創作人들이었고, 또 하나는 經濟, 工業, 社會學, 哲學等 諸般分野와 聯關되는 學界와 實務界의 專門家로 構成되어 있었다. 이들 集團에 의해 발효된 改革意志는 곧 學生들과 進就的 党幹部의 意識속에 點火되었고, 이들 集團들은 점차 폭넓은 聯合勢力으로 成長하게 되었다. 이들 改革엘리트의 願望이 政治的 現實可能性으로 나타난 것은 1968年初 改革政治人인 <두브체크> (Alexander Dubcek)가 党第1書記로 들어오면서부터였다. 이들 改革엘리트들을 한데 묶어주는 最大公約數는 經濟 및 政治의 效率성과 보다 큰 自由에 對한 念願이었다. 특히 <노브트니>政權의 党官僚獨裁에 의하여 招來된 慢性的 經濟危機와 질식할 듯한 政治的 暴壓, 親체코政策에 따른 슬로바키아인 및 其他 少數民族의 澎湃한 不滿等은 이들 知性人들의 改革意志를 크게 刺戟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과격한 政治變革을 피하기보다 社會主義의 一般的 틀속에서 漸進的 體制轉換을 통한 目標에의 接近을 願했다. 따라서 이들의 政治的 口號는 두개의 極端的 軸, 即 <資本主義로의 回歸>나 혹은 <뉴레프트의>意味의 反官僚革命으로 치달지는 않았다. 今世紀 政治史에 <人間的 面貌의 社會主義> (Sozialismus mit Menschlichen Antlitz)를 追求했던 슬픈 記錄으로 남겨진 <프라하의 봄>의 主要特徵은 進就的 党官僚까지를 包含하는 變動追求의 知的 엘리트들에 의하여 主導되고 既存體制에 厭症을 느낀 民衆에 의하여 뒷받침된 全國民的 改革運動이었다는 點이다. 여기서 民衆은 變動役軍인 엘리트의 政治的 背後勢力을 意味할 뿐 아니라 變動의 振幅과 速度에 影響을 가하는 壓力의 震源이기도 했다. 엘리트와 大衆間의 政治的 和合이 이처럼 조화롭게 또 理想的으로 이루어진 例는 歷史上 그리 흔하지 않다. 폭넓은 民衆의 支持속에 체코슬로바키아의 政治的 改革意志를 集約한 1968年4月の 체코共産党 行動綱領과 <바쿠릭> (Ludvik Vaculik)이 基礎한 「2千語宣言」에 나타난 이들의 行動

目標은 다음과 같다.

① 根本目標은 社會主義的 社會關係의 動態的 發展을 可能케 하고 폭넓은 民主主義와 科學的이며 專門的인 能力爲主의 管理를 結合시킬 수 있도록 全體 政治體制를 變革시키는 것이다.

② 共産黨의 民主化가 급선무이며, 黨은 더 以上 <레닌>과 <스탈린>에 의하여 마련된 <民主的 中央集權主義> 原則에 의하여 支配되어서는 안된다. 黨의 指導的 役割은 認定하나 獨裁者로 君臨해서는 안된다.

③ 議會制的 民主主義와 直接民主主義의 結合에 의하여 政治體制는 再編成되어야 한다. 最小限의 共同프로그램에 의하여 연결되는 人民戰線의 範疇下에서 活動하는 多黨制가 必要하다.

④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와 <슬로바키아> 共和國으로 構成되는 聯邦形態로 바뀌어져야 하며 少數民族에 대한 文化的 價値가 認定되어야 한다.

⑤ 市民의 自由權, 司法權의 獨立, 政治的 犧牲者의 復權, 言論, 結社 및 居住移轉의 自由 등이 保障되어야 한다.

⑥ 企業 및 各種 機關에 勤務하는 勤勞者의 自己管理가 保障되어야 한다.

⑦ 國家의 干涉과 巨視的 經濟企劃을 留保하는 範圍內에서 市場社會主義 形態로 體系的인 改革이 要求된다.

⑧ 文化의 自由 및 國家權力으로부터의 保護, 學問研究의 自由가 要求된다.

⑨ 蘇聯 및 東歐블럭과의 紐帶를 維持하면서 보다 활발한 外交政策을 펼친다. 主權과 同等權의 保障, 特殊狀況에 대한 尊重, 폭넓은 國際的 接觸과 公開的 意見交換 등을 外交의 基礎로 한다.

⑩ 우리는 새로운, 극히 民主的인,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의 狀況에 相應하는 社會主義國家 建設에 앞장을 선다. ……………우리는 疇型化된 生活을 拒否한다. 우리는 未知의 條件下에서 社會主義的 發展에 새로운 性格을 賦與할 수 있는 길을 찾고 實驗해야 할 課題를 스스로 賦與한다.

⑪ 마르크시즘을 <改革哲學>으로 理解한다. 公開的인 討論을 통하여 특히 마르크시즘의 人間的 側面을 보다 豐饒하게 發展시켜야 하며 마르크시즘의 獨斷的

解釋이란 있을 수 없다.

以上으로 集約되는 체코슬로바키아의 改革프로그램은 1956年の 폴란드 및 헝가리 改革案과 比較할 때 적지 않은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 「프라하의 봄」의 例는 그 以前의 改革等에 비하여 보다 熟考된 思考體系를 반영할 뿐 아니라 政治 프로그램과 經濟 프로그램을 體系있게 연결시킨 綜合的 政策方案이라는 點에서 그 特徵이 浮刻된다.

그러나 체코슬로바키아의 自由化運動은 體制內的 汎國民的 運動으로까지 發展되었으나, 外部의 決定的 要因, 即 蘇聯의 武力介入으로 그 開花直前에서 무산되고 말았다. 以後 體制는 다시 權威主義的 秩序에로 反轉의 길을 걷는다.

바. 폴란드의 自由勞組

1980年初 폴란드 政府가 肉類價格 引上을 發表하자 이에 대한 勞動者들의 罷業이 폴란드 곳곳에서 일어났다. 곧이어 政府는 그들의 罷業을 막기 위하여 賃金引上 및 그밖의 要求들을 들어 주었으나 勞動者들은 8月14日에 있었던 <그단스크>造船所의 罷業을 契機로 점차 그 政治的 色調가 짙어진다. 8月16日 그단스크 周邊의 21個 企業의 勞動者들은 <工場內 罷業委員會>가 結成되어 罷業活動의 調整과 罷業勞動者의 代表機能을 擔當한다. 이 委員會는 言論, 情報의 自由, 自由勞組 結成, 政治犯 釋放, 國際勞動協同犯 釋放 등 11個項의 要求條件을 公表하여 그간의 一聯의 運動이 體制의 自由化, 人間化를 위한 政治的 努力이었음을 뚜렷이 한다. 이른바 <뜨거운 8月>의 마지막 날인 8月31日 <그단스크>에서 政府代表와 罷業者間의 最終合議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獨立的, 自律的인 勞組의 結成權이 認定되었으며, 以外에도 年末까지 檢閱關係의 法改正, 月曜미사의 放送中繼, 政治犯의 釋放 등 勞動者들의 要求가 폭넓게 認定되었다. 9月4日 드디어 <기에레크>(Edward Gierek)가 權座에서 물러나고 <카니아>(Stanislaw Kania)가 이에 대치했다.

勞動者들의 自由化의 熱望이 끝내 權力頂上의 變化를 誘導한 것이다.

그러나 폴란드의 自由化의 물결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繼續 그 열도를 가하고 있다. 이제 自由勞組는 體制改革의 主體임을 闡明했고 이

나라 出身인 敎皇의 精神的 支援속에 繼續 改革作業에 앞장을 서고 있다. 1970年의 폴란드 事態가 그렇듯이 1980 - '81年의 폴란드事態의 境遇도 最初의 端緒는 經濟的 不滿에서 비롯되나 그것이 熱度를 가해가면서 體制에 對한 累積된 不滿으로 이어져 끝내 政治的 性格을 強하게 띠게 된 것이다. 初期에는 勞動者의 罷業으로 始作되었으나, 이들은 곧 體制批判的 言論, 知識人, 靑少年, 宗教集團 等 多元的 社會勢力의 側面支援을 받고 汎國民運動으로 發展한 것이다. 그러나 黨과 政府로 集約되는 政權은 <아래로부터의> 改革意志에 對해 事後對應에만 급급할 뿐 1968年 <두브체크>가 보였던 <위로부터의> 體制改革의 決意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 點에서 1956年 <고몰카>에 의해 主導되었던 <폴란드의 10月>과는 性格을 달리한다.

第2節 東歐體制變化의 諸斷面

지금까지 東歐에서의 改革主義의 抬頭와 그 展開過程을 살펴본 바와 같이 體制改革을 要求하는 願望들이 모두 成事되는 것은 아니다. 그중 얼마는 現實政策으로 빛을 보나, 많은 部分은 論議段階에서 그쳐버리고 만다. 그러나 内外의 政治的 壓力, 특히 蘇聯의 介入等에 의해 霧散되어 버렸던 改革主義的 諸要求도 대체로 一定한 時期가 지나면 새로운 形態로 다시 抬頭되는 것이 常例이며, 그러한 意味에서 繼續 體制의 潛在的 變化源으로 作用한다고 말할 수 있다.

1. 政治的 리더쉽의 構造的 行政的 變化

- 테크노크라트의 得勢 -

東歐 政治體制의 變化樣相중에서 主된 關心을 기울이게 하는 현상은 이들 諸國에서 最初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테크노크라시> (Technocracy) 현상이다. 實際로 東歐 共產諸國의 엘리트에 관한 最近의 많은 經驗的 研究은 대체로 이들 나라에 있어 技術指向的 官僚制의 抬頭現象을 指摘하고 있다. 이에 따

르면全體主義的動員方式에依存하던東歐諸國의政治體制(Polity)는 그동안이룩한産業化에 따라複合的인産業社會의管理를 위하여 스스로의變化를摸索하게 된다.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의 두드러진現象이 이른바技術指向的屬性이 강한 <合理的·合法的官僚制>에의轉化努力이며, 이에 따라體制管理期의主役으로 <테크노크라트>(Technocrat)가浮上한다는 것이다.

보다具體的으로東歐에 있어 <테크노크라트>의抬頭現象과 그限界를 살펴보기 위하여東獨을例로 하면 다음과 같다.

1960年代初東獨이 <新經濟體制>를導入發展시키면서부터 새로운改革의潛在力이蓄積되기始作한다. 經濟가 점차電算테크놀로지와資料處理사이버네틱스等諸條件에適應하기始作되자黨 또한幹部의質的資格條件을 높이고黨機構의活性化, 經濟 및 行政業務의部分的分權化等を試圖하기始作한다. 이러한 흐름은全體社會內的多様な下位體系의自律性を 높이는데寄與했고政策決定에 있어專門性を強調하는氣風을一般化시켰다.

<루츠>(C.P. Ludz)는 이러한 새로운發展趨勢에影響을 받아黨內에서抬頭되기 시작한科學技術指向의 새로운 엘리트를 가리켜 <制度化된反엘리트>라고命名한다. <하리히>를中心으로 1956~57年間に 세차게抬頭되었던改革共產主義者들과 달리 이들 새로운類型的 엘리트는體制內에서活動한다. 또한 이들은體制에挑戰하기보다는 그들이重視하는科學的原則을改革問題解決에體系적으로適用함으로써硬直化된黨의教條로부터漸進적으로解放되고자한다.

<루츠>는 1954年, 1958年 및 1963년에黨中央委員會의正委員 및 候補委員 275名의經歷上的特徵을分析한後, 이로부터專門化過程의深化와黨 및 國家官僚機構間的機能的分化現象을抽出하고 젊고高度로專門化된黨幹部の抬頭現象을 밝혔다. 專門管理型的 엘리트중 <미탁>(Günter Mittag)은 60年初黨政治局委員으로拔擢되었고 이에 따라專門엘리트의權力엘리트로의轉化가 시작된다. 이러한 흐름을分析하면서 <루츠>는東獨이統制와 <體系的테러>에依存하는嚴格한 스탈린體制로부터 <協議的權威主義體制>로變化했다고

判斷하고 있다. 比較的 教條主義者로 알려졌던 <올부리히트>도 60年代以後 新時代의 體制管理를 위해 改革主義의 물결을 外面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改革主義의 面보다 새로운 엘리트의 抬頭傾向은 1971年 <호네커>가 權座에 오르자 눈에 띄이게 退潮하기 시작한다. 東獨에 있어서의 改革主義의 限界는 政治指導者 變化의 次元 以外에도 體制 自體의 보다 深層的인 原因에서 연원하는 스스로의 限界가 있음을 看過하기 어렵다. 即, 東西獨 分斷以後 分斷國家의 狀況이 던져주는 統合危機 때문에, 強力한 改革主義의 물결이 支配하리라고 期待하기 어려운 立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政權은 黨의 指導的 役割과 既存의 權力엘리트의 諸利益을 크게 侵害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體制를 理論的 産業社會의 諸條件에 適應시키려고 努力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體制 維持와 體制近代化의 調和의 必要性은 바로 改革主義의 成長 可能性과 또 그 現實的 限界를 함께 規定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政權을 새로운 變化에 對應하여 既存黨幹部의 資格(專門性) 水準을 높이는데 關心을 두는 한편, 새로 抬頭되는 科學技術 엘리트에게 黨性和 이데올로기를 注入시켜야 하는 複合的인 課題를 안겨주게 되며 이러한 一般的인 傾向은 餘他的 東歐諸國에서도 類似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 經濟體制의 構造的 改革方向

經濟改革案은 大部分의 東歐諸國에서 實施되었으나 實際로 여러 나라가 中道에서 拋棄했거나 별다른 進展없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形便이다. 體制改革이란 말이 어울릴 程度로 變化를 가져온 나라는 헝가리와 유고슬라비아 뿐이라고 말해도 크게 지나치지 않는다. 新經濟制度란 이름을 붙인 헝가리의 境遇, 基本的으로 經濟計劃 및 運營方式을 바꾸어서 市場要素를 크게 導入한, 內容上 市場社會主義型의 體制改革이었다. 유고슬라비아에서의 經濟改革은 헝가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 유고의 經濟體制가 갖는 가장 뚜렷한 徵表는 經營管理와 計劃經濟에 있어서의 改革이다. 이 經濟體制의 特徵은 政府가 經濟의 組織構造 類型 및

成長에 관한 뚜렷한 目標을 設定하되 이 目標을 推進하는 過程에서 政府計劃을 市場經濟要因 및 分權的 이니시아티브와 適切히 調整하는 것으로서 그 具體的 變貌는 다음과 같다.

- ① 勞動者의 自己管理
- ② 提示的 企劃
- ③ 市場機構에 의한 資源配分
- ④ 價格形成에 있어서 市場의 役割 提高
- ⑤ 投資 等 企業의 意思決定의 獨立性 提高
- ⑥ 利潤과 銀行貸付에 의한 企業의 投資財源 形成

⑦ 外國貿易의 自由化인데 이중 勞動者의 自己管理制度는 다음과 같다. 유고의 境遇 1950~'54 年間の 一切의 國營企業은 勞動者集團에 移讓되었고 企業의 所有形態는 <國家의 所有>로부터 <社會의 所有>로 轉換되었다. 이에 따라 企業管理의 主된 責任은 勞動者들에 의하여 選出되는 勞動者評議會와 이에 의하여 任命되는 經營委員會 및 企業長에게 맡겨진다. 따라서 自治的 經營單位로서의 企業은 比較的 競爭的인 일 뿐 아니라 자유로운 市場條件下에서 活動하며, 聯邦 및 支分國의 監督과 地方政府에 의한 약간의 統制를 除外하고는 源泉的으로 製造, 購入販賣, 價格 및 輸出入에 관한 自律的인 意思決定權을 認定받고 있다. 또한 이러한 勞動者의 自治管理制度는 비단 工業 뿐만 아니라 商業, 農業協同組合, 貿易, 運輸, 病院, 심지어는 大學에 이르기까지 諸般部門에 導入되어 유고 社會의 基礎가 되고 있다. 東歐의 大部分의 나라는 실제로 아직 中央集權的인 經濟計劃과 經濟運營의 原理를 그대로 지키고 있으나 이러한 經濟體制의 短點을 認識하여 점차 準市場要素를 經濟經營에 導入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體制의 境遇도 비록 變化의 速度가 느리나 그 方向만은 정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3. 社會的 多元主義

—利益表出 機能의 強化—

물론 東歐의 境遇, 多元的인 民主社會에서 볼 수 있는 만큼 高度로 專門化되

고 組織化된 自發的 結社體로서의 利益集團의 活動을 期待하기 어렵다. 대체로 共產主義國家內의 集團活動은 一般的으로 廣範한 社會的 <카테고리>, 예컨대 農民, 手工業勞動者, 特定 人種集團等이나 軍·警·經濟支配人 等 制度的내지 機能的 集團, 혹은 勞組나 女盟 等 制度化된 大衆組織 等を 생각할 수 있다.

近年에 들어올수록 東歐의 政治過程에 있어 集團政治의 重要性이 점차 分明해지고 있음은 共產主義 社會理論家들에 의하여도 認定되고 있다.

改革過程에서 가장 큰 影響力을 구사하는 集團은 黨高位層, 高位官僚, 工場支配人, 農業專門家, 軍·警 等 黨이나 執權官僚體制內에서 公式的 地位를 享有하고 있는 制度化된 改革集團들이다. 東歐의 境遇도 絶對權者의 單極的 支配秩序가 弱화됨에 따라 이들 集團의 利益表明이 두드러졌으며 이들간의 體制內的 葛藤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위와 같은 政治體制內的 制度的 利益集團보다는 勞組, 青年同盟, 女盟 等 制度化된 大衆組織에 관심의 焦點을 맞추고자 한다. 이들 集團은 스탈린時代만 해도 이미 決定된 黨政策을 集團構成員에게 傳達하기 위한 傳導帶 내지 動員體制의 活性을 높이기 위한 動員機構의 役割을 주로 하여 왔다. 그러나 폴란드와 헝가리의 政治危機가 極甚했던 1955~'56년에 이미 이들 大衆組織은 黨에 대한 挑戰을 불사함으로써 새로운 關心을 끌었다. 以後 東歐諸國의 境遇 나라마다 偏差는 크지만, 점차 이들 大衆組織들이 集團利益의 表出者 (Articulator)로서의 새로운 地位를 強化하게 되었다.

利益集團의 活動이 두드러진 나라로 헝가리를 들 수 있다. 1960年代以後 <카다르>政權은 集團利益의 正統性을 政治的으로 公認하고 利益集團의 活動에 대하여 얼마간의 制度的 保障까지 하였다.

헝가리의 境遇 勞組의 集團利益 表出活動은 유고슬라비아를 除外한 어느 東歐諸國보다도 活潑하다. 1977년에 열린 제 22次 헝가리 勞組會議에서 勞組事務總長이자 黨政治局 委員인 <가스파르>는 勞組의 二重機能에 言及하여 「勞動者 利益의 保護 및 代辯과 勞動階級에게 黨政策을 傳達 解釋하는 것」이라고 集約하여 說明했다. 다시 말해서 利益集團 活動과 傳導帶機能을 함께 遂行한다는 意

志의 表明이었다. 1950年 全國勞組는 黨이 그의 基本指針을 作成함에 있어 勞動者의 權利중 몇가지를 考慮하지 않음을 신랄하게 批判하자 黨은 企業의 改革 決定 過程에서 勞動者의 參與를 增進시키는 具體的 原則을 마련하기에 이른다. 勞組가 政府의 基本的 賃金政策에 對하여 組織的 反對를 벌리자 政府가 이에 屈 服하여 賃金引上을 決議하는 事態가 이제는 稀貴한 일이 아니다. 헝가리의 境遇, 政策은 점차 政治的 指導者의 비전과 集團壓力間의 調和의 産物로 認識되는 것이다.

最近 폴란드의 自由勞組는 全國大會를 통하여 自由選舉를 要求하는 劇的인 行動도 서슴치 않았다. 下向的 官製勞組대신 自發的 結社體로 構成된 自由勞組는 이제 政治過程에서 <태풍의 눈>으로 登場한 것이다.

4. 知性文化의 噴出

-官製이데올로기의 退潮-

東歐의 <네오 마르크시즘> (Neo-Marxism)의 主要한 命脈은 <社會主義에의 多樣한 路>이다. 即, 蘇聯型 社會主義路線만이 絕對性을 띤 것이 아니라, 自國 原則의 妥當性을 認定해야 한다는 意味이다. 따라서 民族主義的 意味가 强하게 含蓄된다. 유고에서는 특히 1960年代부터 <創造的 마르크시스트>라고 自稱하는 많은 마르크스主義 理論家들이 <프락시스> (Praxis) 紙를 中心으로 活動하여 마르크시즘의 脫神話化에 앞장을 섬으로써 이른바 <마르크스의 타부>의 除去를 통한 보다 자유로운 마르크스 解釋의 路이 열리고 있다.

마르크시즘의 人間觀, 人道主義 및 疎外論, 道德觀에 대한 새로운 解釋도 東歐諸國에서 서서히 머리를 들기 시작했다. 폴란드의 <샤프> (Adam Schaff)는 그의 主著 <人間과 哲學>과 <마르크시즘과 國家>등을 통하여 人間이 最上의 存在이며 社會主義下에서 이러한 理想이 지금껏 實現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社會主義가 人間の 疎外를 가져오고 있다고 통박한다. 역시 폴란드의 代表的인 修正主義者인 <콜라코브스키> (Tadeusz Kolakowski)는 마르크스의 初期 著作에 根據하여 社會·政治的 發展過程에 있어 個人의 行爲, 責任 및 道德을 强

調했다. 아울러 그는 現社會의 指導者의 行爲도 道德的으로 評價해야 된다고 主張했다.

철저한 無神論의 立場에 서있는 소비에트 마르크스主義의 人道主義는 이미 東歐에서 그 바탕을 침식당한지 오래다. 폴란드를 비롯한 체코슬로바키아 및 헝가리 등 諸國의 境遇, 天主教를 考慮하지 아니한 어떠한 人間觀, 人道主義 내지 道德觀도 國民的 共感을 얻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주로 유고슬라비아, 폴란드, 헝가리 및 체코슬로바키아를 中心으로 繼續 抬頭되고 있는 脫官製마르크시즘의 선풍은 東歐에서의 自主的인 知性文化의 定着에 크게 寄與하고 있는 것이다.

5. 對蘇 自主路線의 追求

1948年 티토가 蘇聯과 訣別하여 自主外交路線을 追求한 以來 蘇聯의 東歐에 對한 스탈린主義的 支配體制는 적지 않은 挑戰을 감수해야 했다. 1956年 第20次 蘇聯共産黨大會以後 흐루시초프에 의한 脫스탈린化政策 推進과 1960年代初以後 그 深刻性이 두드러진 中蘇紛爭, 그리고 1960年代末과 1970年代初를 장식한 西獨의 東方政策 以後의 東西緊張 緩和趨勢, 유로 콦뮤니즘(Euro Communism)의 登場 및 <헝가리>體制의 樹立 등 一連의 事態變化는 對蘇關係에 있어서 東歐가 自主性을 增大하는데 크게 寄與했다. 東歐諸國은 이제 蘇聯에 對한 盲目的 追從을 止揚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非軍事的, 非政治的 面에서 西方諸國이 中心이 되어있는 國際機構에 加入하고 西方國家나 第3世界 國家들과의 協力關係를 多方面으로 擴大해 나가고 있다. 이미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및 루마니아는 蘇聯을 中樞로 하는 블럭政治의 틀에서 크게 벗어났으며 이들 諸國 外에도 헝가리 같은 나라는 西方接觸의 程度가 매우 높다. 이미 初期부터 블럭의 틀을 벗어난 유고와 알바니아를 除外하면, 東歐諸國의 對外的(對蘇) 自主路線 追求에 크게 이바지한 나라는 루마니아이다. 루마니아의 現 指導者<초우세스쿠>는 이미 그의 前任者인 <게오르그 데지>에 의해 軌道가 잡힌 對外的 自主路線을 보다 深化시켰다. 그는 1966年 5月 루마니아 共産黨 10周年을 期하여 「國

際共産黨運動에 있어서 單一的 中樞는 지난날 많은 共産黨에게 畧한 損失을 안겨 주었다. 諸共産黨內的 關係는 獨立, 主導權 및 內政不干涉의 原則 위에서만이 存在할 수 있다」고 闡明한 바 있다. 그러나 1968年 蘇聯의 체코 侵攻當時 내걸은 이른바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말해주듯 蘇聯에 있어 東歐의 意味가 強調되면 될수록 이들 나라에 對한 蘇聯의 支配權 維持를 위한 努力 또한 더욱 重要해진다. 蘇聯이 東歐諸國의 對外政策을 統制하는 基本體制는 ① 雙務條約 ② 바르샤바條約機構 ③ 相互經濟援助會議(C.M.E.A)로 集約될 수 있다. 蘇聯은 現在 東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및 헝가리 등 4個國에 總 31個師團 54萬名의 兵力을 駐屯하고 있다. 東歐諸國의 政治的 騷擾가 있는 境遇 언제든지 武力示威로 突入할 態勢가 되어 있다. 東歐는 最近으로 들어올수록 西方世界와의 貿易을 繼續 擴張하고 있으며 또 經濟적으로 蘇聯의 품으로부터 벗어나려는 努力을 아끼지 않고 있다. 東歐諸國의 一般的 趨勢는 衛星國家의 地位로부터 民族的 共產主義國家로 옮겨가고 있으며 이 흐름은 더욱 加速化 될 것으로 보인다.

以上の 論議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東歐 共產主義體制의 變動을 유발하는 背景變數는 相互複合性을 띠고 있어 그 進展過程을 一律적으로 豫測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東歐의 體制變動이 招來될 수 있는 가장 根本的인 理由로서는 東歐諸國이 全體主義的 動員方式에 依存하는 初期成長段階 即, 體制形成期를 이미 지나고 있다는 點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中央集權的 命令體制로써 能率을 구가하던 時期는 지났고, 下部組織과 地方政府에 政策決定과 執行權限을 大幅 委讓해주어 自律적으로 課業處理를 遂行하도록 해야 하는 轉換期를 東歐諸國은 맞고 있는 것이다.

또한 劃一的이고 教條主義的인 스탈린의 共產主義와는 相容되기 어려운 이들 나라들의 歷史的, 文化的 傳統도 考慮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共產化되기 直前 비록 짧은 期間동안이나마 經驗했던 民主主義的 生活樣式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美化된 記憶으로 殘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地理적으로 西歐와 隣接

하고 있어 過去부터 西歐式 思潮에 익숙해온 데다가 지금도 相互間에 比較的 손쉽게 來往을 할 수 있어 多元主義 社會의 風物에 直接的으로 影響받을 수 있는 개연성도 무척 크다는 事實은 이들 나라에 共產主義가 內面化되기 어려운 큰 理由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體制變動의 <充分한>條件도 蘇聯에게 있어서는 東歐가 死活的 重要性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어떠한 犧牲을 堪耐하고서라도 固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事實 하나만으로도 <必要한>條件을 向한 與件造成이 決定的인 壁에 부딪치고 만다. 아울러 既存體制를 守護하고자 하는 東歐諸國內 支配階層의 本能的 欲求와 이데올로기의 偏向 또한 體制變動의 制限的 要素로서 분명히 認識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볼 때 東歐의 體制變化 내지 自由化가 成就될 수 있는 <必要하고도 充分한>條件은,

- ① 民衆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民主化
- ② 政治的 리더쉽에 의한 위로부터의 自由化, 이 둘이 相互 和合되는 것을 前提로
- ③ 外部(即, 蘇聯)로부터의 敵對的 介入이 없는 境遇이다.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의 봄>의 境遇, 앞의 둘 <民主化>와 <自由化>가 充足되었지만 마지막 ③이 否의 方向으로 作用한 까닭에 결국 悲劇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에 反해 폴란드의 1980-'81년의 境遇 ①은 뚜렷하나 ②의 條件이 缺如되어 있고 ③이 未知數인 境遇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東歐의 自由化 運動이 蘇聯이 理解하는 社會主義體制 自體를 威脅할 때, 蘇聯의 武力介入은 必至의 事實이며 그러한 意味에서 自由化의 限界는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냐는 悲觀論을 감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헝가리式 改革方法이 당연히 눈을 끌게 한다. 헝가리의 境遇 1960年代以後 모든 體制變革이 漸進的으로 또 蘇聯의 事前承諾을 받으며 착실히 進行되어 왔고 이러한 過程을 통하여 수차례의 爆發的인 體制變革을 試圖했던 폴란드보다 오히려 더 많은 變化를 誘導할 수 있었음은 興味있는 일이다. 體制의 自由化過程과 聯關下에 政治的 엘리트 및 政治的 리더

쉽의 役割은 매우 重要하다. 이들은 드물게는 <위로부터> 革命的 主役으로 또 大部分의 境遇, 變動에 대한 反動役軍으로 變化過程의 향방에 큰 影響을 주며, 또 對蘇關係에 있어서는 體制保衛 및 體制變化의 義務를 지고 그 成敗에 따라 自身의 政治的 運命이 決定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東歐體制가 나아갈 方向에 대해 重大한 作用을 할 東歐 特有的 社會 文化的 要因에 대해 東歐諸國의 固有한 傳統과 文化樣式은 대체로 共產主義體制的 被動的 受容을 拒否했고 또 共產主義라는 새로운 政治體制的 틀 속에서도 文化持續의 놀라운 底力을 보여주고 있다. 例컨대 폴란드의 境遇 西歐型 유럽 文化가 지니는 合理主義 自由主義 및 民族主義의 知的 傳統을 바탕으로 社會主義政策을 受容하였기 때문에 러시아의 境遇와는 다른 特有的 反應樣式을 보여주었다. 특히 傳統的 폴란드 社會의 知識階層이 지켜왔던 엘리트 高級文化가 持續적으로 現 社會主義體制속에서 中樞的 役割을 擔當함으로써 러시아와 같은 下向式 平等化가 아닌 上向式 平等化를 꾀하는 政策을 產出했고 이 나라의 精神的 支柱인 天主教는 社會統合의 機能을 遂行하며 必要한 경우 強力한 社會變革의 機能도 遂行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폴란드 當局이 一方的으로 社會主義 人間型과 文化를 形成시키려 하지않고 <훌륭한 폴란드人>이라는 傳統과 妥協하려는 社會化政策을 遂行하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共產黨이 폴란드에서 끝내 農業集團化政策에 失敗한 것도 이러한 脈絡에서 理解될 수 있다. 이처럼 文化持續의 潛在力이 큰 境遇 異質文化(例컨대 共產主義)의 強壓的 移植에 대한 民衆의 次元의 反발을 불러 일으키며 이는 自由化의 숨은 요람으로 作用하는 것이다.

第6章 西欧共產主義運動의 實態

目 次

第1節 유럽에서의 共產主義運動의 現況과 世界共產主義運動에서의 地位	137
第2節 유럽 共產主義運動에서 나타난 最近의 特徵的 動向	141
第3節 西欧諸國의 共產黨과 그 戰略	142
1. 프랑스의 共產黨과 그 戰略	
2. 이탈리아의 共產黨과 그 戰略	
3. 其他의 유럽 共產黨들의 戰略	
第4節 西欧 共產黨들과 蘇聯과의 關係	149
1. 中·蘇對立의 影響	
2. 蘇聯의 체코 侵攻事件의 影響	
3. 西欧 自由主義體制의 經濟的 繁榮과 安定的 政治意識의 發展	
第5節 유럽 共產黨들의 苦惱	153



<마르크스>는 말하기를 資本主義가 가장 發達한 地域에서 資本主義의 矛盾은 極大化될 것이고, 따라서 共產主義革命은 이들 先進資本主義 社會에서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分明히 豫言을 하였다.

그러나 19世紀의 그의 豫言은 19世紀가 다 지나가고 이제 20世紀도 막을 내리려는 段階까지 이르도록 實現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의 豫言과는 反對로 共產主義 暴力革命은 유럽地域에서도 가장 資本主義 發達이 落後되었던 蘇聯에서 일어나고, 두번째로 共產化된 國家는 亞細亞 東北쪽의 奧地에 있는 <蒙古>였으며 오늘날 유럽의 後進地域인 東歐一帶가 共產化되고 멀리 <쿠바>가 共產化되었어도 유럽에서는 20餘個 國家에 共產黨을 두고 있으면서도 한 군데에서도 執權을 하거나 革命에 成功한 곳이 없는 것이다. 과연 西歐社會의 共產黨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西歐社會는 共產化할 것인가? 이 모든 물음은 西歐社會야 말로 資本主義 發達의 요람지요, 오늘날 世界의 尖端을 걷고있는 産業社會라는 點에서 産業社會를 指向하는 世界의 耳目과 關心을 集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以下에서는 우선 오늘날 유럽 各國에서 共產黨들은 어느 程度 黨員을 確保하고 選舉에서는 어느 程度의 支持를 받고 있으며, 어느 程度 議會에 進出하고 있으며, 黨內的 動向은 어떠한가를 統計적으로 概觀하여 보기로 한다.

第1節 유럽에서의 共產主義運動의 現況과 世界共產主義運動에서의 地位

1981年1月1日現在 世界의 全人口數의 推定値는 總 41億 7,875萬 4,000名이며, 그 가운데 共產黨에 加入되어 있는 數字는 7,671萬 4,546名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7,600餘萬名의 共產黨 黨員들은 全世界에 널린 約 90餘個의 共產黨들에 登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共產黨員數는 1979年의 統計를 比較하여 볼 때 約 100萬名 程度가 增加한 셈이다.

이들 90餘個 共產黨 가운데 執權黨은 美洲에 쿠바共產黨, 亞細亞에 中共을 비롯한 7個, 東歐·蘇聯에 9個黨이며, 아프리카, 中東 및 유럽에는 하나도 없어 통틀어 17個가 執權中이며, 約 30個는 不法化되어 있는 狀態이며, 約 40餘個가 合法的으로 存續되고 있다.

그 가운데 20餘個가 유럽에서 活動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不法化되어 있는 곳은 터키 뿐이다. 따라서 非執權共產黨으로 合法化되어 움직이는 共產黨數의 거의 절반이 유럽을 舞臺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地域別 人口比例에 따른 黨勢를 보면 蘇聯, 東歐圈이 人口 4億餘에 3千萬黨員을 記錄하고 있는 것과는 對照的으로, 亞細亞에 있어서는 人口 24億에 黨員 4千餘萬으로 그것도 中共의 共產黨員 3,800萬을 除外하면 200萬未滿이다. 한편 아프리카와 中東은 人口 3億에 黨員 24,800名이고, 美洲地域은 人口 6億에 70萬名程度가 共產黨員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유럽에 있어서는 人口 4億에 共產黨員이 거의 300萬을 記錄하고 있어 人口對比 黨員比率이 蘇聯·東歐의 共產圈과 맞먹고 있음을 注目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黨勢로 볼 때에나 地域의 重要性으로 보아서 유럽 共產黨들의 性格과 앞으로의 향배는 대단히 重要的 意味를 갖는 것이다.

그럼 다음에서 유럽 全域에 걸친 共產黨의 現況과 그 黨勢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 ① 오스트리아는 25,000名의 黨員이 세派로 나누어져 있고, 1979年 總選에서 0.96%의 得票로 議會에는 進出치 못하고 있다.
- ② 벨기에의 共產黨은 9,000名 黨員으로 두派로 分裂되어 있고, 1978年 總選에서 3.25%의 得票率을 보여 212議席中 4席을 차지하고 있다.
- ③ 사이프러스共產黨은 12,000名 黨員으로 親蘇派이며 1976年 選舉에서 30% 得票로 35席中 9席을 차지하였다.
- ④ 덴마크共產黨은 7,750名 黨員으로 1979年 選舉에서 得票率 1.9%였으나 議席은 없고 党内는 네派로 分裂되어 있다.
- ⑤ 핀란드共產黨은 約 45,000餘名으로 自主路線派이며 1979年 選舉에서

- 17.9% 得票로 200席中에 35席을 차지하고 있다.
- ⑥ 프랑스 共産党은 60萬名の 黨員을 確保하고 있다고 하나, 党内는 세派로 分裂되어 있다. 1978年 選舉때는 20.6%의 得票로 491席中에 86席이나 確保하였으나, 81年 여름 選舉에서는 16.2%밖에 票를 얻지 못하여 86席에서 43席으로 줄어들었으며, 社會党은 過半數를 웃도는 290席이나 차지하여 共産党的 統一戰線 術策은 挫折되고 말았다.
- ⑦ 英國 共産黨員은 5,600萬名 人口에 겨우 2萬餘名으로서 그나마 5個派로 分裂되었고 1979年 選舉에서는 겨우 0.5% 支持밖에 없어 한자리도 議席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 ⑧ 希臘 共産黨員은 27,000餘名으로 세派로 分裂되어 있고, 1977年 選舉에서는 9%의 支持를 얻어 300席中에 11席을 차지하고 있다.
- ⑨ 아이슬란드 共産党은 全體人口가 20餘萬名이므로 2,000餘名の 黨員이 네派로 分裂되었음에도 1979年 選舉에서는 19.7% 得票로 60席中에 11席을 차지했다.
- ⑩ 아일랜드는 300萬이 넘는 人口인데도 共産党은 겨우 600名程度로 議會 進出도 없는 親蘇派들이다.
- ⑪ 이태리 共産党은 유럽에서 가장 막강한 共産党으로 알려져 있다. 人口約 5,700萬名 가운데 黨員이 180萬以上이라 主張하고 있는데, 黨員은 9個派로 分裂되어 있다. 그럼에도 1979年 選舉에서 30.4%의 支持票를 얻어 總 630席의 議席가운데 3分の1에 육박하는 201席을 確保하여 政權에 도전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어느 党도 共産党的 支持없이는 執權할 수 없을 程度의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 ⑫ 룩셈부르크 共産党은 600名이나, 人口도 36萬이므로 1979年 選舉에서 4.8% 得票로 59席中 2席을 차지하고 있으나 역시 두派로 分裂되어 있다.
- ⑬ 네덜란드 共産黨員은 13,000名가량으로서 5個派로 分裂되어있고 1977年 選舉에서는 1.7%를 얻어 150席中에 겨우 2席을 차지하였다.

- ⑭ 노르웨이 共産黨員은 2,500餘名으로 두 派로 分裂되어 있으며 1977年 選舉에서 5.2% 得票로 155席中에 2席을 얻었다.
- ⑮ 포르투갈 共産黨은 黨員이 16萬名이라 主張하고 있으나 党内는 10個의 派閥로 分裂되어 있고 1980年 選舉에서는 16.7%의 得票를 보여 250席中에 41席을 차지하였다.
- ⑯ 산·마리노는 人口 겨우 21,000名으로서 共産黨員이 300名인데도 1978年 選舉에서 21.1%를 얻어 60席中 16席을 얻었고 自主路線派이다.
- ⑰ 스페인 共産黨은 1979년에 20萬名이었던 黨員이 14萬名으로 줄었으며 自主路線派로서 1979年 選舉에서는 10.4%의 支持로 350席中에서 23席을 차지하였다.
- ⑱ 스웨덴 共産黨員은 17,000名으로 5個派로 分裂되어 있고 1979年 選舉에서는 5.6%를 얻어 349席中 20席을 얻었다.
- ⑲ 스위스 共産黨은 5,000名 黨員이 두 派로 갈라져 있고 1979年 選舉에서 1.5% 得票로 200席中에 겨우 3席을 얻었다.
- ⑳ 西獨의 總人口 6,000萬名 가운데 共産黨員은 겨우 4萬名으로서 그나마 5個派로 分裂되어 있어 1980年 選舉에서는 0.2%의 得票率을 보여 議會進出에 失敗하였다.

以上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북유럽에서는 핀란드, 스웨덴에서 共産黨이 活潑한 편이나 크게 보잘 것이 없고, 역시 注目의 對象은 南유럽에서의 <이태리>,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임을 알 수 있다. 英國과 西獨에서는 아무런 問題가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유럽 共産黨에 있어서의 主導的 地位는 역시 이태리 共産黨임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태리 共産黨 書記長인 <베링겔>이 提示하고 있는 <歷史的 妥協>이란 黨의 路線이 意味하는 바와 그 性格을 잘 考察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第2節 유럽共產主義運動에서 나타난 最近의 特徵的 動向

周知하는 바와 같이 共產黨은 레닌이 標榜하였듯이 革命을 위한 前衛隊이다.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體制를 樹立하기 위하여는 <프롤레타리아트>를 革命으로 이끌 수 있는 少數의 革命的 엘리트의 集團으로서 構成된 前衛的 革命政黨으로서의 共產黨이 必要한 것이며, 따라서 共產黨의 存立意義는 바로 暴力革命을 指導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프롤레타리아트>獨裁政權의 樹立이란 곧 共產黨에 依한 一黨獨裁를 意味하는 것으로, 어떠한 政權 挑戰的인 複數政黨도 認定할 수 없다는 것이 大前提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유럽에서의 各國 共產黨들은 大部分의 境遇, 이와 같은 共產黨의 基本的 路線을 否認하고 있다.

即, 그들은 共產主義 建設은 결코 暴力革命에 의하지 않고 平和的인 方法으로 共產主義社會 建設을 해내겠다고 主張하는 것이다.

그들은 自由主義社會의 議會制度를 承認하고, 總選舉에서의 多數得票를 통하여 많은 共產黨員을 議會로 보내서 政權을 잡을 것이며 政權을 잡더라도 결코 一黨獨裁體制를 세우지 않고, 政權에 挑戰하는 複數政黨制를 認定할 것이며 <프롤레타리아트>獨裁를 하지 않고 <高度의 民主主義>, <前進的 民主主義>, <歷史的 妥協>을 통하여 서서히 社會主義體制로 갈 수 있는 條件을 만들어 나아가겠다는 애매 모호한 主張을 내걸기 시작한 것이다.

即, 그들은 革命이 아니라 議會制度의 裝置를 그대로 利用하여 社會의 構造的 改革을 통하여 社會主義에로의 轉換을 試圖할 것이라고 내걸고, 따라서 共產黨도 前衛隊의 엘리트政黨, 또는 單一階級政黨으로서의 政策을 버리고 大衆的 國民政黨으로서 國民 各 階層에서 널리 黨員을 擴大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標榜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이와 같은 유럽 共產黨들의 昨今の 動向은 소위 유럽 共產主義라는 새로운 카테

고리로 取扱하게 하는 하나의 原因이 되었다.

이와 같은 유럽 共產黨들의 戰略 戰術의 變化가 意味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여 그와 같은 變化를 招來케 되었는지 등을 主로 <프랑스>, <이태리> 共產黨 等 南유럽의 共產黨들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第 3 節 西歐諸國의 共產黨과 그 戰略

1. 프랑스의 共產黨과 그 戰略

<프랑스> 共產黨이 그 政權에의 挑戰을 위한 戰略的 轉換을 시작한 것은 1960 年代에 들어서면서 부터였다. 1950年代만 하더라도 일찌기 戰略的 轉換을 宣 言한 이태리 共產黨에 對하여 프랑스 共產黨의 書記長 <포레>는 아주 회의적이 었다. 그러나 1963년에 와서 <포레>는 소위 「社會主義에 있어서의 複數政黨 制」를 發說함으로서 戰略的 方向轉換의 길을 트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 은 方向轉換이 全貌를 들어내기 시작한 것은 1968年12月 프랑스 共產黨 中央 委員會가 發表한 소위 <進步的 民主主義>란 슬로건으로부터라 할 수 있다. 卽 「社會主義에로의 平和的 移行에 有利한 條件을 創出하기 위하여 모든 活動을 그에 集中할 것이며」 當面의 目標로서는 「드골政權을 打倒하고 社會主義에로의 길을 트는 政治的, 經濟的으로 進步된 民主主義를 세운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1964년에 黨書記長으로 就任하여, 69年 病死할 때까지 <脫스탈린>을 口 號로 삼았던 로셰 書記長의 戰略的 方向轉換 宣言文이었다.

그후 로셰의 뒤를 이어 黨書記長 자리에 앉은 말세 書記長은 1971年 「針路 를 바꾸자」는 論文을 통하여 提起된 <進步的 民主主義>를 위한 具體的 作戰을 發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75년에 發表된 「聯合이란 鬪爭이다」란 冊에서 보여주듯이 비록 共 產黨이 드골政權을 打倒하기 위하여 社會黨과 聯合을 摸索하기는 하였으나, 이

聯合이란 어디까지나 鬪爭을 위한 聯合이므로 聯合戰線을 편 社會黨과도 繼續 보이지 않는 鬪爭을 繼續하여야 할 것임을 強調하고 있는 것은 注目할 만한 일이다.

이와 같이 프랑스共産黨은 社會黨과의 聯合戰線의 構築을 어디까지나 執權을 위한 段階的 方法으로 취하고 있을 뿐, 社會黨의 除去를 위한 칼을 갈고 있음을 숨기기 위하여 1976年2月 22次 黨大會를 열고 프랑스共産黨은 프롤레타리아獨裁를 拋棄하겠다고 宣傳을 하며, 새로운 戰略의 整備를 서둘렀던 것이다.

사실상 1976年의 22次黨大會는 말세書記長이 취하여온 새로운 政權에로의 接近 工作을 위한 70年代의 路線을 再整備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文書로 整理된 것이 소위 「共産黨이 프랑스에 바라는 것」이란 題目的 서류인 것이다. 그 內容을 簡略히 살펴보면 ① 프랑스社會의 現象分析 ② 프랑스社會에서의 社會主義像의 問題 ③ 社會主義에로의 體制轉換의 方法問題 ④ 그같은 政治戰略의 主體勢力 整備의 問題등이었다.

이 文書를 最終的으로 大會에 報告한 것이 政治局員인 <카나바>였기 때문에 그후 이 文書를 카나바文書로 부르고 있다. 이 文書의 分析은 오늘날 프랑스共産黨이 政權掌握을 위하여 어떠한 戰略을 樹立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데 가장 重要한 作業이 될 것이다.

即, 이 文書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가지 重要한 事實을 살펴보면 우선 프롤레타리아獨裁를 프랑스共産黨은 拋棄하겠다는 것이며 앞으로 追求하여 나아갈 目標은 소위 「徹底한 民主主義로서의 社會主義」란 것이다.

프롤레타리아獨裁의 拋棄라는 것은 프랑스共産黨이 國民들의 投票를 통한 意思表示를 尊重할 것이고 따라서 만약 共産黨이 執權하더라도 投票에서 질 境遇에는 國民들의 意思에 따라 政權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即, <政權交代>를 承認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關聯하여 카나바報告書에서는 「社會主義에로의 民主的인 길」이란 項目에서 다음과 같이 主張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共産黨은 이와 같은 民主主義 征服의 여러 段階, 即 社會主義에로의 길을 가는데 있어서의 各 段階마다 將來를 選擇할 수 있는 것은 프랑스

人民의 權限이라 생각하고 있다. 共產黨은 어떠한 境遇에도 人民의 審判을 尊重할 것이다.]

이와 같은 戰略의 變更은 社會黨의 힘을 共產黨의 執權에 利用하자는데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 即, 社會黨은 <政權의 交代>의 認定과 國民的 大衆政黨을 標榜하여 온데 反하여 共產黨은 階級政黨을 高집하여 왔고, 執權後의 獨裁를 主張하여 왔던 것이다. 即, 말세書記長은 1971年4月까지만 하더라도 「社會主義社會에 있어서 政權交代制라는 問題를 學論하는 것 自體가 잘못된 것」이라고 主張하여 왔고 또한 共產黨은 <勞働者階級 및 勤勞諸階層의 權力>이란 立場을 되풀이하여 왔던 것이다. 따라서 社會黨과의 聯立을 위하여서는 종래의 主張을 修正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그같은 修正戰略을 定立한 것이 바로 카나바報告書였던 것이다. 말세書記長은 이와 같은 프랑스共產黨의 政權接近에의 戰略的 修正을 合理化하기 위하여 행한 「社會主義에로의 最長이며 最短의 길」이란 演說에서 主張하기를 프랑스共產黨의 戰略修正은 <마르크스·레닌主義>와 「世界共產主義運動 및 프랑스共產黨의 創造的 體驗」에 忠實한 것이라고 主張하면서 過去 共產黨들의 修正路線들을 例로 列舉하였다. 即, 첫째로 레닌 自身도 마르크스가 상상하였던 것과는 달리 一國社會主義의 <테제>를 發展시켰다는 事實과, 둘째로는 1960年 81個國 世界共產黨會議에서 「世界戰爭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고」 종래의 不可避論을 修正하였다는 事實 및 세째로는 1936年의 프랑스에서의 人民戰線內閣의 構成은 <마르크스·레닌>도 생각지 못했던 것을 새로이 구상하여 成功시켰던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即, 그의 主張은 1936年의 人民戰線內閣 構成을 위한 統一戰線戰術의 線上에서 새로운 統一戰線을 樹立하겠다는 戰略轉換은 있을 수 있다는 主張으로서, 바로 共產黨의 프롤레타리아獨裁의 拋棄라는 것이 政權掌握을 위한 偽裝的 戰術變化에 不過한 것임을 是認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社會主義에로의 길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過程의 多樣性的 追求가 終局的으로는 社會主義 내지는 共產主義 自體도 여러가지 얼굴을 할 수 있다는 데로 연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論議도 없지 않다. 即 프랑스가

追求하는 프랑스 獨自的인 共產主義社會의 特異性이 創出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論議다.

그러나 그와 같은 論議는 적어도 從來 共產主義의 理論的 再構成이 없이는 共產主義라 할 수 없는 第3의 形態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며, 그와 같은 可能性은 現在의 狀況으로 보아서는 전혀 可能性도 存在하지 않는 것이다. 비록 <카나바>報告書가 프랑스 共產黨의 戰略의 轉換을 宣言하였다 하더라도 그 文章의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그 本質的인 側面에서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읽을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 共產黨의 轉換은 本質的 轉換이라기보다는 狀況的, 戰術的 轉換임을 알 수 있는 것이며 바로 그와 같은 事實이 프랑스 國民으로 하여금 지난 選舉에 있어서 社會黨에 票을 던져 주면서도 그 聯合勢力이라고 標榜한 프랑스 共產黨에게는 議席을 半으로 줄이는 支持票의 激減을 가져왔던 것으로 보아야만 할 것이다.

2. 이태리의 共產黨과 그 戰略

國際通貨危機 그리고 오일쇼크等으로 世界經濟가 安定을 잃어가는 過程에서 심각한 經濟的 타격을 받은 나라중의 하나가 이태리였었다. 이와 같은 經濟危機에 對하여 基督教民主黨을 中心으로 한 政府의 無能이 非難의 對象이 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와 失業으로 因하여 이태리 社會에 不安이 增大되게 되자 이태리 共產黨은 이 機會를 黨勢擴張의 好機로 利用하려 하였다. 더구나 基督教民主黨은 74년에 파시즘勢力과 손을 잡고 離婚法 反對를 위한 國民投票를 實施하여, 慘敗함으로써 더더욱 政治的인 威信이 떨어졌다. 따라서 1975年6월에 있었던 第2次 全國地方選舉에서는 겨우 共產黨의 得票率보다 2% 差異밖에 두지 못하는 큰 後退를 맛보아야만 했다. 이와 같은 狀況에서 이태리 共產黨은 繼續 大衆運動을 動員하여 政府에 壓力을 加하며 그 地位를 굳혀왔다. 그 結果 오늘날 이태리 共產黨은 議席의 1/3까지를 占有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태리 議會에서의 어떠한 重要的 法律案도 共產黨의 默認이 없이는 通過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태리 共產黨은 政權爭取에는 아주 慎重한 態度를 나타

내고 있다. 共産党的 得票率이 72년에 38.7%, 75年の 地方選舉에서는 45.4%에 達하였으며 79년에는 30.4%를 掌握하는 等 相對的 得票率의 下向을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도 無視 못할 支持票를 確保하고 있다. 그러나 共産党은 群小政黨들과 손을 잡아 政權奪取에 나서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現在 이태리 共産党的 路線은 社會黨·共産党的 聯立政權도 아니고 勞働者政權의 樹立도 아니며 오로지 <歷史的 妥協>이라는 슬로건만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歷史的 妥協이라 함은 基督教民主黨, 共産黨, 社會黨의 3大政黨이 中心이 되어 保守·革新의 大聯合體인 大國民聯合을 意味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保守陣營과의 聯合을 가리켜 歷史的 大妥協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태리의 保守政黨인 基督教民主黨이 美國, 西獨, 그리고 바티칸宮殿의 눈치를 보더라도 결코 共産黨과 손을 잡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 교활한 이태리 共産黨 指導者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成就될 수 없는 非現實的인 口號인 '歷史的 妥協'이라고 하는 슬로건은 바로 이태리 共産黨이 당분간은 政治權力을 奪取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태리 共産黨으로 말하면 日本이나 프랑스의 共産黨보다는 훨씬 強力한 組織基盤을 가지고 있으며 더구나 議會制 民主主義를 承認하고 複數政黨을 認定하는 새로운 形態의 社會主義 建設이라고 하는 柔軟性 있는 戰略을 1950年代로부터 一貫하여 主張하여온 黨임에도 不拘하고 어찌하여서 社會黨과 손만 잡으면 即時 執權이 可能한 때도 그와 같은 社會黨과의 聯合에 의한 政權奪取을 주저하고 있는 것일까? 그 理由를 다음에서 몇가지 들어보기로 하자.

우선 이태리의 選舉風潮를 보면 投票率이 대단히 높다. 1948年以後 거의 每番 選舉때마다 約 90%의 有權者가 投票를 하여 왔다. 이와 같은 狀況은 옛날 파시즘時代로부터의 投票率이 不過 40%, 60%였다는 것과 對比하여 볼 때 오늘날의 이태리의 國民들은 거의 全員이 現在 議會制 民主主義를 最上의 政治形態로 신봉하고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따라서 이태리 共産黨은 議會制를 否定하거나 投票의 棄權을 慫慂한다거나 暴力革命을 主張해서는 共産黨이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태리에 있어서는 政黨政治가 뿌리를 내

리고 있어서 8個의 政党이 大部分 自己들의 支持票를 각기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뜨내기 政党이 아무리 쏟아져 나와도 72年 選舉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選舉用 政党들은 全國에서 받은 投票數를 합쳐도 겨우 有權者의 0.8%밖에 얻지 못했던 事實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태리 共産黨은 폭넓게 大衆의 基盤을 確保하고 勞働者階級만이 아니라 廣範한 國民의 支持를 얻기 위해서는 議會制 民主主義나 複數政党制를 否認할 수 없다고 하는 事實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로 이태리에서는 政治的 無關心層이나 부동표가 별로 없어서 既成政党이 아닌 無所屬 出馬者는 전혀 得票가 안되는 實情이다. 따라서 8個 既成政党이 獲得하는 支持票는 대개 그 比率이 決定되어 있으며 急激한 몰표現象이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共産黨이 單獨執權을 하기 위한 50% 이상의 支持票를 確保한다고 하는 것은 現在 狀況으로는 거의 可望性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共産黨의 執權은 聯立政權이 되지 않을 수 없는 바, 과연 聯立政府를 세웠을 境遇 共産黨이 얼마나 오랫동안 執權할 수 있을까를 不安해 하는 것이다. 이태리는 이미 基督教民主黨 少數 單獨政權, 그리고 中道右派政權, 中道左派政權, 社會黨이 包含된 中道左派政權 等 네가지의 聯立政權을 經驗하였다. 그러나 모두 얼마 못 가서 쓰러지고 말았다는 쓰라린 經驗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태리가 經驗해 보지 못한 聯立政府가 있다면 그것은 파시스트를 包含한 中道右派政權 과 또 하나는 共産黨까지를 包含한 中道左派政權, 다시 말해서 歷史的 妥協에 의한 聯立政權만을 經驗해 보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이태리 共産黨이 왜 左翼聯合政權을 忌避하고 保守政党인 基督教民主黨을 업고 聯立政權을 세우려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태리 國民을 支配하는 카톨릭教會의 影響力을 意識하고 있기 때문이다. 卽 이태리에서 基督教民主黨을 除外하여 카톨릭勢力을 全部 右翼으로 몰아붙이는 結果를 빚으면 共産黨의 執權 可能性은 영영 없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不安感때 문인 것이다.

3. 其他의 유럽共產黨들의 戰略

유럽共產黨의 動向을 살피는데 있어서는 以上에서 檢討한 바와 같이 이태리共產黨이 가장 核心的인 地位를 차지하는 것이며 그 다음은 프랑스共產黨인 것이다. 그러나 한때 스페인人民戰線 內閣을 成就시켰었던 스페인共產黨과 最近 포르투갈 軍部の 左傾分子들의 쿠데타에 업혀 急激히 그 地位를 굳혀갔던 포르투갈共產黨에 對하여서도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포르투갈共產黨은 그 指導者들이 오랜 亡命生活에서 돌아와 比較的 蘇聯에 對한 傾斜가 심한만큼 그 黨路線에 있어서도 蘇聯共產黨式의 硬直性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포르투갈共產黨의 硬直性은 그 指導層의 亡命生活의 背景에서 緣由되는 것만이 아니라 現在 處하고 있는 포르투갈社會의 後進性에 緣由하고 있는 바도 크다. 포르투갈의 經濟狀況은 유럽 여러 나라 가운데 아마도 가장 落後된 地域의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이태리나 프랑스의 共產黨이 戰略의 變更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社會條件의 障礙物이 存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理由는 포르투갈 共產黨이 民衆속으로부터의 組織을 通하여 政界에 君臨한 것이 아니라 左翼軍部勢力의 庇護아래 準執權與黨의 資格으로 새로운 出帆을 하였다고 하는 背景에서 緣由하는 硬直性을 指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스페인의 境遇에 있어서는 이태리나 프랑스共產黨보다도 더더욱 柔軟性있는 戰略을 구사하고 있으며 극히 조심스럽고 漸進的인 方法에 의하여 政權에 挑戰하겠다고 하는 對照的 姿勢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理由는 비록 프랑코體制가 長期執權의 癖은 있었다 할지라도 프랑코體制下에서의 經濟的인 復興과 潤澤한 國民生活의 向上에 對하여 國民들이 滿足해하고 있다는 客觀的 條件과 함께 스페인 人民戰線內閣의 形成이 프랑코政權의 出現을 招來하였다는 歷史的 經驗을 깊이 意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바이다.

第4節 西歐 共產黨들과 蘇聯과의 關係

앞에서도 指摘되었듯이 西歐 여러 나라들의 共產黨들은 大部分 第1次 國際 共產主義聯盟 가운데 極左派에 屬하는 分派들이 러시아革命 直後 레닌에 의하여 組織된 <코민테른>의 各 나라 支部 形態로 結成되었다. 따라서 유럽 各 나라의 共產黨들은 <레닌> 및 <스탈린>이 主動이 되어 움직이던 國際 共產主義 運動의 行動隊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蒙古>를 除外하고는 第2次 世界大戰이 終結될 때까지 地球上에 出現한 共產國家는 蘇聯 뿐이었다. 따라서 코민테른은 모스크바를 根據地로 하여 蘇聯의 支援 아래서만 活動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어떤 意味에서는 國際 共產黨(코민테른)은 蘇聯 共產黨의 共產革命 輸出을 위한 海外支部로서의 役割을 하였을 뿐 아니라 蘇聯 外務省의 代理役까지도 함으로서 直接 間接으로 蘇聯의 國家利益을 위한 道具로서의 性格도 띠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스탈린時代까지만 하더라도 蘇聯의 유럽 各 나라의 共產黨들에 對한 影響力은 莫強한 것이었다.

스탈린의 유럽 共產黨들에 對한 影響力을 例를 들어 살펴보면 우선 <티토>(Tito)의 소위 <獨自路線>에 對하여 스탈린이 聲討를 始作하자, 其他 各國 共產黨들은 앞을 다투어 자기 黨內의 民族 共產主義者로 指目된 者들을 골라 肅清하기에 바빴고, 그럴싸한 民族 共產主義者가 없을 때에는 黨內에서 평소 밍보였던 黨員을 民族 共產主義者로 몰아 肅清하였던 것이다.

그 結果 當時 西獨의 共產黨은 <코민포름>의 承認下에 내걸었던 <綱領>임에도 不拘하고 「社會主義에로의 獨逸나름의 길」이란 綱領을 내세웠다는 구실로 副黨首 「물러」를 肅清하였던 것이며, 프랑스 共產黨에서도 1953年初 <말띠>(André Marty)와 <띠용>(Charles Tillon)같은 貢獻 많은 黨員들을 肅清하였고 더구나 핀란드 共產黨 같은 데에서는 黨員 10名中에 1名꼴로 肅清되었고, 노르웨이 共產黨의 境遇에 있어서는 심지어 黨書記長까지도 肅清되는 形便이었다.

그러나 스탈린의 死亡後에는 차차 蘇聯의 유럽 共產黨들에 對한 影響力이 줄

어르고 있는 듯한 印象을 주고 있다. 即, 스탈린 死亡以後 西歐 共產黨을 指導하여 온 人物은 두 사람의 <T>로 알려지고 있는. 프랑스 共產黨의 <또레> (Maurice Thorey) 書記長과 「이태리의 <토리아티> (Palmiro Togliatti) 書記長을 代表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鉉夫出身인 <또레>와는 달리 <레닌>과 匹敵하는 理論家로 알려졌던 <그람시> (Antonio Gramsci)와 더불어 이태리 共產黨을 創建하고 이끌고 왔던 <토리아티>는 1956년에 이미 「社會主義에로의 이태리 나름의 길」 (Vi-a Italiana al Socialismo)을 發表하여 共產主義運動의 多中心主義 (Polycentrism)를 力說하기 시작하였고 스탈린主義에 對한 예리한 批判을 始作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西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가장 規模가 큰 共產黨이며, 「이태리」의 最大野黨인 이태리 共產黨의 움직임은 그후 西歐 여러 나라 共產黨들이 蘇聯을 批判하고, 蘇聯의 影響力을 弱화시키는데 先鋒이 노릇을 하였던 것이며, 처음에는 <토리아티>路線에 懷疑를 表示하던 프랑스 共產黨도 그후 같은 獨自路線을 걷게 만들었다.

이와 같이 第2次世界大戰以後 蘇聯의 影響力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데는 다음 몇가지 事項을 그 理由로 들 수 있을 것이다.

1. 中·蘇對立의 影響

이미 <흐루시초프>時代부터는 蘇聯의 對內外政策에 큰 事件이 있을 적마다 西方側 共產黨들에게 蘇聯의 立場을 說明하고 諒解를 求하는 低姿勢로 變하고 있었다. 그와 같은 蘇聯의 高壓的 姿勢의 弱化는 中·蘇對立으로 因한 共產圈內에서의 hegemoni 競争에 緣由된 바 크다. 그 實例 하나를 들면 蘇聯 共產黨은 1960年 프랑스 共產黨 書記長職에서 <또레>를 밀어내고, 좀더 親蘇的 人物을 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蘇聯은 第20次 및 21次黨大會에서 中共의 蘇聯離脫을 감지하고 그 反擊으로 81個國 共產黨大會를 열어 中共을 非難하고 孤立시키려고 劃策하였고 그러기 위하여서는 西方世界 共產黨들에 影響力을 가진 <또레>와 協商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2. 蘇聯의 체코侵攻事件의 影響

<두브체크>가 主導하던 <체코슬로바키아>共産党的 自由化路線 및 獨自路線에 對한 蘇聯의 武力侵攻과 暗殺에 對하여 西方圈 共産党들은 심한 反발을 느끼게 되었으며 構造改革을 통한 執權이란 유럽式 共産化路線 擁護라는 方向으로 치달는 要因이 되었다. 當時의 逸話로는 蘇聯의 侵攻脅迫에 對하여 <두브체크>는 自身の 立場을 西方圈 共産党들이 支持하고 있다고 應酬하자 <브레즈네프>는 그와 같은 共産党들은 모두 粉碎해 버리겠다고 큰소리를 쳤다하나 체코共産党에의 蘇聯의 武力侵攻은 결국 西方圈 共産党들의 獨自路線을 促求하는 結果를 빚게 하였다.

3. 西歐 自由主義體制의 經濟的 繁榮과 安定的 政治意識의 發展

소위 <構造改革論>으로 알려지고 있는 西歐 共産党들의 路線은 <前進的 民主主義>, <新型民主主義>, <歷史的 妥協>에 의한 <大衆路線>등의 多様な 얼굴을 하게 되고, 戰略的으로 議會와 選舉基盤을 重視하게 되는 結果, <프롤레타리아 獨裁>나, 共産党的 <前衛黨>으로서의 性格否定, 暴力革命의 否定 등으로 나타나고 同時에 蘇聯의 國家利益과 유럽 各國 共産党들의 利害關係와의 衝突이 顕著하게 되었다. 이것이 西歐의 先進資本主義 社會에서 適應해야만 하는 西歐 共産党들이 蘇聯共産党的 품으로부터 離脫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要因들인 것이다.

即, 蘇聯共産党은 蘇聯의 國家利益을 위하여는 <그리스>의 軍事政權이나 <스페인>의 <프랑코>政府와도 交渉을 갖게 하였고, 이와 같은 蘇聯의 外交政策은 <그리스> 및 <스페인>共産党들의 強力한 反발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또한 1972년에는 브란트政權의 存續을 바랐던 蘇聯共産党은 當時 브란트政權에 對하여 對決姿勢를 취하고 있던 西獨共産党에게 <브란트>를 支持하도록 指示함으로서 크게 反발을 샀다. 심지어는 1965年 프랑스共産党이 <미테랑>을 밀고 있을 때도 蘇聯共産党은 <프랑스>共産党이 <드골>을 밀지 않고 自身들의 利益만 취하려 한다고 非難하는 事例까지도 있었다.

위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이미 유럽 自由陣營의 共産党들에 對한 蘇聯共産党的 壓倒的 影響力은 이제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 있다. 最近 <아이슬란드>

共産党이나 <룩셈부르크>共産党과 같이 보잘것 없는 党들만이 比較的 원만한關係를 持續하는 것으로 보이며, 其他 <이태리>, <프랑스>等 党勢가 強한 共産党들은 獨自路線을 뚜렷이 함으로써 소위 <유로комму니즘>의 主流를 形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蘇聯으로서도 일단 이들의 獨自路線을 承認하는 姿勢를 취하여 더 이상 그들과의 關係를 惡化시키지 않으려는 政策을 견지하고 있는 듯하다.

그 結果 蘇聯共産党和 유럽共産党들은 비록 共同聲明文을 낼 때에도 서로가 我田引水格으로 싸먹을 수 있는 相反된 内容을 함께 發表하는 例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例를 들어 蘇聯共産党和 이태리共産党은 蘇聯의 체코에 對한 武力侵攻 때문에 完全히 絶交狀態에 이르렀으나 1973年에 겨우 다시 妥協을 摸索하는 會談을 갖고 共同聲明文을 發表하였다.

<브레즈네프>는 <이태리>共産党的 自立을 確認하는 한편 <베링겐> 書記長은 브레즈네프의 對유럽政策을 支持하며, <체코>問題도 더 이상 學論치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베링겐이 이태리共産党 기관지에 發表한 内容에서는 브레즈네프가 이태리共産党에 讓步한 部分만 發表되었고 마찬가지로 <프라우다>는 베링겐의 蘇聯共産党 支持部分만이 記者會見을 통해 發表된 것으로 報道하였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는 蘇聯共産党和 유럽共産党은 繼續 關係를 維持하면서도 相互 意見의 一致를 보지 못하는 대목은 서로의 立場만 表明하는 等 小康狀態를 維持하고 있는 것이다.

第5節 유럽 共産党들의 苦悶

유럽의 共産党이 生成된 過程이 大개의 境遇 第2인터내셔널의 社會党으로 부터 左派들이 코민테른 結成을 前後로 하여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一般的으로 選舉運動에 있어서도 保守派票나 自由主義 擁護者들의 票를 期待할 수는 없는 것이고 社會党和 共産党이 서로 갈라 갖게 마련인 것이다. 따라서 社會党支持票가 늘어날 때면 으레히 共産党支持票는 줄어들기 마련이다. 따라서 社會党이 大衆的 國民政党的 標榜하고 票발을 넓혀 갈 때에 共産党은 이에 對應치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獨裁를 否定하고 大衆政党的 標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党内의 불셰비키의 强硬派와의 摩擦 等 分派作用을 加熱시키는 結果가 되며 党的 社會党化現象을 재촉한다는 苦悶을 안게하는 것이다. 둘째로 共産党支持票는 반드시 共産主義 同調者들만이 아니라는 事實이다. 따라서 共産党이 支持票를 굶어모아 党勢가 强해지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共産党에 投票하던 支持票가 그만큼 떨어져 나간다는 事實이다. 即, 共産党에의 投票가 單純한 牽制口實을 期待하는 데에서 오는 票가 상당수 있다는 結果로서 共産党은 <이데올로기>의 固定支持票의 增加에 失敗하고 있음이 또 하나의 苦悶인 것이다. 세번째로 큰 苦悶은 소위 「社會主義로의 平和的 移行」이라는 党路線에 對한 理論的 모호성에서 오는 苦悶이다.

원래 共産党的 主張은 暴力을 쓰거나 平和的 方法을 쓰거나 간에 일단 權力을 잡으면 一党獨裁를 하겠음 되어있다. 따라서 政權을 잡았던 共産党이 選舉에 졌다고 政權을 다시 내놓는다는 것은 共産党이 아니며 機會主義者라는 것이 定說로 되어있다. 따라서 共産党和 統一戰線을 맺는 것은 利用物이 되고 굶기야는 共産党 執權後에는 祭物이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유럽共産党들은 앞을 다투어 執權後에도 결코 一党獨裁는 않겠으며 그렇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獨裁는 拋棄했다고 主張한다. 1963年 프랑스의 토레書記長은 「社會主義體制에서의 單一政党的 理論은 스탈린의 誤謬」라고까지 痛駁하는 제스처를 보였다. 그렇다면 과연 共産党이 執權하는 것은 體制의 變化나, 政權만의 變化나는 問題가 提起되는 것이며 이에는 明確한 答辯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共産党은 말하기를 共産党이 執權하더라도 당분간은 政權의 變化가 體制의 變化를 가져오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는 社·共聯立政權이 들어서는 것은 資本主義도 社會主義도 아닌 <高度의 民主主義> 體制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얼버무려 버렸다.

이와 같은 態度야말로 유럽共産党들이 스스로 理論的인 矛盾에 빠져 허덕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유럽國家들 가운데에서도 左翼政党에 對한 支持가 큰 나라라 할지라도 그 投票傾向을 統計로 보면 社會黨과 共産黨이 합하여도 40%를 넘기지 못한다. 따라서 執權을 하기 위한 聯立의 境遇에는 中道政党이나 保守政党까지도 손을 잡지 않을 수 없는 結果를 招來할 수 밖에 없다는 데에 또한 苦悶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自由主義 勢力의 壓力이 강한 西歐社會라는 認識 때문에 프랑스나 이태리共産黨들이 共産黨답지 못하게 비록 聯立政權에 參與하여 執權한다 하여도 결코 NATO로부터 脫退하지는 않을 것이라 主張하는 苦肉策을 쓰고 있는 것 또한 유럽共産黨의 苦惱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共産主義運動의 特徵은 그것이 共產主義의 유럽적 變形이라 할 수 있다.

마르크스의 共產主義가 19世紀 古典的 資本主義 社會를 對象으로 한 體制 顛覆의 論理였다면 레닌은 20世紀初葉 帝國主義時代를 背景으로 한 後進社會인 러시아社會의 顛覆을 對象으로 한 論理였다.

한편 毛澤東主義란 植民地 狀況下의 農業社會를 背景으로 한 革命戰略이었다면 체·게 바라主義는 그 라틴아메리카에의 變形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共通된 點이 있었다면 마르크스에서 레닌 毛澤東 체·게 바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暴力革命에 의한 共產化였고 그 前衛的 部隊는 職業的 革命家라 불리워지는 少數의 黨幹部를 中心으로 組織된 階級政党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暴力革命을 前提로 한 党的 組織과 役割이란 레닌에 依하여 定型化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레닌主義는 그 終焉을 告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더구나 21世紀를 19年 남겨놓고 <脫産業化>를 指向하고 있는 先進産業社會의 中樞인 유럽에 있어서 그에 對應하여 革命을 合理化시킬 수 있는 理論的 根據는 이미 既存 共產主義의 틀로는 不可能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새로운 脫産業社會의 展開 앞에 레닌主義는 無力하여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며 무엇인가 共產化에로의 길 을 合理化시킬 수 있는 理論的 再構成에 依한 粉飾이 切迫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人間의 自由와 豐饒로운 삶을 理想으로 한다는 共產主義社會가 抑壓과 貧困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 窮乏化와 滅亡으로 치달을 것이라던 資本主義社會에서 오히려 豐饒로운 삶과 人間의 自由가 꽃을 피우는 現實앞에서 어떻게 共產社會의 建設을 위한 暴力革命論이 발을 붙일 수 있겠는가라는 懷疑가 오늘날 유럽 共產黨을 괴롭히는 것이다. 共產主義 建設이란 虛像을 拋棄하자니 이는 이미 共產黨이 아니며, 暴力革命을 부르짖자니 共產黨이 설 자리가 없게 되었음이 오늘날 유럽 共產主義者들이 當面한 現實인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理論의 構成에 失敗한 그들은 오로지 過去 <人民戰線>內閣의 經驗을 되살려 戰略的인 觀點에서의 聯合戰線, 統一戰線을 위한 <슬로건>의 偽裝만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進歩的 民主主義>라든지 <새로운 型的 民主主義>라든지 또는 <歷史的妥協>이라든지 하는 修飾語는 바로 이와 같은 30年代의 統一戰線戰術의 延長線 위에서 構想된 것에 지나지 않으며 自由主義 打倒와 共產獨裁體制의 建設이란 共產黨의 基本的 硬直性에는 變化가 없는 것이다. 即, 變化가 있고자 하더라도 理論的 틀의 再構成없이 變化를 招來할 수 조차 없게 되어있는 것이다. 그 누구보다도 이와 같은 共產主義의 弱點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유럽社會의 市民들인 지도 모른다.

따라서 장차 유럽의 共產黨들이 社民黨系列로의 投降이나 아니면 새로운 理論

의 再編成이나 하는 것은 두고 볼 만한 일인 것이다.

앞으로 展開될 유럽 共產黨들의 選擇은 닥쳐올 21世紀 人類社會의 航路에 있어서 重要的 또 하나의 示陵가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結 論

共産主義는 共産黨이 그 核이 되어 展開하는 世界赤化를 위한 包括的인 運動이며 이데올로기라고 定義할 수 있다. 이러한 共産主義는 理論, 組織 및 實際運動의 세가지 要素로 된 複合的인 構成體이기 때문에, 우리가 共産主義의 理論과 實際를 올바르게 正確히 理解하기 위해서는 이들 세 構成要素間의 密接한 相互作用을 體系的으로 分析해야 한다.

共産主義運動의 目的은 短期的으로는 非共産主義體制를 暴力的인 方法으로 打倒하고 共産黨이 政治權力을 掌握하는데 있으며, 長期的으로는 <階級없는 社會>라는 終末論的이고 유토피아的인 이데올로기를 提示함으로써, 共産主義 一黨獨裁體制의 維持와 勢力 膨脹을 통하여 窮極的으로 世界赤化를 達成하려는데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共産主義運動은, 첫째 共産黨의 政權掌握, 둘째 一黨獨裁體制의 確立, 셋째 社會主義建設(社會와 人間을 改造하고, 迅速히 工業化를 達成하려는 試圖), 넷째 共産主義社會를 實現한다는 虛偽意識과 宣傳을 통해 世界赤化를 追求하는데 모든 努力을 傾注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目的論的 接近態度는 歷史的 不確實性으로 인하여 마르크스·레닌主義의 이데올로기와 共産黨의 實際運動間의 乖離를 틀림없이 發生시킨다.

1917年 러시아 볼셰비키革命以來 60餘年동안 共産黨은 10餘個의 나라에서 政權을 掌握하는데 成功하고, 아울러 一黨獨裁體制를 樹立해 놓았으나, 約束했던 中間目標로서의 <社會主義社會>마저 實現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事實은 共産主義 革命이데올로기가 虛構임을 立證하는 것이다.

또한 共產主義者들은 資本主義가 高度로 發展하면, 그 안에 胚胎된 矛盾때문에 必然적으로 人間의 意志와는 關係없이 崩壞됨으로써, 共產主義一黨體制를 樹立하게 된다고 主張해 왔으나, 이러한 共產主義的 歷史發展 圖式은 마르크스가 죽은지 1世紀가 지난 오늘날까지 世界 어느 곳에서도 實現되지 아니했다.

人類歷史의 本質이 그 不確實性和 斷絶로 因하여 將來를 豫測할 수 없다는 事實은 이미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定說이다. 이러한 歷史의 不確實성은 歷史와 더불어 生活하는 사람에게 希望과 創意力을 提供한다. 만일 歷史過程이 一定한 哲學的 決定論에 따라서 支配된다면 人間은 그 삶의 意味를 喪失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軍事的 征服이나 內亂을 통하여 執權한 共產黨은 歷史的 決定論에 立脚하여 社會와 人間을 劃一主義와 全體主義的 動員을 통해서 強制的으로 改造하려는 어리석음을 露呈시키게 된다.

人間의 基本權이 박탈되고 있는 共產黨 支配下의 삶이란 마치 強制勞動收容所의 生活이나 다를 바 없으며, 이러한 狀況에서 人間은 共產黨이 計劃한 目的에 貢獻하는 하나의 手段이 될 수 밖에 없게 된다. 바로 이것이 共產主義體制的 屬性인 것이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共產主義의 統治이데올로기는 物質的인 生活環境이 人間生活의 全領域을 支配하고 그 사람됨을 決定한다고 主張하는데, 이는 經濟的 生活關係가 政治·文化·科學·精神世界를 決定한다는 意味가 된다.

이러한 統治이데올로기에 立脚하여, 執權한 共產黨은 例外없이 迅速한 工業化를 위해서 社會의 人的·物的 資源을 總動員한다. 그러나 共產主義 一黨體制는 人間의 物質的 生活環境과 水準을 向上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人間의 物質的 삶의 窮乏을 強要하고 있다. 共產主義는 理論도 虛構이며 實際도 矛盾 투성인 것이다. 全體主義的 總動員의 典型的인 例는 스탈린 統治下에서 나타난 全體主義的 恐怖政治이며, 世襲獨裁治下의 北韓社會이다.

西歐 資本主義國家들과 東歐 共產國家들의 生活水準의 隔差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는 現象이 이를 立證하고 있다. 共產主義體制가 經濟的 發展과 生活水準 向上에 成功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相對的으로 人間大衆의 抵抗과 疎外現象

이澎湃해 지는데 이러한 現象은 結果的으로 共産党一党體制에 對한 正統性 危機를 自招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蘇聯과 東歐에서의 反體制運動, 東歐諸國의 脫蘇·自由化 抗拒가 이를 雄辯的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共産主義의 統治이데올로기는 支配階級으로 固定된 共産党 幹部의 寡頭獨裁體制와 1人獨裁를 正當化하고 合理化시키는 하나의 道具로 轉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現代 共産主義, 即 一党獨裁政治의 共通된 現象이 되고 있다.

오늘날 共産主義가 問題視되는 社會는 마르크스의 革命圖式과는 反對로 先進 資本主義社會가 아니라 内部不安을 안고 있는 開發途上國家임을 直視해야 한다.

반면 經濟的으로 資本主義를, 政治的으로는 民主主義를 採擇하면서 아직도 發展의 初期段階에 있는 社會에서는 共産主義者들의 呼訴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은 ① 資本主義社會의 苛酷한 競争에서 不安을 느끼는 사람 ② 資本主義體制의 物質萬能主義에 抵抗을 느끼는 사람 ③ 社會的 期待上昇의 機會를 일시 잃고, 그리고 높아진 期待와 欲求의 充足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 ④ 資本主義의 長點을 體驗하지 못한 사람들 속에 存在할 수 있다. 그러나 民主福祉社會로 發展한 先進資本主義의 境遇, 共産主義는 이제 問題視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共産主義는 資本主義의 代案이 될 수 없는 것이 立證된지 이미 오래이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分明히 認識해야 할 教訓은 <共産主義的 暴力革命>이 人類共同의 宿題인 人間不平等을 결코 解決할 수 없다는 歷史的 記錄과 經驗들이 다.

이제 <共産主義革命>이 人間の 自由와 正義·平等을 實現하는 代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知識과 價値로서 自覺한 우리가 志向할 바 態度는 무엇인가?

安定된 民主主義를 制度化하고 이 터전위에 高度民主·福祉社會를 建設하여 民族이 繁榮하고 終局에는 統一을 이룩함으로써 金日成世襲獨裁下에서 苦痛받는 北韓同胞를 壓制의 굴레로부터 解放하는 民族의 宿願을 達成해야 한다.

우리 韓民族이 살아나갈 길은 共産主義 本質과 眞相을 을 바로 認識하고 우리나라

라 實情에 부합되는 民主主義 政治體制와 發展된 資本主義 經濟體制를 均衡있게 運營하는 길이다.

바로 이것이 大韓民國 主導下에 祖國統一을 이룩하기 위한 國民的 使命이다.

〈非賣品〉

共產主義論

1983年 2月 21日 印刷

1983年 2月 22日 發行

發行處：統一研修所

